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지도교수 서 이 종

이 논문을 사회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김 학 준

김학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정근식 (인)

부 위 원 장 김홍중 (인)

위 원 서이종 (인)

국문초록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 그 특유의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인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이하 일베)를 분석한다.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디시인사이드(이하 디시)에서 일베로 이어지는 인터넷 문화의 맥락과 역사를 살펴보고(3장), 둘째, 일베 게시판 분석을 통해 일베에서 열광하는 혐오의 구조를 파악하고(4장), 셋째, 특히 감정사회학에 기대어 일베 이용자들이 일베를 이용하면서 혐오 대상들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5장).

이를 통해 본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베의 열광적 의례는 일베 이용자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현실이 주조해낸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일베는 강고한 분단체제의 전통과 지역주의, 가부장제의 토대 위에 2000년대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과정이라는 토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베는 각각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기존의 틀로는 설명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는 일베를 보는 기존의 시각, 다시 말해 파시즘론이나 극우주의로 환원시킬 수 없고, 새로운 이해의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때 감정사회학은 일베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틀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유동성이 만들어낸 불안과 공포는 매우 널리 퍼져있는데, 일베 이용자들 역시 이러한 감정적 분위기에 포섭되어있다. 이때 불안과 공포는 내사화(=수치)되거나 외사화(=분노)되는데, 연구과정에서 만나본 일베 이용자들은 대부분 내사시키는 편을 택했다. 내사화된 불안으로서의 수치심은 행위전략으로서 순응을 택하게 되는

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응의 논리가 '누구나' 고통스럽다는 언표로 요약할 수 있는 '평범 내러티브'로 인해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이 '평범 내러티브'는 자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타인의 고통까지도 쉽게 일반화시킴으로써 모든 고통을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체들의 인정투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평범 내러티브'는 스스로를 고통스럽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열패자로 위치시킴으로써 타자에 대한 주체화를 결정적으로 좌절시키고, 순응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게 하는 메커니즘인 동시에 일베 이용자들의 고통 역시 평범한 것으로 치환시켜 현대사회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본고에서는 일베에서의 타자, 즉 좌파, 호남, 여성이 공통적으로 착취자, 혹은 위선자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사회적 감정으로서의 분노는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권력을 상실할 경우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베 이용자들이 느끼는 분노는 나름의 정의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확산된 2000년대부터 도덕적 분개는 테라피문화나 힐링담론으로 대표되는 중산층적 감정장에 포섭되어 공적인 공간에서 쇠퇴, 혹은 퇴출됐다. 따라서 분노는 표출되는 대신 응어리져 사적 공간으로 침잠하게 되거나, 어느덧 사회적 삶의 뒷무대가 된 사이버 공간에서 격분의 형태로 표현될 뿐이다. 그리고 일베에서 표출된 분노는 냉소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일베에서 타자들을 향한 비난이 언제나 '무지함'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베에서의 혐오는 기실 냉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평범 내러티브를 내면화하여 현실적인 순응을 강조하는 것이 일베적 멘탈리티의 핵심이 된다. 때문에 일베 이용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며 인정투쟁을 요구하는 모든 주체화에의 시도를 무산시키며 평범함의 진리, 순응의 의무를 강요하는 체제수호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베 이용자들의 공감은 희생자를 향하지 못하고 가해자와 국가폭력의 에이전트에 대한 공감으로 전도된다.

때문에 본고는 일베, 혹은 일베 이용자들이 한국사회의 '돌연변이'이거나 '일탈자'이

기는커녕 가장 성공적으로 체제가 작동했을 때 산출되는 주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베에서의 열광은 냉소로 매개 된다는 점에서 일베에서의 열광은 뒤르켐이 말하는 '연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열광이다. 본고는 이처럼 연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열광을 '차가운 열광'이라고 개념화할 것을 제안하며, 이것이야말로 일베가 표상하는 한국사회의 맨얼굴이라고 주장한다.

주요어: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감정 사회학, 열광, 혐오, 극우, 평범 내러티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버 공간

학번: 2012-22927

목차

I.서론 ····· 1

1.연구의 배경 ····· 1

2.연구의 목적과 연구질문 ····· 5

3.연구의 방법 ····· 7

1)양적 방법 ····· 7

2)질적 방법 ····· 8

II.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틀 ····· 12

1.선행연구 검토 ····· 12

1)한국 사이버 공간의 연구경향 ····· 12

2)극우와 인터넷, 그리고 표현의 자유 ····· 15

3)일베 연구: 일축과 과장 사이 ····· 19

2.이론적 틀 ····· 23

III.일베와 한국 사이버 공간의 문화적 맥락 ····· 30

1.일베와 사이버 공간의 양극화 ····· 30

2.디시와 일베 ····· 35

1)디시의 보수화: 디시와 일베의 정치적 정체성 ····· 35

2)드립의 활성화: 일베적 의례의 전거 ····· 37

3)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박 ····· 38

4)커뮤니티의 흥망성쇠와 '민주주의적 혼돈'····· 39
3.일베적 언어의 확립····· 43
4.일베의 성장과 현황····· 47

IV.일베 게시물 분석: 열광의 구조····· 49

1.양적 분석····· 49
1)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 분석····· 49
2)일반 일간베스트 게시판 분석····· 57
2.사례분석: 열광적인 웹····· 62
1)사회적 무시와 타자화····· 64
(1)전라도, '7시 방향'에 위치한 '홍어들의 나라'····· 65
(2)여성, 개념 없는 '김치년'····· 69
(3)종북이라는 이중국적····· 72
2)타자에 대한 분노와 일베적 정의의 탄생····· 76
(1)5.18의 교훈: '국가를 향해 총을 쏴라'····· 77
(2)'명불허전 김치년'····· 82
(3)인간말종, '종북좌파'····· 84
3)일베의 열광과 의례: 타자의 '이중성'에 대한 '저격'····· 86
(1)5.18수정주의, 혹은 광주'사태'의 진실····· 86
(2)김치녀에 대한 색출과 징벌····· 89
(3)강남좌파, 착한 사치와 나쁜 사치의 변증법····· 92

V.일베 이용자들의 감정과 행위 94
1.신자유주의 체제의 불안과 공포 94
1)불안 95
(1)취업과 안정적인 삶 95
(2)친밀성의 약속과 여성의 배신 98
(3)관계의 도덕경제와 은폐된 지역감정 100
2)북한, 적대적 혼란에 대한 공포 104
2.분노의 공적인 퇴출과 응어리진 분노 108
1)표현의 자유 109
2)타자에 대한 분노와 전도된 피해자의식 112
(1)여성을 향한 분노 112
(2)호남과 북한을 향한 분노 115
3)민주주의의 역설 118
4)응어리진 분노와 타자지향성 120
3.순응과 평범 내러티브 124
1)친절함과 관용, 그리고 수치 124
2)자기 계발하는 일베 127
3)평범 내러티브의 탄생 132
4)체제에 대한 순응 137
4.냉소와 열광 136
1)냉소주의 138
2)차가운 열광 141

VI.결론 146
1.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46
1)연구의 결과 146
2)연구의 시사점 153
2.연구의 한계 및 제언 158

참고문헌 161

Abstract 169

부록 173
1.양적 분석 결과 174
2.일베 용어 사전 188

표 목차

<표 1> 인터뷰이들의 인구통계학적 사실 일람 ····· 10
<표 2> 사례 분석 일람 ····· 63

<부록 표 1>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의 LDA분석 결과 ····· 174
<부록 표 2>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폭동'와 함께 나타나는 PMI스코어 3 이상의 단어 ····· 177
<부록 표 3>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종북좌파'와 함께 나타나는 PMI스코어 3 이상의 단어 ····· 179
<부록 표 4>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LDA분석결과 ····· 182
<부록 표 5>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100개 단어 ····· 184

그림 목차

<그림 1> 이론적 틀 ····· 24
<그림 2> 12개 주요 커뮤니티의 포지셔닝 맵 ····· 34
<그림 3> 일베 게시판 공지문 ····· 42
<그림 4>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월별 변동 및 증감율 추이 ····· 48
<그림 5>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토픽분포도 ····· 50
<그림 6> 주요 토픽의 월별 변동율 ····· 51
<그림 7>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월별 토픽 8 분포 ····· 53

<부록 그림 1> PMI지수를 이용한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네트워크 분석 ····· 176
<부록 그림 2>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518'과 '폭동' 단어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 분포 ····· 178
<부록 그림 3>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홍어'와 '전라'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 분포 ····· 178
<부록 그림 4>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종북' 및 '전라'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 178
<부록 그림 5>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슨상님', '노알라', '노짱'을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 180
<부록 그림 6>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이석기', '리정희'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 180

<부록 그림 7>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종북으로 언급되는
인물을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 181
<그림 8>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오유'와 '일베'를 포함한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 184
<부록 그림 9>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여성비하어와
남성비하어를 포함한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 185
<부록 그림 10>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여성비하어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 185
<부록 그림 11> PMI지수를 이용한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네트워크 분석 ····· 186
<부록 그림 12>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댓글의 감정분석 (단위는 퍼센트) ····· 187

I. 서론

1.연구의 배경

제 18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한창이던 2012년 11월 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이후 빠른 기세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추격하고 있었다. 문 후보의 지지세는 SNS에서 특히 열광적인 호응을 얻어냈는데,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소급하면 1990년대 말 정보화혁명이 한국에 소개된 이래 인터넷상의 정치적 여론이 줄곧 진보에 호의적이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서민 이미지를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려던 문재인 후보의 TV광고가 나온 것도 이때 즈음이었다. 평상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연설문을 검토하는 문 후보의 모습이 담긴 광고가 여론의 맹폭을 받으리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보수언론에서는 '인터넷과 SNS'에서 문재인 후보가 앉아있는 의자가 '700만원이 넘는 미국산 임스 라운지 체어'라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개제했다. 이 기사에서 언급한 '인터넷'의 출처는 다름 아닌 '일베저장소' 혹은 '일베'라고 불리는 웹사이트였다. 일베에서는 광고가 나온 당일 홍보영상에 10초 남짓 등장한 의자의 모델명과 스툴 옵션이 포함된 가격을 알아내어 '서민'과 '88만원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조롱했다. 이 게시물은 즉각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곧이어 문재인 후보가 쓴 안경테 역시 고가품이라며 비난과 냉소를 퍼부었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고, 급기야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해명하기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반향은 없었다. 오히려 비슷한 시기 논란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손녀가 입은 패딩점퍼의 가격이 회자되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 잣대'라는

냉소가 돌아올 뿐이었다. 야당 측으로서는 '믿었던' 인터넷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되었고, 일베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물론 포털 뉴스 댓글에서의 여론이 언제나 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댓글은 이른바 '십알단'따위의 소행으로 치부되어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 '십알단'이란 18대 대선 기간 중에 신드롬에 가까운 화제를 만들어냈던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집권여당과 일부 종교단체가 특히 노인들을 중심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SNS댓글을 작성하는 단체를 일컬어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칭한 것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의견표명을 하는 속칭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서 '동원'한 이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나꼼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것 같다. 예컨대 다음 기사를 보면 문재인을 비난하는 댓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댓글 작성자를 '십알단'이라 칭하며 조롱하는 댓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십알단'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알바'라고 호명되어왔다는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십알단과 알바라는 호명은 한국의 사이버 여론에 있어 진보적(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진보주의자'들을 진정으로 '진보'라 부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바꿔 말하면 인터넷에서의 진보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특히 한국의 보수를 옹호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다. 따라서 그들을 대변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거나 무식한 사람 혹은 진정성 없이 감정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로 귀결되어왔다. 그렇기에 포털과 커뮤니티를 막론한 사이버 공간에서 보수를 자임하거나 우파의 이념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냉소와 동정의 대상이 되어왔다. 다시 말해 최소한 사이버 '공론장'에서 우파의 자리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단지 소수

의 악플러로, 기계적으로 타이핑을 반복하는 알바로, 과거를 회귀하는 노인들로 타자화 되어왔다. 일베가 사이버 공간, 나아가 진보를 자임하는 이들에게 준 충격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인터넷 공간에 처음으로 자발적인 보수 우파가 집단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일베가 여론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비단 이때 뿐은 아니다. 최소한 언론의 눈에 일베는 디시인사이드나 웃긴대학, 오늘의 유머와 같은 커뮤니티사이트와 커다란 차이점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언론에서 일베를 혐오발화 사이트로 규정한 최초의 기사는 경향신문의 기사 "'잉여들'은 왜 보수우파를 동경하게 되었나"이다. 아직 일베가 현재의 규모로 성장하기 전에 작성된 이 기사가 나올 때 까지만 하더라도 일베는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던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2012년 10월, 이른바 '인증대란'과 함께 일베는 드디어 수면 위로 부상했고, 대선기간의 흥분과 더불어 일베는 디시인사이드에 버금가는 커뮤니티사이트로 성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팩트'와 '저격' 사이에서 인터넷 담론지형에서 진보는 패닉에 빠졌다. 일베가 가진 최고의 칼은 이중 잣대라는 공격이다. 문재인의 의자를 보며 말했듯이, 여성에게도 호남사람들에게도, 좌파들에게도, 북한에도 이중잣대라는 공격은 각자가 믿고 있는 도덕적 정당성을 뿌리부터 뒤흔든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적 수사 앞에 5.18이라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녹아내리고, 기회의 평등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부정하며, 헌법을 근거로 북한과 북한을 옹호하는 모두를 적으로 규정한다. 이들의 능란한 상징놀이와 인정투쟁은 과거 정보화의 초창기 시절 진보성향의 네티즌들이 박정희의 이미지를 비꼬고 당대의 모든 문제를 산업화로 등치시켰던 것과 기묘할 정도로 닮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베를 보며 '촛불의 쌍생아'라고 부르기도 한다(박가분, 2013).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사회가 민주화과정을 통해 이룩해 놓은 제도적 근거들로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더더욱 공포스러운 지점은 누가 일베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베는 아주 의외의 장소, 의외의 관계에서 슬그머니 그 존재를 드러낸다. '친하게 지내왔던 누군가가 알고 보니 일베였더라' 같은 경험담은 도시괴담과 같이 퍼져있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가공할 언어적 폭력과 실존적 위협 앞에 일베, 그리고 일베에서 '잉여'롭게 거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괴물의 낙인을 찍었다. 실제로 많은 인터뷰이들이 면담과정에서 '일베'를 입에 담을 때마다 대단히 조심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한국사회가 일베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스케치라고 할 만 하다. 이는 과거 누군가가 '디시'를 한다든가 '웃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거나 비난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단히 상이한 반응이다. 일베가 분출하는 열광적 혐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혐오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일베를 향한 혐오의 근원은 다름 아닌 '누가 일베인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다. 실로 일베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한때 일베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유행했다. '일베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만약 일베를 한국사회가 품어왔던, 그러나 애써 모른 척 미봉해왔던 모든 문제와 불만이 분출된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일베가 아니면서도 누구나 일베라는 말도 성립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양 '나대는' 좌파들에 대한 불만,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의무에 대해서는 냉담한 여성들에 대한 혐오, 겉으론 친절한 척하지만 의뭉스러운 호남사람들에 대한 의심,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멸시와 같이 일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단한 갈등과 감정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는 말 앞에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혀왔던 감정을 날것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어찌 보면 일베가 준 충격은 일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터넷 상에서의 특정정당 '알바'나 '십알단'따위로 정의되던 '진정성이 결여된 메시지 전달자'가 그 실존과 진정성을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한 충격

보다도 모두가 암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드러냈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대체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불만이 많은) '루저'라거나 '사회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들의 일탈과 같은 비판에 머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베를 일본의 넷우익이나 서구의 네오나치와 같은 극우로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일베가 풍기는 인상에 근거한 것일 뿐 실제 일베를 정확히 통찰하지 못한 피상적 비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일베를 향한 비판이 무기력한 이유는 일베 이용자들을 소수의 특수한 이들로 국한시키려는 시선의 배후에 '저급함'과 '고급'스러움을 대비시키는 구별 짓기의 논리가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일베와 똑같은 차별을 수행한다. 즉, 일베를 향한 지금까지의 약한 비판과 분석은 "일베를 통해 우리가 가진 어떤 혐의와 불안을 해소"(윤보라, 2013: 56) 함으로써 결국 우리 눈에 박힌 들보를 보지도 뽑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일베는 저널리즘적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적 분석의 대상이며, 일베가 온몸으로 표상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혐오들을 사회적 사실로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한국사회가 당면한 후기근대(late modern)적 문제들을 통찰할 수 있다. 때문에 일베 연구란 혐오발화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차라리 한국사회의 형성과정에서 봉합된 모든 문제들이 사이버공간이라는 매체를 통해 분출된 온갖 갈등과, 그 표현형인 감정(들)에 대한 연구일 수밖에 없다.

2.연구의 목적과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베에서 공유되는 감정적 분위기는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는 일베를 꿰뚫는 감정을 분노나 증오와 같은

열광적 분위기로 단정하는 사회적 통념이 실제와 조응하는지를 실제 게시물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미 알려진 바와 다르다면 그곳에서 교환되는 감정은 무엇으로 지칭할 수 있는지 밝힌다.

둘째, 일베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집단은 누구인지 확인하고 기존의 혐오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데 있다. 이미 상당부분 알려진 것처럼 일베에서는 호남과 여성, 진보좌파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매우 널리 퍼져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베 이용자들의 반응이 과거 한국에 있어왔던 각각에 부여한 스티그마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다. 이는 일베에서 나타나는 혐오발화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편견을 그대로 답습하는지 아니면 오늘날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베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담화가 그들이 실제로 믿고 느끼는 내용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포함된다.

넷째, 본 연구는 일베를 넘어서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일베적 멘탈리티'라 부를 수 있는 사회적 삶의 태도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는 다시 말해 일베가 과연 2008년의 촛불의 결과이자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우발적 사건인지, 아니면 해방이후의 근대화시기에 누적되어온 문화체계와 오늘날과 같은 후기근대 시기에 촉발된 시민사회의 붕괴, 그리고 불안과 같은 정서의 확산과 관련 있는 사회적 현상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본 논문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3.연구의 방법

1)양적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양적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해당 웹사이트 내에서 많은 사람의 추천을 받은 '일베 게시판' 및 '정치베스트 게시판'의 게시물을 살펴보았다. 이 게시물들은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DB화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2월 28일 24시를 기점으로 하여 일베의 '일간베스트'게시물이 된 모든 게시물을 크롤링해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 205,960개와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 100,145 개, 총 506,125개의 게시물을 수집했다. 이때 웹크롤링은 일베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을 수집하는 절차로써, 일베에서는 웹메일주소를 제외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우려는 거의 없다. 일베에서는 이용자의 아이디 역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필명만 드러날 뿐이고, 본 연구를 위한 크롤링 과정에서 필명의 일부만 기재될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게시물에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확률적 토픽 모델링(probabilistic topic modeling) 중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게시물과 키워드와 토픽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LDA는 하나의 토픽은 특정 단어들의 집합이고, 각각의 문서는 다양한 단어가 뭉쳐진 토픽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어는 하나의 토픽에서 나온다고 가정한다.(Blei, 2012) 이 기법은 한 문서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 특히 SNS나 사이버 커뮤니티 등과 같은 인터넷 담론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질적 방법

면접은 미리 설계된 설문지와 참여자의 감정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일베에서 논의되는 네 가지 주요 혐오대상을 표상하는 중립적 이미지를 준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확인할 것이다. 즉, 이미 편견을 가진 상태라면 특정한 방식으로 프레임 지었을 만한, 그러나 불쾌감을 주지 않을만한 이미지를 선정하여 참여자에게 제공한 뒤, 해당 이미지를 보았을 때 연상되는 느낌과 감정을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했다. 이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함께 해당 이미지가 포함하는 카테고리를 일베에서 직접 검색하여 열람해본 후, 참여자의 자발적인 연구참여와 자연스러운 감정변화의 과정을 관찰했다.

면접조사는 일베에서 글을 작성하거나 자주 일베에서 작성된 글을 열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일베에 대한 다양한 관심 중 하나는 '누가 과연 일베 이용자인가'하는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일베가 다양한 연령을 가진 이들이 아무 제약없이 모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라 하더라도(서이종, 2002) 일베 이용자의 대다수는 20-30대 남성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른바 '잉여'론이나 '루저'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베 이용자를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에서 탈락한 이들로 보는 시각이나, 일베에서 이용자들이 나누는 언어적 행태가 '남고생'들끼리의 호모소셜한 시시덕댐과 비슷하다는 지적은 일베 이용자들이 청년층일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한 분석이다. 이러한 추측은 웹사이트 분석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랭키닷컴> (www.rankey.com)의 분석에서도 정당화되는데,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20-30대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1]. 뿐만 아니라 일베 내에서 가장 많은 게시물이 등록된 게시판이 최근 젊은 층에게

1)http://www.rankey.com/search/rankey_search.php?what=data&search_word=%C0%CF%BA%A3%C0%FA%C0%E5%BC%D2

‘스타크래프트’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 LoL)게시판[2]이라는 점은 그러한 전제를 수긍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최근 일베에서 세월호 침몰사건의 희생자 부모들을 향해 ‘좀비’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50대가 검거되거나[3] 일베 이용자들이 정치게시판 이용자들을 ‘아재’(아저씨)라 부르며 조롱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4] 일베라는 공간은 대단히 중층적인 이용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일베는 여전히 다양한 연령층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모든 일베 이용자들을 ‘잉여’나 ‘루저’로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자기기만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40대 이상의 일베 이용자들은 번번히 약속된 시간이나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부인하기 일쑤였기에 개인 수준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러한 난점은 40대 일베 이용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현실적 이유이다.

또한 여성 일베이용자의 경우는 그 스티그마가 더욱 강렬하게 작동한다. 여성 일베 이용자들은 일베 내에서조차 ‘암베충’[5]이라 불리며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네이트 ‘판’[6], ‘소울드레서’[7] 등과 같은 여성향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일베가 사실상의 ‘절대 악’이 된 상황에서 여성의 ‘일밍아웃’은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면접대상의 선정은 대단히 제약될 수밖에 없었기에 일베 이용자

---

2) 2014년 6월 13일 12시 현재 약 2,718,000개

3) <경향신문>, 2014년 5월 12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더러 ‘좀비’라고...50대 일베 이용자 입건“

4) ‘정게아재’(정치게시판을 이용하는 아저씨)들은 일베가 디씨로부터 전승한 사이버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에 ‘일베적’ 문화와 의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을 보인다. 또한 정게아재들은 일베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다시 말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동떨어진 믿음과 신념에 따른 비난에 치중하기에 일베 내에섯도 ‘우파 좀비’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5) 암베충은 여성을 비하하는 ‘암컷’에 일베 이용자를 비하하는 ‘일베충’을 합성한 말이다.

6) http://pann.nate.com/

7) http://cafe.daum.net/SoulDresser

의 절대다수로 인정되는 20-30대 남성 이용자만을 인터뷰이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들을 인터뷰이로 모집하는데 있어 지역 및 학력을 안배했다. 우선 지역의 경우, 일베 이용자는 '오유'등 여타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경향이 있다. 즉 일베 이용자들은 상당부분 현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인 영남, 그 중에서도 대구-경북 출신자로 특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편견은 연구목적과 대비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고 서울 경기 지방은 물론 호남 출신 일베 이용자를 인터뷰이로 선정했다.

이름	성별	나이	학력	학교	직업	거주지역	출생지역
A	남	25	대재	지방소재 4년제	학생	대구	대구
B	남	22	대재	서울소재 4년제	학생	서울	서울
C	남	28	대졸	지방소재 4년제	회사원	인천	인천
D	남	26	대재	서울소재 4년제	학생	서울	대구
E	남	20	대재	서울소재 4년제	학생	서울	서울
F	남	21	대재	재수생	학생	인천	서울
G	남	23	대재	지방소재 4년제	학생	인천	인천
H	남	25	대재	지방소재 4년제	학생	서울	서울
I	남	22	대재	지방소재 2년제	학생	부산	부산
J	남	32	대졸	지방소재 4년제	회사원	울진	전주

<표 1> 인터뷰이들의 인구통계학적 사실 일람

또한 '루저'라는 편견은 일베를 특정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어휘이다. 어떤 사람이 '루저'인지 여부를 사회학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용어는 그가 중간계급 이상의 경제자본 혹은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3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인증대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베 이용자들이

스스로 ‘루저’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식이 학력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도 그들의 ‘내부자적 입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학력이 가지고 있는 상징, 다시 말해 계급재생산의 유력한 도구라는 점에서 고학력자는 높은 확률로 중간계급 이상의 물적 토대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선정된 최종 인터뷰이는 위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틀

1.선행연구 검토

1)한국 사이버 공간의 연구경향

구자순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된 한국 사이버공간에 대한 논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총 82건의 분석 대상 중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연구들은 시민 저널리즘의 일상화와 같은 사이버 공간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회학에서 최초의 이론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페미니즘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데, 해러웨이로 대표되는 유토피아적 전망은 국내에서도 일부 수용됐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곧장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성차별, 성매매 등으로 인해 기각되었다.(구자순, 2008)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와 같은 기술 결정론적 유토피아론은 특히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결합하며 더 큰 '오해' 혹은 경도된 기대를 갖게 했다. 하버마스의 논의에 기대 사이버 공론장의 가능성을 탐색한 학자들은 사이버공간의 탈맥락적 성격에 의해 공적인 것들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예컨대 김성국의 경우 사이버공간을 자유와 해방이 보장된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는데(김성국, 2000) "자본주의 경쟁논리에서 해방, 상품화로부터의 해방, 위계서열적인 지배와 감시로부터의 해방, 도덕적, 종교적, 이념적, 도그마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토피아적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구자순, 2008: 220; 김성국, 2000, 재인용)

하지만 '개똥녀'사건이나 악성댓글과 같은 사이버 폭력이 일상화되고, 사이버 민주주의라는 이상주의적 전망과는 다르게 비합리적인 논의가 폭증하면서, 인터넷이 공공적이며 이상적 담론상황을 제공할 것이라는 시각은 상당부분 기각되었다. 인터넷 게시판,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엔 더욱, 은 (정보 격차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논외로 한다고 할 때) 누구나 어떤 주장이든 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행사를 외적, 내적으로 방해받지 않을 수'있다는 공론장으로서의 근사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제 인터넷 게시판의 상호작용은 "실제로는 소수 핵심참여자들이 논의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며 또 정당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8](서이종, 2009: 13)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권위를 가진 소수 이용자들이 기타 참여자들을 주변화 시키는 등 공론장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정보사회의 도래라는 국면에서 방금 언급한 학자들이 보인 유토피아적 기대가 완전히 허황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 문화의 '어두운'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특히 90년대 중반의 PC통신 시대에 대한 향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 사이버 공간의 초창기에 참여와 소통(박동진, 2008)과 같은 시민적 덕성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높았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고학력자들이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던 맥락과 다르지 않다.

특히 2008년 촛불정국 이후 발표된 여러 연구들은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정치참여 및 정치적 소통의 가능성을 주로 논의했는데, 이는 이후 한국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거대한 '균열'을 생각해본다면 대단히 씁쓸한 정경이라 할 만 하다. 고경민-송효진은 촛불시위가 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항의의 정치가 결코 가

8)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이목(mutual focus)가 소수의 이용자로 쏠리는 현상은 이후 '친목금지'의 의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일베는 초창기 인터넷 '유토피아론'을 여전히 믿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베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들간의 친목과 유대를 내던진 것이다.

볍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시민의 정치적 인식이나 정치 참여의 양상이 바뀌고 정치 환경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고경민, 송효진, 2010: 261-2)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제도가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보다 조금 전에 김경미는 2002년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를 분석한 논문에서 2002년의 촛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비관습적 참여유형으로 파악했다(김경미, 2005).

장우영(2006)이 한국 사이버공간의 정치적 이념지형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PC 통신을 기반으로 하던 1998년 이후의 정초기부터 2000년 월드와이드웹이 보편화된 이후 2005년까지의 인터넷 기반 확장기에는 진보주의자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다. 최태섭(2012)이 지적하듯이 딴지일보와 안티조선, 그리고 논객들의 시대였던 2002년에서 2004년을 지나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2008년까지, 한국 사이버 공론장의 주된 이념적 지형은 상당부분 진보에 가까웠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방적인 진보 우세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진영이 사이버공간에 진입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2008년 촛불집회는 한국 사이버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인터넷 카페인 노노데모[9]에서는 "촛불시위에 대한 카운터 담론이 조야하나마 만들어지는 한편, 팩트와 의심 가는 진술들이 뒤섞인 형태로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었다"(최태섭, 같은 글:61). 이러한 변화는 2009년 미네르바 사건과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거치며 사이버 공간의 좌우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처럼 사이버문화 연구경향은 특히 하버마스의 이론에 기댄 사이버공간의 상(像)이 일베를 만났을 때 쉽게 허물어진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있어왔던

9) http://cafe.naver.com/nonodemo

다양한 혐오발화와 플레이밍 등의 사이버문화에 대한 계몽적 심판으로 이어지거나 도덕적 개탄에 머무르게 한다.

2)극우와 인터넷,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한국의 초기 사이버문화가 진보우세를 보였다면 서구의 경우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는 인터넷이 아직 대중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1985년에 이미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나타났고(Hamm, 1993), 미국의 경우 극우 혐오발화 단체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무려 33%나 늘어났다.[10] 이러한 경향은 비단 인터넷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995년 일어난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테러와 같은 극단적 테러활동에서 최근 유럽 총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극우정당의 폭발적 성장과 같은 조직적 성장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극우의 재흥은 서구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립셋과 라브는 극단주의를 “다름과 반대의견을 억압하고, 사상의 자유 시장을 닫는 것”이며 더 자세하게는 “균열이나 갈등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Lipset-Laab, 1970:6)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난 극우주의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Kay, ibid). 옌스 리드그렌은 최근의 ‘신 극우’(New Radical Right)가 과거의 극우파들과는 달리 경제적인 이슈보다도 정체성과 문화 이슈에 훨씬 민감한 이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많은 경우 신극우를 추동하는 이슈는 반이민주의인데, 신극우주의자들이 보기에 이민자들은 자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범죄나 사회적 불안(insecurity)의 원인이며 실업수당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는 무임승차자들이다.(Rydgren, 2007) 이와 비슷하게 다니엘스는 최근 준동하는 백인 우월주의 그룹의 구성원들이 경제적

10) Intelligence Report: The Year in Hate, 2005, 2006

으로 우월하고 사회적으로 동질적이며 고학력을 가진 이들임을 지적한다.(Daniels, 1997) 또한 이들 신 극우들의 담론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매개되면서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전통적인 백인우월주의 담론의 장르에서 벗어나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한다. 뿐만 아니라 더욱 세련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극우주의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여타 사이트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자신들의 신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Gerstenfeld, et.al, 2003)

이러한 경향은 1만 3천 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일본의 극우단체 재특회(재일 코리안의 특권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역시 자신들을 사회의 비주류로 인식하며 재일 한국인 등의 외국인을 '엘리트'로 여기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이나 학교폭력 등의 모든 부조리가 결국 이들 '엘리트' 때문이며 그들은 평범한 일본인들이 땀 흘려 마련한 복지제도 등에 무임승차하며 감사해 할 줄 모른다며 분개한다. 다음과 같은 한 재특회 회원의 말은 이러한 인식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우리는 일종의 계급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특권에 대한 비판이고, 엘리트 비판입니다."(야스다, 2013:60) 이들의 행태를 르포식으로 기술한 야스다 고이치는 이들이 일본 내 외국 국적 거주민들에게 아무리 심한 욕설을 입에 담아도 가해자 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재특회 회원들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의 기저에는 앞서 설명한 피해의식, 혹은 전도된 엘리트론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리드그렌은 베츠(Betz)를 인용하여 극우주의를 배태시킨 다양한 원인 중 상대적 박탈감과 근대화의 패배자들에 의해 추동된다는 논의를 살펴보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근대화를 따라잡지 못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은 '잉여'가 되고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데, 이들은 무엇보다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며, 안전하지 못하며 분개"(Rydgren, ibid: 248)하는 감정 상태에 놓이게 된

다. 이들의 불안감 등은 전통적 가치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치적 주장을 지지하게 하는 중요한 감정적 메커니즘이다. 최근 일베에 대한 (특히 진보)언론들의 일베 프레임은 이러한 인식에 기대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여기에 리드그렌은 밍켄버그(Minkenberg)를 인용하며 이러한 '루저'들이 더 넓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밍켄버그는 한 사회의 극우를 지지할 수 있는 루저를 그 사회의 "하위 2/5"(ibid:249)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히 신극우주의자들의 주된 혐오의 논리가 '무임승차'론이라는 점에서 더욱,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 루저의 범위, 다시 말해 불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공유하는 이들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11)]

한편 신극우주의자들의 중요한 담론투쟁의 전략은 자신들의 '혐오'발화를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여기며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반민주적'이라고 한다는 데 있다. 서구의 이러한 전략은 특히 홀로코스트 수정주의(혹은 부정론)자들이 즐겨 쓰는 것으로써(Fish, 2001;Bleich, 2011) 거칠게 소급하여 일본의 재특회도 자신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자신들은 언론의 자유가 있으며 이를 비판하는 변호사회 등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야스다, 같은 책:111)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식은 상이하다.

김남국이 살만 루시디사건에 대처하는 영국 법원의 자세와 헤드스카프 논쟁을 둘러싼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갈등을 적절히 비교했듯이, 혐오발화를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상이하여 하나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김남국, 2004).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나치정권

---

11) 때문에 일부에서 일베를 (소수인)루저로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바우만 등이 말하는 '후기근대'를 특징짓는 감정인 바,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일베 이용자들의 감정을 다루는 장에서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시절의 참화를 겪은 독일은 형법으로 국가사회주의 치하에서 저지른 범죄(홀로코스트)를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자를 실형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3년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 증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의 추가의정서가 유럽이사회에서 제정되어(이재승, 2008) 현대사회의 성스러운 악(알렉산더, 2007)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을 엄히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하여 홀로코스트 부정 역시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Rosenfeld, 2003)

한국에서 벌어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옹호론은 주로 진보진영에서 자주 제기되었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미네르바'사건이다. 미네르바(본명 박대성)는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정부, 금융 기관에 달러 매수 중단 지시(2008,12,29)>라는 글을 써 "전기 통신 기본법 제 47조 1항" 혹은 허위 사실 유포 죄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미네르바를 구속시키는 법적 근거가 된 이 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말과 '공연히'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에 많은 (진보성향)지식인들은 환호했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한국에서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다시 한 번 각인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네르바 사건이 벌어진지 3년 만에 일베가 자신들 역시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진보를 자임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일베의 담론을 분석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한 참고 점을 제공한다. 즉 일베가 혐오대상을 향해 내뿜는 말들의 구조란 많은 경우 여성, 호남, 좌파 등이 부당한 혜택을 받으며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극우 혹은 혐오주의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베가 가지고 있는 극우적 요소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들의 논의가 실상 그렇게 '집중'적이지 않다는 점, 재특회와 비교했을 때 재외국민에 대

한 혐오가 아직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적으로 삼고 있는 타자가 실제 '외부'의 타자라기보다는 한국적 맥락에서 제조된 '내부'의 타자라는 점에서 쉽게 등치시킬 수 없다. 그렇다고 한국에 존재해왔던 전통적인 우파들과 등치시킬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게 되겠지만, 북한이나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혐오가 진짜 혐오라기보다는 냉소라는 점에서 결코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태를 혐오나 극우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3)일베 연구; 일축과 과장 사이

일베 현상이 본격적으로 세간의 주의를 끌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일베는 몇몇 언론에 의해서 '한 커뮤니티(유머)사이트'로 지칭되며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웹사이트 중 하나였다[12]. 이 논문을 작성하는 20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베가 한국 사이버문화의 상수이자 문제적 사이트로 부상한 것이 약 일 년 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논평이나 단상의 수준을 넘는 연구는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쉽게 찾기 힘들다. 때문에 적지 않은 연구나 분석이 일베의 위험성 등을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

'청년논객'으로 유명한 박가분이 쓴 『일베의 사상』은 일베에 대한 과대평가의 한 전형이다. 그는 일베가 좌파, 특히 2008년 촛불의 대립쌍 혹은 쌍생아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일베에 대해 분개하는 진보주의자들에게도 '내 안에 일베 있다'는 식의 자기반성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엄밀한 분석이라기엔 한계가 있다. 그는 일베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 '감성적인 이상주

12) 단, 일베의 '중대함'을 상대적으로 일찍 파악한 것은 <경향신문>이나 <시사in>등 진보 계열 언론사였다.

의에 또 한 번 휘둘리느니 철저하게 몰이상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일베의 핵심 사상"(박가분, 같은 책:146)이라고 옳게 지적하고 있다. 반면 그는 일베가 모종의 '형제애'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베라는 '객관적 실체'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베는 태생적으로 사회운동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13]는 식의 과소평가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또한 이 책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현재의 일베가 있게 된 '조상'으로 디씨인사이드가 있다는 사실을 옳게 지적하고 있지만 각론과 맥락에 있어 자잘한 오류와 과장[14]을 범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조용신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이 글은 일베라는 거대한 사이트의 일부에 불과한 '정치일간베스트'게시물을 분석한다. 그는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가장 많은 게시물이 작성된 시점과 그 당시에 있었던 주요 정치이슈를 분석하고, 가장 많이 사용된 25개의 단어들 간의 의미연결망분석을 시도했다. 곧이어 그는 게시글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자신의 분석이 "일베가 예외상태·호모사케르·파시즘의 논의와 유사한 작동방식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조용신, 2014:62)다고 과감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분석은 성과 한국사회, 한국 사이버문화의 맥락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15] 위에서 언급된 박가분과 아감벤의 논의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일베의 다양한 측면은 도외시한 채 일베에 대해 선험적으로 이루어진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분석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

13) <경향신문> 2013년 6월 4일, "['일베 현상'에서 한국 사회를 본다]"일탈적 놀이 즐기는 누리꾼일 뿐이냐, 세력화 가능한 여론집단이냐"
14) 대표적으로 그는 코갤문화의 형성과정에서 소설가 이외수씨의 역할을 과장하고 있다.
15)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진술은 디씨인사이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저자의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베는 태생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디시인사이드에서 출발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反진보의 성향을 갖게 되었다."(같은 글:64)

며, 그의 분석은 일베를 '악마화' 또는 '타자화'시키는 논의를 재 반복하는데 불과하다.

한윤형은 일베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진보 대 보수의 담론투쟁 구조에 따른다고 분석한다. 그는 박권일[16]을 인용하며 일베가 기존의 올드라이트나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뉴라이트와도 다른 '네오라이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방이후의 정치공간에서 일어난 좌우 갈등과 전쟁, 학살 기억에 의존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성격을 가진 것이 올드라이트 '현상'이라면 뉴라이트는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시위의 거대한 물결과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보수의 위기감"(한윤형, 2013:21)에 나타난 의식적인 보수 이념 '운동'이다. 하지만 네오라이트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것에서 오는 반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베는 이러한 현상 안에 포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베의 '네오라이트'적 성격이 일베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나 담론전략은 80년대 민주화 국면에서 대항담론을 조직한 진보와 많이 닮았는데, 한윤형은 그것을 크게 '피해자 중심주의'와 '엘리트주의'로 나누었다. 전자의 경우 일베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여성이나 호남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의식으로 표현된다.[17]

그런데 한윤형이 보기에 이런 모습은 과거 운동권이 반공주의와 독재에 대항하여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내며 '휴머니즘'적으로 대응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후자의 경우 "운동권이 사회기득권의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그들 소수만이 유일하게 독립적이었다고 여겼다면, 그들은 호남과 민주화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들만 깨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같은 글:29) 때문에 이

16) <시사in>, 2012년 11월 15일, "네오라이트의 탄생"
17) 이러한 경향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일베 이용자들을 '프로파일링'하며 '피해의식'에 빠져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그의 블로그(http://blog.daum.net/drpyo/684)를 참고할 것.

들은 언론이나 학계가 '좌파'와 '전라도'에 의해 장악되어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팩트'를 공유하며 '진리의 빛'을 독점하고 있다는 엘리트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베의 모습은 사회 일각, 특히 진보를 자임하는 이들이 일베를 '루저'나 '파시스트' 로 몰며 '악마화'하는 시각은 기실 일베의 존재가 "진보담론의 자기최면을 방해"(같은 글: 30)하는데서 오는 신경질이며,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진보담론의 위기와 실패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18].

한편 윤보라는 일베의 다양한 혐오대상 중 여성혐오에 집중하여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19]는 말로 요약한다. 그는 일베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혐오발화가 여성을 기점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을 핀다. 다시 말해 "일베와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있는 이는 바로 여성"(윤보라, 같은 글:34)이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우리는 일베를 '너무 늦게'발견된, 혹은 '돌출'된 집단이 아니다. 온라인 혐오, 특히 여성혐오는 한국에 정보화 혁명이 일어난 이래 좌우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있어왔던 현상이며, 일베에서의 여성혐오는 기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혐오 역사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이다[20].

윤보라의 탁월함은 일베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적 실천의 기초가 여성혐오에서 비롯된다는 전유에서 드러난다. 그는 여성부에서 페미니스트로, 다시 한국 여성 일반으로 넘어가는 여성혐오의 순환구조가 있다고 분석하고 '김치년'으로 대표되는 일

---

18) 이러한 태도는 앞서 인용한 조용신의 글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써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그의 정치적 삶을 거론하며 논문의 '순수성'을 논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나, 선험적 이론에 현실을 끼워 맞추고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는 한윤형이 비판한 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19) 이 표현은 일베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말을 윤보라가 그의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후 이 말은 2014년 5월 3일 방영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일베편에서 타이틀로 사용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20) 실제로 네이버-다음 댓글을 분석해보면 여성에 관한 한 양 진영을 대표한다는 각 포털 댓글은 '대동단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을 참고하라.

베적 여성혐오의 사이버 문화적 계보를 추적한다.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여성부와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와 분노이다. 1999년 군가산점 논쟁 이후 고착화된 성대결 프레임은 양자를 군대 가서 고생하는 남성에 대한 '약탈자'이며 앞뒤가 꽉 막힌 '꼴통'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또한 '일부'된장녀에서 '일반'김치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2005년 '개똥녀'사건의 여파는 매우 크다. 윤보라의 말처럼 "사회적 통제에 대한 젊은 여성의 (최초의) 거부"(같은 글:45)인 개똥녀 사건은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OO녀'라는 젠더 호명 정치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젠더 정치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속물적인 '일부' 된장녀이다. 소비문화와 칙릿문화를 받아들인 이들 '젊은' 여성인 남성의 욕망에 포섭되지 않는다. 이는 남성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친밀성의 기획을 좌절시킨다는 분노는 이후 '일반'으로서의 김치녀를 예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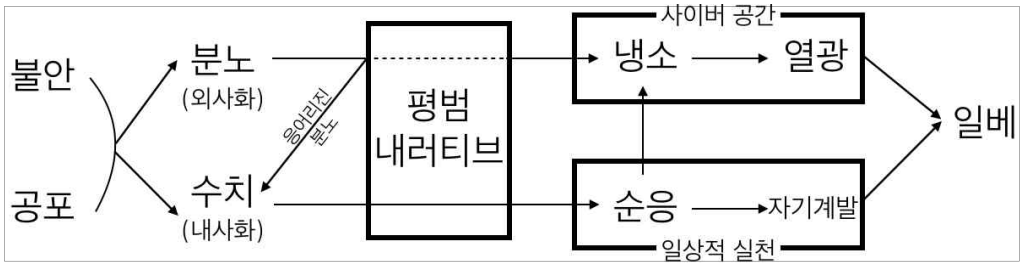
이윽고 여성은 일베라는 공간에서 진보와 등치된다. "'잃어버린 10년'간 자신들에게서 무언가 약탈해간 자는 여성이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것이 바로 좌파정권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좌파가 득세할수록 자신들은 점점 더 여성들에게 무언가 빼앗길 것이다. 한국의 모든 여성을 '김치년'으로 만든 프로세서에 '진보좌파'를 입력하면 이제 아무에게나 '종북'딱지를 붙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같은 글:54)

2.이론적 틀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우선 모든 논의는 현대인들의 불안과 공포에서 시작한다. 바우만이나 세넷이 지적하듯 신자유주의의 유동성은 사회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다.(바우만,

2007; 세넷, 2013) 공포와 불안은 사회를 향해 외사되거나 자아의 안으로 내사되는데(Kemper, 1978; 정수남, 2010), 전자의 경우는 종종 인정투쟁 등 실질적인 저항을 위한 감정적 자원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공포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순응하거나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감정 표출에 머무르는 “비행위”(정수남, 같은 글:56)로 향하게 된다.



<그림 1> 이론적 틀

리즈먼은 이러한 성격을 가진 이들을 ‘타자지향’적 인간이라는 말로 개념화한다. 그는 현대의 풍요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낭비할 수 있는 경제적 기화와 낭비를 허락하는 성격구조, 그리고 높아진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으로 인해 과거의 전통 지향적 성격이나 내부지향적 성격과는 다른 현대적 성격유형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타자지향적 주체들은 “그들의 동시대인이 개인에게 있어서의 지향의 원천”이 되고, 친구관계와 매스미디어라는 원천을 하나의 생활 지침으로 삼고 의존하는데(리즈먼, 2004:103), 이런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의 승인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쉽사리 분노나 화를 드러내지 않고 그 감정을 숨긴다. 즉,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만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친절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러한 성격유형은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는데, 이들의 분노는 응어리지는 한편, 그들의 (특히 저항적) 행위는 어떤 문제적

사안을 '알고 있다'는 데서 멈추는 '내막소식통'수준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냉소로 이어지게 된다.

메스트로비치는 60년대 미국 자본주의의 최절정기에 집필된 리즈먼의 통찰을 뒤르켐의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재 개념화하여 '탈감정주의'로 특정 한다. 그에 따르면 뒤르켐이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말한 성스러운 것은 이미 파탄 났고, 성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한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었던 (공적인 도덕 감정인) 분노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켜야 할 성스러운 가치가 사라진 곳에서 분노를 대체하는 감정은 냉소일 뿐이며, 감정은 타자 지향적 성격유형의 확산으로 인해 감정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진정성은 탈각되어 타자의 기대에 맞춰 기계적으로 대량생산되는 탈감정의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메스트로비치, 2014). 하지만 기실 감정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문화적으로 축적된 행위의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메스트로비치의 지적은 과도하다.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뒤르켐이 장례식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스미스가『도덕감정론』에서 설파하듯이, 감정은 상황에 따라 자주 타인의 시선에 따라 조작되어왔다. 다시 말해 현대의 문제는 감정의 조작 자체라기보다는 감정작업(혹쉴드, 2009)을 현대인들이 대단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분열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있다.

한편 모든 사람들이 불안증이나 공포증 수준의 병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최근 뇌-인지 과학의 발달과 DSM으로 표상되는 현대 정신의학의 성과를 보고 있자면 그에 관련된 전문적 훈련을 받지 못한 사회학자가 불안과 공포와 같은 '증상'을 논의의 중요한 준거로 삼는 것이 더더욱 난처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베'를 연구하면서 이들이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기존의 악의에 찬 분석, 즉 일베 이용자들을 '루저'로 보는 입장과 차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불안의 뇌와 관련된 요소들은 사회적 이해 속에서만 분명해지고, 그 이해는 개인이 생리적인 감각을 정의하고 표현하고 반응하는 방식

을 형성한다."(호위츠, 2013;19) 앞선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 감정은 오롯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종속되기만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문화적-관계적으로 구성되고 조작된다. DSM이 신경증을 '명명'하기 시작하자 그에 관련된 '병자'들이 나타나 '질병 예비군'을 창출해온 의료화medicalization과정이 보여주듯이(쇼터, 2009; 박혜경, 2012), 인간의 마음과 질병 역시 유전적-생물학적 요인 뿐 아니라 환경, 그 중에서도 담론적 환경과 사회적, 경제적 맥락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일루즈의 말을 빌려 한 마디로 표현하면 '감정장'의 변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감정장이란 정신건강과 감정건강이 일차산품으로 유통되는 영역, "다시 말해 감정장이란 사회생활의 한 영역, 곧 국가, 학계, 각종 문화산업, 국가와 대학이 인가한 전문가 집단, 대규모 의약 및 대중문화 시장 등이 이리저리 교차함으로써 창출되는 모종의 작용-담론영역을 가리키며, 그 나름의 규칙과 대상과 경계를 갖고 있다."(일루즈, 2010:125) 감정장에서는 감정생활이 관리와 조절이 필요하며 건강의 이상에 따라서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된다. 일루즈 특유의 감정장 개념은 명백히 부르디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부르디외에게서 장을 형성하는 힘이 아비투스 곧 '작인들의 내면으로부터 작동되는 구조화 메커니즘'이듯이, 감정장 역시 감정지능-혹은 감정아비투스에 의해 추동된다. 즉, 감정장이 변화함에 따라 잠재적 질병 예비군은 물론 그 시대와 사회를 특정 하는 감정의 내용도 변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감정장의 형성은 타자 지향적 성격유형의 인간들이 삶의 모토로 삼는 중간계급의 감정 아비투스를 지향하게 한다. 이러한 감정아비투스는 구성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리즈먼의 타자 지향적 성격유형들의 '친절함'을 가장하고 각자의 고통 내러티브를 승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 결과, 메스트로비치가 지적하듯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피로감과 피해자되기victimhood에 대한 냉소가 사회 저변에 퍼지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고프

먼이 말하는 '무대 뒤편'을 갈구하게 되며,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정보화 혁명이 중첩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 인터넷은, 백인 중산층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공론장이라기보다는 감성공론장(김예란, 2010)이며, 나아가 탈감정적 상호소통만이 존재하는 '무대'의 '뒤편'으로서 기능한다. 이제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인위적'인 '공동체'를 만들거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성스러운 것'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례에 매달리게 된다. 특히 네티즌들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 결과인 파편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의례를 개발해내는데, 감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 끼리의 의례는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현실에서의 동원이 거의 불가능해진 만큼이나 강력한 열광과 몰입,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한편 정수남에 따르면 이러한 불안-공포의 행위유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수가 행위자들의 시간적 지향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의 감정이 미래지향적인지, 과거지향적인지에 따라 저항과 순응, 그리고 비행위와 같은 행위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특히 청년층 인터뷰이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원인을 미래의 전망이 불안정하다는 것에서 찾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들은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하며 과거 지향적으로 퇴행하는 대신 자신이 느끼는 공포의 근본적인 원인을 스스로의 무력함에 돌리고 스스로를 계발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순응을 행위전략으로 택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의 불안이 전적으로 사회경제적인 것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타자 지향적 성격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전제했을 때 이들의 (특히 미래지향적인) 분노는 응어리졌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베 특유의 '적'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는 '비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나 여성문제, 지역감정 등에 있어 어떠한 미래지향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이 표출하는 것은 분노라기보다

는 화이다. 분노에 대한 뒤르켐의 작업을 상기해본다면, 일베 이용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성스러운 것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의 감정적 자화상이라 할 만 하다.

이 과정에서 개입되는 것이 평범 내러티브이다. 미국의 감정장이 자신이 겪은 삶의 과정을 고통을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상당부분 테라피 문화, 심리상담, 힐링담론 등의 확산이 이루어진 한국사회 역시 고통 내러티브는 한국의 감정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겪은 특수함, 다시 말해 절박한 생존에의 요구와 팽배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고통을 '특수'보다는 '보편'으로 환원시킨다. 즉 이때의 고통은 '누구나'겪는 것이기에 결국은 '평범'한 것이 된다. 이를 본고에서는 '평범 내러티브'라고 개념화한다. 고통 내러티브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정 및 승인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때, 변형된 고통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평범함의 내러티브는 반대로 타인의 인정투쟁을 부인하는 것으로 발현된다. 이는 일베에서의 혐오와 무시, 나아가 타인에 대한 공감이 '결여'된 듯한 일베 이용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불안과 공포를 매개로 한 행위양식인 순응과 비행위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맥락에 닿게 되면 공적인 곳에서 축출당한 혐오의 감정이 냉소와 함께 버무려져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열광은 뒤르켐이 『사회분업론』과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열광이다. 뒤르켐이 보기에 집합열광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사실이 성스러운 것, 다시 말해 사회를 복원하고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줌으로써 감정적 에너지(콜린스, 2009)를 재충전하게 한다. 열광에 수반되는 의례들, 특히 적극적 의례(positive rite)는 성스러운 것과 그 숭배자들이 직접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성스러움을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집합의식, 나아가 연대의식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다. 그러므로 가장 폭력적인 분노와 비통함도 사실상 훼손된 사회를 복원하려는 도덕적 목적에서 비롯된 열광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오늘날의 열광은 열광의 대상, 다시 말해 성스러운 것이 대단히 파편화된 탈근대사회로, 종교라기보다는 주술(magic)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질적인 열광이다. 이 열광의 핵심에 자리한 감정은 분노가 아닌 냉소이며, 혐오의 원천인 과거지향은 존재하나 회복하려는 성스러운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열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연대를 만들어내지 않는 열광'을 '차가운 열광'이라고 개념화한다. 이 차가운 열광은 타자에게 향하는 냉혹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열광은 '희생자'인 타자에게는 물론 동료이며 '가해자'인 '우리'에게조차 냉담한 열광이고, 일베라는 공간 자체는 공적이되 그 구성원들은 사적인 공간에, 즉 컴퓨터와 스마트폰 앞에 머물러있기에 가능한 열광이다. 일베와 피해자들 간의 감정적 거리가 먼 만큼이나, 같은 일베 이용자들 역시 멀리 떨어져 서로의 '모인다는 사실'(뒤르켐, 1992)이 만들어내는 전류를 한데 모을 수 없고, 잠시나마 튄 전류조차 오랜 기간 지속되지 못한다. 따라서 일베는 '공적인 감정'인 분노를 표출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모든 성스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기에 본질적으로 파편화되어있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III.일베와 한국 사이버 공간의 문화적 맥락

1.일베와 사이버 공간의 양극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이버 공간이 2008년 촛불집회를 전후로 하여 커다란 균열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많아졌다. 이러한 인식은 일베에서도 자주 통용되고 있지만, 아직 인식만이 있을 뿐 실증적 연구가 없다는 한계를 갖는데, 본고에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댓글의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이버 공간의 분열을 예증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한국 포털사이트를 대표하는 네이버와 다음의 '사회면' 뉴스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20개 씩 280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해보았다.[21)]

2007년 까지는 네이버와 다음을 막론하고 '진보'적인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두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을 비난했으며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하지만 비록 진보계열 의견이 우세를 보였다 하나 네이버와 다음 공히 보수적 네티즌들이 있었기에 여러 기사에서 네티즌들간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중 일부 이용자들은 2014년 현재의 시점이라면 누구나 '일베적'이라 할 만 한 생각의 편린을 보이기도 한다.

21)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트리움(www.treum.com)에서 제공했다.

♣유족분들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전 다른의견이 있는데요 병원이 잘했다는것도 아닙니다 .... 저도 처음엔 정말 화가나고 해서 댓글도 적었는데요 오늘 동영상보니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저병원 작은 규모도 아닌데 환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엄현히 한국엔 헌법이란게 존재하는데 배운사람답게 법의 심판을 맡기셔야지 저렇게 싸우고 하는거 보니 좀 보기가 안좋네요.. (중략)[22][23]

2008년 초반까지 네이버와 다음 각각이 제공하는 뉴스의 댓글 내용은 커다란 편차가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성향을 공유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에 상당부분 공감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군대문제와 여성, 독도와 대일문제, 국회의원들의 추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주의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호남과 영남을 막론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편견이 댓글로 드러날 때 많은 네티즌들이 '진짜 빨갱이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당신'이라며 비난하는 경향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비난의 경우 대부분 '여성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태도가 이미 2007년부터 공고화되었다는 점은 특기 할 만 하다. 특히 병역에 관한 논쟁이 벌어질 때면 언제나 '군대가서 희생하는 남성'대 '군대도 가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여성'이라는 프레임이 강고하게 작동되어 성대결을 촉발시켰다. 이는 배은경이 기성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여론이 IMF이후 가시화된 한국사회의 좌절이나 분노의 에너지를 남녀간의 대립구도로 전이시켜 여성혐오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배은경, 2000; 윤보라, 같은 글: 42, 재인용) 이를 바꿔 말하면 진보를 자임하던 네티즌들도 젠더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면모를

22) <SBS>, 2007년 4월 4일, "수술중 숨진 여중생 시신 놓고 유족-병원 충돌"
23) 이 댓글은 최근 일베에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희생자 유족들을 향해 '유족충'이라는 비난을 했던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 유족을 비난한 일베 이용자중 한 명은 50대 자영업자로 밝혀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희생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 사례를 131건 적발하고 삭제 시정조치를 내렸다.(2014년 5월 16일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비단 젠더문제 뿐 아니라 통상 '사회면'에 실리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에 대한 태도와도 다르지 않다. 일례로 수치상으로는 2007년 가장 많은 이슈가 된 두발규제 문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두발규제는 물론이거니와 야간자율학습, 교복착용, 교사의 권위에 대한 강한 긍정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의 댓글은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 전원 다 반삭시켜야되 인권? 개같은 소리하고있네 늬들이 뭐가 잘났다고 인권찾냐? 공부해야할 학생이 머리짤렸다고 인권이나 운운하고 정말 하찮다, 증말! 인권의식이 그렇게 높은 녀석들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피우고, 교실복도에서 가래침 퇙 뱉고 다니냐? 외국에서 머리자유화하면 늬들도 따라해야한다는 보장 있냐??
> 평소에는 다른나라 욕잘하는 넘들이, 왜 이럴때면 외국제도 찾아??
> 늬들이 머리자유화시킬정도로 그렇게 윤리의식이 높아?? 머리때메 정말로 공부장애 안받을 수 있다고생각해? 수업중에 수시로 머리만지고, 딴청피우는거 내가 수도없이 봐 왔다... 아직도 대한민국 중고딩들은 멀었어, 정말 한참 멀었어... 지들 필요한거만 개선되길 바랬지, 어디 타인을 위해서 고쳐야할점을 생각해본적은 있었나!?
> (중략)[24]

이러한 양대 포털사이트 뉴스댓글의 '동질성'이 가시적으로 분화된 것은 2008년 6월 중순, 다시 말해 촛불집회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직후부터였다. 촛불집회는 그동안 디씨인사이드 정치사회 갤러리 등에 소규모로 혹은 파편적으로만 존재해오던 사이버 보수세력이 결집하게 된 계기이다. 앞서 인용한 최태섭이 적절하게 지적했듯 '노노데모' 등의 보수성향 인터넷카페가 생긴 것 역시 촛불집회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 분화는 네이버 뉴스댓글의 급격한 보수화로 표현된다. 반대로 다음은 촛불집회, 나아가 2009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아고라'에서에서 볼 수 있듯 진보성향 댓글이 지배하게 됐다. 이러한 분화, 혹은 균열은 같은 해 일어난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거치며 명백해졌고, 결정적으로 2010년의 천안함-연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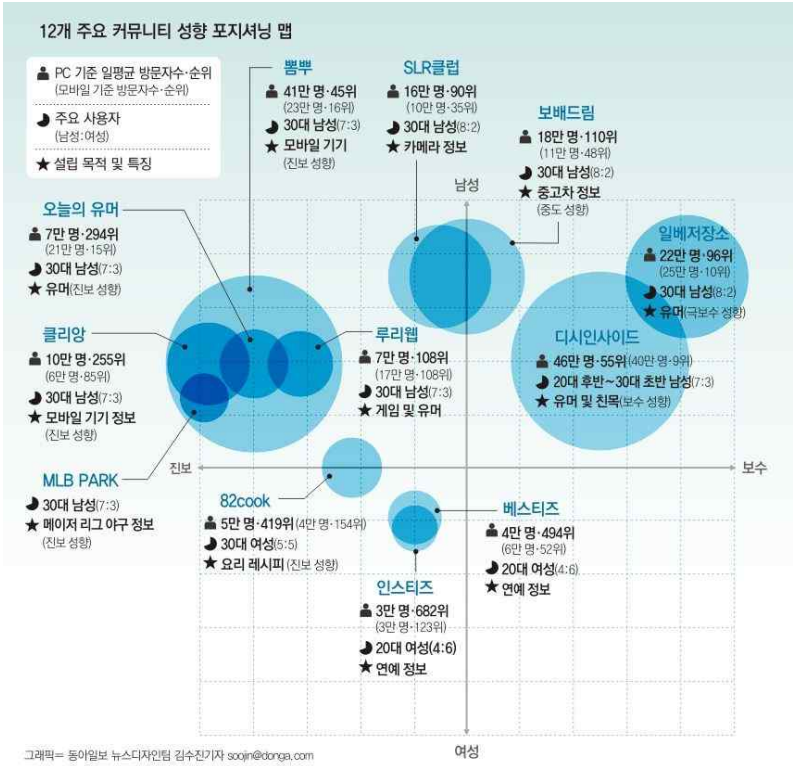
24)http://comment.news.naver.com/comment/all.nhn?serviceId=news&gno=news032 ,0000215533&sort=replycount&nsc=news.reply&page=4

도 사태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인터넷 댓글 공론장의 분화와 북한의 연계는 대단히 흥미로운데, 이미 2007년부터 김대중·노무현 정권시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다. 2006년부터 2013년 까지 네이버 뉴스에서 제공하는 '북한'세션 관련 기사 중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해보면 북한의 도발이나 지원 요청과 같은 북한의 '떼쓰기'에는 혐오나 분노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변화는 2009년 부터는 북한에 대한 비난보다도 '종북'에 화살을 돌리는 반응이 많아진다는 사실인데, 외부에 현존하는 실체적 '주적'보다도 내부의 모호한 적에 대한 격렬한 분노가 자주 보인다. 김종엽은 모든 것에 '종북'딱지를 붙이는 것이 기실 분단체제의 동요에서 오는 인지적 불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87년 체제 이후 가속화된 정치적 분화를 분단체제의 틀 안에 묶어두기 위해 반북 대 친북이라는 구별 도식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 타자를 '빨갱이' 혹은 '간첩'으로 정의하고 숙청하는 것이 사회적 신빙성을 상실할 때, 북한에 대한 태도 표명을 강요하는 형태로 분단체제 고유의 적대의 정치"(김종엽, 2013:473)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보다 '종북'에 대한 증오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화 방식의 변화는 여성혐오가 많은 부분 여성의 '된장'스러움이, 혹은 북한의 '뻔뻔함'이 가시적인데 비해, 종북 논란은 양자택일을 통해 비가시적인 적으로 상정된 이들을 가시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종북논쟁은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며, 야당의 지역적 지지기반이 호남이라는 점에서 지역주의로 변주된다. 사이버공간의 분열 국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한때 사장된 것으로 보였던 지역주의의 부활이다. 앞서도 서술했듯이 뉴스댓글란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은 비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지역비하, 특히 호남을 '홍어'로 지칭하는 댓글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호남에 대한 대대적인 비하와 조롱은 정치면, 사회면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나타

났고, 심지어 여성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군 가산점 문제까지도 전라도 때문이라는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그림 2> 12개 주요 커뮤니티의 포지셔닝 맵
출처: <동아일보>, 2013년 5월 10일, “왜 국정원은 오유에 댓글을 올렸을까”

이처럼 한국 사이버공간은 결코 동질적이지 않고 무수히 분화되어있기 때문에 ‘네티즌’이라는 ‘일반대명사’는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서술했듯 2008년 촛불집회가 만들어낸 ‘의도치 않은 결과’로서의 사이버 공간의 대 분열로 인해, 이제 사람들은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아고라’를 향하기보다는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에 가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싸이월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베가 사이버 공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언급된 <랭키닷컴> 자료에 의하면 일베의 일일 방문자 숫자는 디시와 네이트 판에 이은 3위였기에 그 영향력은 분명 무시할 바가 못되지만[25] 일베의 반대 층위에 '오늘의 유머'나 '루리웹'등의 '진보성향' 커뮤니티 역시 존재한다. 즉 일베는 사이버 공간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없기에 그들을 객관적으로 위치지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와 트리움이 공동연구한 결과인 <그림 2>는 'MLB파크' 등을 커뮤니티를 '진보'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한국 사이버공간의 분화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2.디시와 일베

1)디시의 보수화:디시와 일베의 정치적 정체성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와는 달리, 2000년대 초반의 디시는 여느 사이버 커뮤니티와 다르지 않은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치사회 갤러리(이하 정사갤)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제 2의 노사모라고 불릴 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으며, 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성향이 짙었던 갤러리였다. 하지만 2004년, 이러한 경향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진보를 표방하던 정사갤 이용자들이 당시 공적으로 여기던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과 오프라인에서의 토론 대결을 펼친 것인데, 자신만만하던 정사갤러들은 전 의원의 능란한 답변과 사실에 근거한 반론에 제대로 된 반격도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완패를 당하고 만 것이다.

25) <매경이코노미>, 2013년 8월 24일, "디시, 아고라 대신 일베, 뽐뿌가 대세"

이 사건은 이른바 '여옥대첩'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며, 이는 '키보드워리어'라는 말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언급될 정도로 사이버 공간에서 커다란 파급력을 낳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사갤에서 진보적 목소리는 급격히 수축한 반면 우파들의 세력은 크게 신장되었고, 이는 정사갤의 이후 정체성을 결정지었다. '입진보'들의 무능과 '선동'으로 대표되는 감정적이고 무비판적인 자파 옹호에 대한 환멸, 그리고 그들을 결코 움직일 수 없는 '팩트'로 침묵시켰다는 쾌감이 정사갤을 보수일변도의 커뮤니티로 환골탈태시킨 것이다.

하지만 정사갤의 의미를 단순히 우파 네티즌들이 집결한 최초의 장소로 한정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오늘날 일베로 대표되는 사이버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와 행위지침을 마련한 이데올로그 였던 것이다. 예컨대 2008년의 촛불집회는 '촛불 변질론'과 '촛불 피로증', 그리고 무엇보다 '광우뻥'이라는 말이 표상하듯 허위 사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좌파에 대한 혐오를 강화시키는데 정사갤에서 만들어낸 어휘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디시 특유의 전쟁의례에 적극적으로 동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갤러리를 공격하여 초토화시킬 정도의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와우 갤러리(이하 와갤)와 야구 갤러리(이하 야갤) 등의 역대 거대 갤러리들 역시 보수적 목소리가 헤게모니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디시 이용자들은 정사갤을 소수의 '수꼴'(수구꼴통)로 취급하며 그들의 과격한 주장과 표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을 '정사충'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디시의 보수화는 멈출 수 없는 경향으로 자리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사갤에서 시작된 디시의 보수화는 근본적으로 디시의 '일간 베스트'게시물을 '저장'하던 일베의 정치적 성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2)드립의 활성화:일베적 의례의 전거

일베를 문제시하는 다양한 시선 중 하나는 고인에 대한 과도한 모독이다. 예컨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앞에서 오열하는 모친의 사진에 '우리 아들 택배왔다'는 글을 적은 '홍어택배' 사건[26]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에 코알라를 합성한 '노알라'가 대표적이다. 이후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이러한 '고인드립'은 비단 일베에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근원은 디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디시의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이하 코갤)에서는 2008년 가수 터틀맨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사인과 예명을 연관지어 고인드립의 시초를 열었고, 배우 최진실씨가 자살하자 코갤에서는 누구보다 '창의적'인 고인드립을 만들어내려는 경주가 이루어졌다. 고인드립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곧 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후 유족들의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고인드립은 특히 코갤과 야갤을 중심으로 전염적으로 퍼졌다.

드립의 역사에서 야갤은 대단히 특수한 위치를 점유한다고 할 수 있다. 코갤이 고인드립의 시작을 알렸다면 야갤은 고인드립과 함께 패드립과 지역드립 등, 현재 일베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언어표현들을 총체적으로 구현했다. 야갤에서 유래한 드립용법의 특수성은 코갤의 고인드립이 비교적 '웃긴다'라는 목적의식에 한정된 것에 반해, 야갤은 자신의 발화한 드립이 조준하는 타자(혹은 적)가 분명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야갤이 근본적으로 8개구단(2014년 현재 9개 구단)팬들로 나누어져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의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구기종목에 관련된 갤러리이기 때문에 피아가 분명하다는데서 연유하는 특징이다.

---

26) 문제의 게시물을 작성한 일베 이용자는 그가 게시물을 작성하며 함께 업로드한 사진에 등장한 희생자 유가족에 의하여 고발당해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이용자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이다.

야갤의 고인드립은 자주 특정 지역(그리고 팀)을 겨냥한 지역드립과 연관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훼손의 대상이 된 지역이 호남이다. 2008년 3월 내연녀와 그 자제를 살해하고 자살한 전 해태타이거즈 야구선수 이호성을 희화화하는 '호성드립'을 필두로, 2009년 KIA타이거즈의 우승 이후 타이거즈 팬들에 대한 반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과 맞물려 '홍어드립'으로 수렴했다. 하지만 이러한 드립의 대상이 된 것이 호남만은 아니어서, 경기 중 심장부정맥으로 수년간 식물인간으로 지내다 끝내 2010년 사망한 전 롯데자이언츠 포수 임수혁 선수를 두고 '야채'라고 표현한다거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인간)통구이에 빗댄 '통구이드립'이 '흥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을 비하하는 드립으로 정착했다.

따라서 현재 일베에서 보듯이 드립에 있어서 적대적 타자를 전제하는 방식은 상당부분 야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드립의 경우는 애초부터 특정 지역을 (특히 전통적인 지역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비하하려는 의도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자극 자체에 더 방점이 찍힌 행위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일베에서의 드립이 실제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는 별개로 이러한 패륜적이며 반인륜적인 언술을 보며 인상을 찡그리기보다는 웃음을 터뜨리는 일베 이용자들을 이해할 만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드립이 특히 호남을 타겟으로 한 범야권에 대한 비하로 까지 전회한 것은 정사갤의 개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일베에서 극을 이루었지만, 이는 인터넷 문화의 자율성이 조우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3)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박

패드립과 지역드립이 일반화되자 디시인사이드 측에서는 그동안 있어왔던 관리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예고없이 삭제했다. 특히 가

장 많은 인기를 얻은 게시물, 즉 일간베스트 게시물은 적절치 못한 내용을 담은 경우가 많았다. 디시측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갤러들은 자신이 (잉여롭게)만들어낸 '작품'이자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게시물이 삭제되는 사태에 분노하는 한편, '주옥같은'게시물들이 삭제되기 전에 저장해 놓을 만 한 대피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일베의 직접적인 기원이다. 2007년 무렵 'ilbegarage'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최초의 일베는 트래픽 과부하나 운영자 입대로 인한 사이트 폐쇄 등의 부침을 겪은 뒤 2011년 현재의 모습으로 리뉴얼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베의 탄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디시 갤러리 관리자의 게시물 삭제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관리자에 의한 탄압경험은 일베이용자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한 한편, 이용자들의 과도한 언어표현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을 사이트 운영자까지도 '일베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즉, 민주화시키지 않는다)고 공언하며 게시물들에 대한 거의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는 전통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집착은 상술한 각종 드립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며 더욱 극단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일베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비난하는 핵심논리가 되었다.

4)커뮤니티의 흥망성쇠와 '민주주의적 혼돈'

디시의 마지막 유산은 일베에서 '친목밴'으로 요약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용자 간 온-오프라인 친교를 금지하는 관습이다. 이길호는 그의 저서에서 친목행위에 대한 디시 이용자들의 오랜 혐오를 자세히 기술했다(이길호, 2010). 그는 유저들간의 친목 도모를 금지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적 혼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옳게 지적한다. 한국 사이버문화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악플러 '씨벌교황'의 등장과 그의 가공할 만 한 욕설의 향연은 디시를 '흙탕물'로 만든데 대한 분노를 일으켰다.

하지만 디시의 역사는 '씨벌교황'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할 만큼 디시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허세에 대한 경멸과 평등주의의 정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씨벌교황'을 제외하고도 많은 '찌질이'들이 있었지만 그의 독보성은 디시에서 일베로 면면히 이어지는 특수성[27]의 전초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외부의 논리, 즉 계급관계나 성별 등의 수직적 사회관계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낳았다. 즉 자신이 여성이든 자본가 계급이든 학생이든 간에 디시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병신'이기 때문에 온라인 '밖'에 실존하는 자신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허세라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후자를 이끄는 논리가 된다. 커뮤니티 안에서 권력이나 지위를 획득하려면 해당 커뮤니티 안에서의 기여도와 지지에 의한 것이어야지 외적 조건을 끌어들이면 안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디시에 명멸했던 수많은 '본진'과 일베에서 나타나는 지독한 욕설의 기원은 형식적 차원에서 '씨벌교황'이 하나의 전범이 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욕설은 타인에게 향하는 만큼 일상적 언어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디시나 일베 이용자들의 '상스러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욕설이 섞인 투박한 그들의 말이('병신'이면 '병신'같을수록) 허세가 아닌 진심임을 증명하는 언어적 표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커뮤니티 외부적 조건에 근거한 허세를 반대하는 관습은 평등주의를 확산시켰고, 이 평등주의는 흔히 '루저문화'나 '잉여' 등으로 번역되어 서로가 서로를 까내리는 '병림픽'[28]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 일상적 욕설이 '씨벌교황'으

---

27) 분명 디시와 일베에서 나타나는 언어표현 양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심지어 디시 내부에서도 갤러리마다 언어표현은 상이하다는 점에서 디시문화, 혹은 잉여문화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증거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시문화의 영향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고 착종되었고, 이것은 대단히 자의적이며 우발적인 사건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일베의 등장 이후에 (일베를 강하게 의식하며) 나타난 '수컷닷컴'(www.sookut.com)이나 '일간워스트'(www.ilwar.com) 등의 패러디사이트는 결코 디시나 일베같은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로부터 기인한 언어적 의례라면, 평등주의는 그의 '허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디시의 평등주의가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행위를 금기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길호는 2009년 코갤에서 시작된 반 친목운동을 설명하며 디시 이용자 개인의 주체성을 독재적 방식으로 죽이면서까지 평등주의를 유지하는 이유는 커뮤니티의 존속 그 자체를 위한 것임을 지적한다. 즉 갤러 개인은 죽어도 갤러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스갤의 위용을 넘보던 와갤은 이 금언을 지키지 않고 친목질을 용인함으로써 본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우리집'이자 자기정체성의 일부였던 갤러리가 과거의 활기를 잃은 것에 대한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어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게 놔둬선 안된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다. 코갤에서 일어난 이른바 '리얼혁명'등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상정하지 않으며...사람들은 관계 안의 요소로 수렴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적인 것'이란 폐기"(이길호, 같은 책:367)되며 완벽한 평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모든 이용자들이 자신의 닉네임을 '유동닉'인 '리얼'로 바꾸는 것은 오래 가지 못했고, 누구도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다. 때문에 별 의미 없는 '뻘글'만이 난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가 사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코갤러들의 유미주의적인 평등주의는 이어지는 디시, 그리고 일베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제공한다.

---

28) 병림픽이란 '장애인 올림픽'을 비하한 말이나 실제 IOC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올림픽과는 연관이 없다. 디시 및 일베 이용자들은 스스로를 자주 '병신'으로 비하하는데, 말싸움 등이 일어났을 때 '병신'들 끼리 '경쟁'을 한다는 데 착안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이때 병림픽은 자주 '이겨도 병신, 져도 병신'이라는 자조를 이끌어내기도 하는데, 이는 다시 '이왕 병신이라면 이긴 병신이 되자'는 굴절된 승부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닉ㄴㄴ 친목ㄴㄴ

http://www.ilbe.com/15165615 복사하기

자짤ㄴㄴ 특온ㄴㄴ 여성과의 친목또한ㄴㄴ

닉ㄴㄴ : 제목에서 특정 유저를 부르지 마세요

닉ㄴㄴ에 걸리는 적절한 예시 : http://www.ilbe.com/6403163

자짤 : 자신을 나타내거나, 닉네임이 들어간 그림(또는 사진, 게임 캐릭터)

자짤은 내용과 관계없는 짤방을 지속적으로 본문에 삽입하는것을 말합니다.

주로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 사용되므로, 친목방지를 위해 금지합니다.

서로 너무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매일 출근길에 보이는 아저씨정도로 여기시고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네임드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적당적당히 해

과도한 친목질은 커뮤니티를 망치는 주된 요인입니다.

<그림 3> 일베 게시판 공지문

이렇게 “유명닉이 될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고 “진정한 익명의 도래”이며 모두가 “좆병신”(이길호, 같은 글:368, 재인용)인 평등한 세상에서 모든 사회적인 것은 인위적으로 탈각된다. 각자의 학력이나 재산, 젠더 따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동질성의 원리만 남아 각자의 순간적인 기지(奇智)를 발휘하여 인정받는 공간이라는 커뮤니티의 이념형은 디시문화를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디시의 ‘계승자’인 일베 역시 이러한 평등주의를 극단적일 정도로 끌고 나아간다. 일베의 모든 게시판에는 운영자의 이름으로 서로의 닉네임을 부는 것도,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공지글을 첫머리에 게시해놨다. “너무 네임드되려고 노력하지”말고 “적당적당히”하라는 세부의 말은 허세와 특수를 거부하는 디시문화를 한 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하지만 행게이들의 ‘인

증', 특히 이후 언급될 '인증대란'이 보여주듯 일베는 허세에 대한 거부라는 유서있는 전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일베적 언어의 확립

일베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시에서 일베로 넘어오는 역사적 맥락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어휘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앞서 잠시 디시에서 파생된 여러 '드립'들을 살펴보았다. 이때 '드립'이란 '애드리브ad-lib'를 줄인 신조어인데, 애드리브는 원래 정해진 원고나 대본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적 특색에 맞춰 배우가 즉흥적으로 표현하여 극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뜻한다. '드립'은 한국 사이버스페이스의 맥락에서 중요한 유머코드로 변용된다. 애초의 용법은 TV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무하고 얄팍한 '개같은 애드립'을 비난할 때 쓰이던 '개드립'에서 출발했다. 이 신조어의 출처는 디시 코갤인데, 애초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개드립'은 코갤러들 사이에서 상당한 재치 및 풍자를 보여주는 이들에게 보내는 찬사로 바뀌었고, 이러한 용법이 사이버상에서 대중화되어 '드립'이라는 말이 유행어로 정착되었다.[29]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드립'은 일종의 접미사가 되어 유머의 소재에 '드립'을 접합하는 방식으로 신조어들을 쏟아냈다. 그 중 일부가 앞서 살펴본 '지역드립'이며 '패드립'과 같은 용례로 나타난다.

하지만 '드립'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바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드립'은 화자의 발언이 애초에 계획되지 않았음을 전제한다. 만약 화자의 발언이 '드립'으로 규정된다면('드립'이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대화상황의 리듬을 극대화하기 위해 순간

29) 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0%9C%EB%93%9C%EB%A6% BD

적인 기지를 발휘한 재치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화자의 발언에서 책임성을 증발시킨다. 즉 자신이 한 말은 전혀 무게감이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개드립'에 불과했다는 변명이 가능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의 드립, 예컨대 지역드립이 일반화될 경우, 이것은 자주 자신이 '친' 드립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한편 '어그로'란 영어 'aggravation'을 축약한 'aggro'에서 비롯된 말인데, 원래는 온라인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였다. 온라인게임은 각 캐릭터의 능력이 특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 마법 등의 스킬에 따라 분업화된 하나의 파티(party)를 구성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높은 레벨의 몬스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파티원 중 체력 및 방어력 수치가 높은 캐릭터가 몬스터들의 이목을 끌며 공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그로를 끈다'고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의 담화상황에서 '어그로'는 또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주는 부정적 감정에 의한 주의집중상태로 변용된다[30]. 어그로를 자주 끄는 사람을 통칭 '어그로꾼'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자주 격렬한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점차 인정을 받고 흔한 일이 되자, 어그로꾼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변화했다. 어그로를 고의로 끄는 이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전략은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도 하고, 그들이 펼치는 기만과 자극에 넘어가지 않도록(즉, 낚이지 않도록)구성원들을 각성시키기도 한다. 요컨대 어그로꾼들의 목적은 '욕을 많이 먹는 것'에 있고, 많은 모욕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것, 즉 많은 이들이 그가 던진 '떡밥'을 물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던진 떡밥이 건드리는 것은 어그로의 대상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운 것, 혹은 금기이다. 이러한 행태는 일베를 포함한 여러 커뮤니티사이트에서도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들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존댓말 등이 사라지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드립과 어그로의 중요성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는데 있다기보다는 그런 표현들

30) http://rigvedawiki.net/r1/wiki.php/%EC%96%B4%EA%B7%B8%EB%A1%9C

이 성스러운 것을 부정하고 해체한다는데 있다. 유머와 풍자의 본질이 그러하듯 드립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일베 이용자들은 성스러운 것을 파괴하는 쾌감을 통해 그들의 감정적 에너지(emotional energy; 콜린스, 같은 책)를 고양시킨다. 가장 패륜적인 드립조차 받아들여지며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베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그 어느 것도 그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런 드립과 어그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통틀어 '씹선비'라고 부른다. 이때 '씹선비'란 유교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인정하며 즐기는 '막장'스러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질타하는 이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이다. 일베 이용자들에게 씹선비는 일베의 분위기를 '알면서도' 어그로를 끌기 위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비난을 받으며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 씹선비들은 커뮤니티의 분위기와 지배적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증 환자'들의 집단인 한편, 이 말이 자주 진보세력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무기력하고 한심하며 잘난척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팩트'이다[31]. 일베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팩트는 일베 이용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휘이다. 팩트의 강조는 일베는 확인된 사실에 의거하여 합리적 비판을 한다는 '일부심'의 핵심적 요소이다. 일베 이용자들은 그들의 주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자주 오유와 같은 '좌좀'들이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잘 선동 당한다는 주장과 깊은 연관이 있으면서도(감성팔이), 자신들의 감정적 표현을 강화시키며 지목당한 이를 비난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이때 선동은 어그로꾼들이 허위의 사실을 조작해내어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행위와 자주 비교되며,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일베 이용자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일베

31) 일베에서는 '팩트'를 FACT로 표기한다. '팩트'외에도 '알아보자' 역시 'ARABOJA'와 같이 표기한다. 이때 문자는 자주 대문자로 표시한다. 이러한 의례는 파일 확장자명, 예컨대 '_.jpg'을 글 제목에 달아 글보다는 이미지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용자들이 보기에 이 감성팔이에 잘 선동당하고 낚이는 이들 대부분은 씹선비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난점이 생긴다. 같은 디시라 하더라도 야갤이나 코갤같은 커뮤니티는 각종 드립과 어그로가 난무하는 반면, 여타 소규모 갤러리 및 디시 밖의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은 여전히 서로 간에 존댓말을 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하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 2008년을 전후로 하여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네티즌들이 각각 다른 커뮤니티사이트에 둥지를 틀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공유하는 네티즌들이 이합집산하여 각각의 문화와 전통을 수립해나갔다. 예컨대 우리의 연구주제인 일베의 경우 유머사이트의 양대 축 중 보수를 대변하는 경우이며,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오늘의 유머[32]'(이하 오유)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베는 사이버공간의 수많은 전통과 맥락, 의미들이 얽히고 섥히며 만들어진 한 극단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일베는 가장 극단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장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일베의 많은 '강제적' 요소들, 예컨대 '친목금지'와 '자짤'금지, 익명성 보장과 같은 모습들은 '공동체'로서의 일베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침인 만큼이나 일베가 상상하는 사이버공간의 유토피아를 보여준다. 즉, 일베는 PC통신이 꿈꿨던 사이버 공론장을 유머의 형식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이용자들의 개별성을 강화하여 자유롭고 공평하게 오로지 '드립력'으로만 인정받는 절대적 민주성은 일베의 폭력성과 자극성을 심화시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이용자들이 일베의 '게임의 법칙'에 매혹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들이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부여해준 권리를 무기로 민주주

32) http://www.todayhumor.co.kr 일베 이용자들은 자주 오유 이용자들을 '종북'등으로 규정하며 비난한다. 오유에서도 일베에 대한 스티그마는 상당히 강해서, 양자는 서로에 대한 대타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를 비난한다는 역설적 상황에 있으며, 드립과 어그로로 대표되는 일베의 극단적 행태는 웹사이트로서의 일베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보다도 그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처한 시대적·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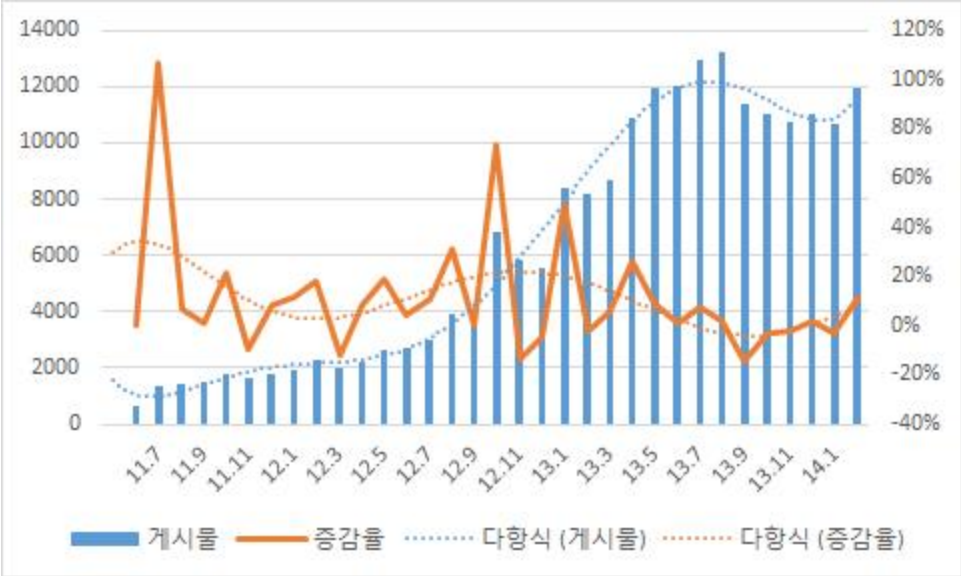
4.일베의 성장과 현황

2011년 5월 28일부터 활동을 재개한 일베는 조금씩 영향력을 확장시켜나갔다. 이제 일베는 디시의 문화적 생산물을 일방적으로 소비하던 과거와는 달리 일베 이용자들만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방에 퍼뜨림으로써 한국 사이버공간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일베의 양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인증대란'이다. 인증대란이란 일베이용자들을 무식하고 덜떨어진 '찌질이·루저'들로 보던 일반 네티즌들의 인식을 뒤집기 위해 자신들도 '승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학벌이나 직업을 '인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몇몇 조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증대란은 500여 명(2012년 10월 23일 오전 9시 기준)에 이르는 일베 이용자들의 '일밍아웃'[33]을 이끌어냈다. 그 중 상당수는 스스로를 SKY로 대표되는 국내 유수대학 및 의치학 계열의 학생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삽시간에 많은 수의 '일베로'를 얻으며 일베 이용자들의 열광적 호응을 얻어냈다. 위 그래프에서도 드러나듯, 인증대란은 일베 이용자들이 지지하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보다 많은 일베 게시물을 생산해냈다. 게시물의 증가율 역시 일베 설립 초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일베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동력은 '우파'적 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인정투쟁(호네트, 2012)에 가깝다고도 할 수

33) 일밍아웃이란 자신이 일베를 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밍'은 접미사로 사용되어 '일밍'이나 '보밍(보X+커밍아웃)'과 같은 방식으로 변주된다.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상이 승리했을 때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월별 변동 및 증감율 추이

인증대란이후 일베는 한국의 사이버공간은 물론 언론과 정치계에서도 주목하는 문제의 사이트가 되었다. 특히 대선정국과 관련하여 일베는 논란의 핵심에 위치했고 야당에서는 일베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급기야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을 직접 겨냥하며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일베는 대선 과정에서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이 집결한 '보수의 메카' 혹은 '21세기 서북청년단'[34]이 되어 그들의 말과 생각을 사방에 퍼나르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34) <시사in>, 2013년 5월 21일, "'일베'를 생각한다"

IV. 일베 게시물 분석: 열광의 구조

1.양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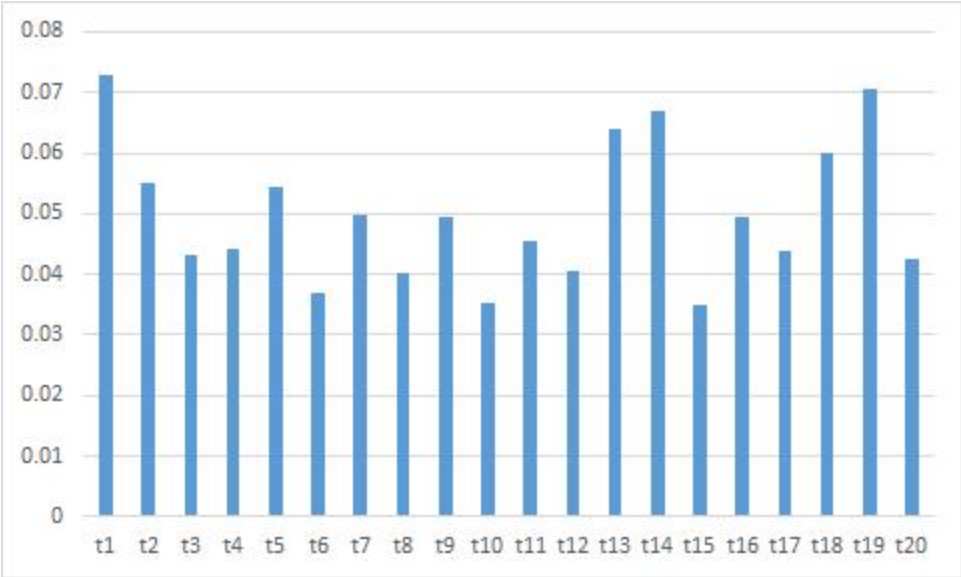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해 2011년 6월 1일 0시부터 2014년 2월 28일 24시 까지 일베(334,531개) 및 정치일베(102,116개)에 오른 모든 게시물을 수집한 후 확률적 토픽 모델링(probabilistic topic modeling) 기법 중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로 분석했다.[35] 본고에서는 일베만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분석툴을 제작해 분석에 반영하였다. 분석방법의 특성상 지정된 텍스트에서 함께 사용된 단어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LDA는 일베의 개념적 지도를 그리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양적분석은 정치일베와 일반일베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 분석

<부록 표 1>는 정치일베에 오른 게시물을 LDA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때 토픽의 개수는 연구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를 위해 각각 10개에서 30개 사이의 토픽을 설정했을 때 20개가 일베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판단되었다. <부록 표 1>에서 나타나는 토픽번호는 무작위이며, 평균 LDA스코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고 상위 5개의 토픽은 볼드처리 했다. 또한 각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함축하는 단어를 주제어로 선정했고, 그 단어 20개를 아래 나열했다. 아래 그래프는 정치 일베의 20개 토픽의 평균 분포를 그린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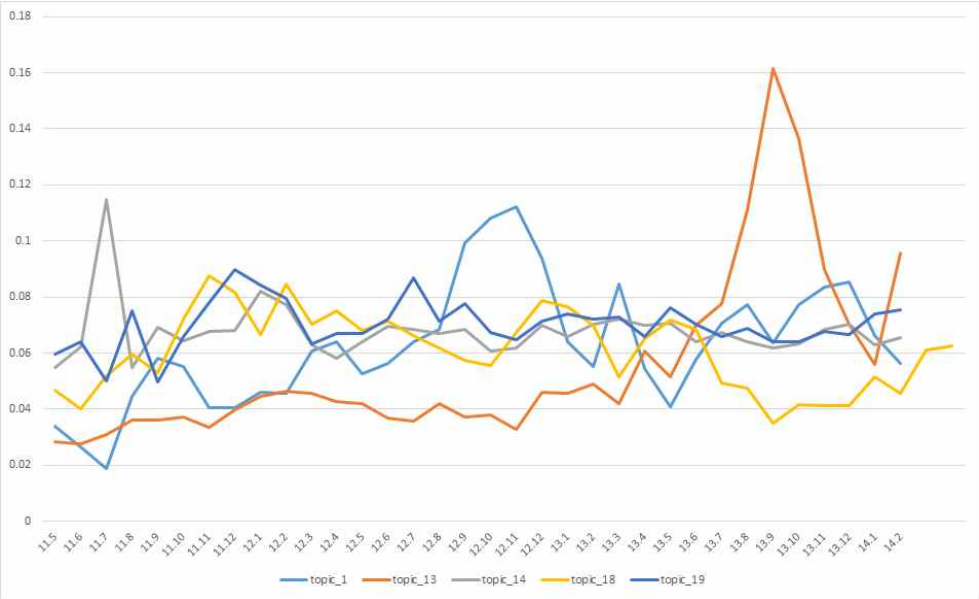
35) 위와 같은 기법은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컴퓨터전파통신공학과 이정현(박사수료)님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그림 5>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토픽분포도

이 중 각각 정당, 의원, 선거 등의 단어를 포함한 '정치'관련 토픽인 토픽 1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약 0.073), 좌파, 자유, 민주주의 등의 단어로 구성된 '이념' 관련 토픽인 토픽 19가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다(약 0.071). 세 번째로 많은 어휘는 욕설 및 비하였고(약 0.067), 이는 토픽 14에 모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동욱', '조사', '직원' 등 국정원과 관련된 토픽(토픽 13, 약 0.064)이 네 번째, '우리', '보수', '팩트' 등의 '일베'의 문화와 관련된 토픽 14가 정치 일베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비율(약 0.06)을 보였다. 다음 <그림 5>는 주요 토픽 5개의 월별 변동경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각각의 표준편차는 0.021752, 0.030535, 0.009813, 0.013897, 0.008432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토픽 13의 변동은 두드러진다. 토픽 13, 즉 국정원 관련 게시물은 2013년 7월부터 급증했는데 이는 채동욱 전 검찰청장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른바 '국정원녀'사건으로 유명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2012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일베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베의 '팩트'가 기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점만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하며 그렇지 않은 뉴스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며 프레임 밖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토픽 1이 2012년 8월부터 급증한 것은 대선기간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는 일베가 당시의 '떡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적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주요 토픽의 월별 변동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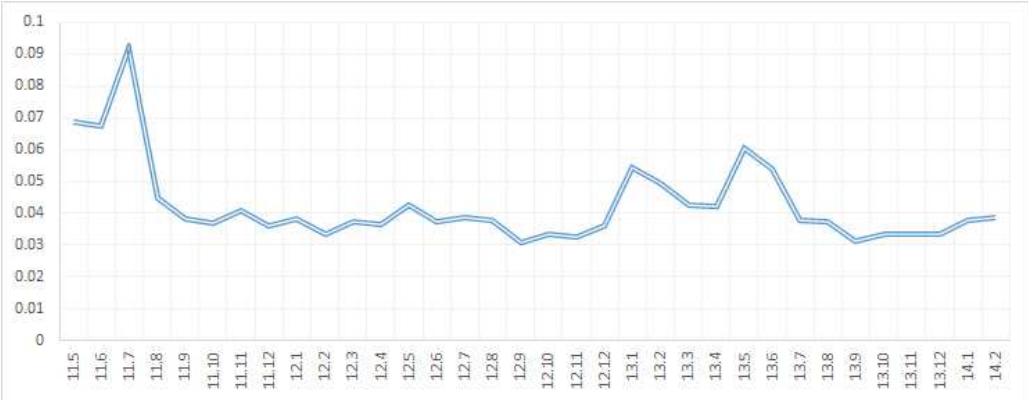
<부록 그림 1>은 단어별 상대적 연관도 지수인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 스코어를 기준으로 그려본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의 시맨틱 분석결과이다.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베 정치게시판은 크게 아홉 개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가장 자주 다루어진 주제는 개통과 준공, 발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개발담론이다. 이는 LDA분석상 토픽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베의 여타 모든 주제들이

개발과 발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주제는 왼쪽 위편에 위치하는데, 5.18을 직접 언급하는 단어보다도 공수부대, 계엄군과 같은 진압주체에 대한 언급과 탈취, 유언비어, 폭도와 같은 가치평가어를 자주 언급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5.18수정주의자들의 담론이 일베에서도 상당부분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때 흥미로운 지점은 좌측 하단에 위치한 '소련', '공산주의', '혁명' 등의 이념 클러스터와 5.18클러스터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는 2013년부터 다시 촉발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이 일정부분 일베에서도 논의가 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5.18과 호남을 좌파와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좌파'를 공격하는 내용이 독자적인 클러스터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베에서의 진보 혐오의 양상이 진보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보다는 '박원순'이나 '안철수', '진중권'과 같은 진보인사들에 대한 직접적 폄훼에 그친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이념 클러스터 내에 교과서논쟁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에서도 언급되겠지만 많은 일베 이용자들은 자신이 보고 배운 교과서가 '좌파정권'의 입맛에 맞게 편집되었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금언을 되새기며 '역사 바로세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부록 그림 1>은 일베에서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개발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5.18과 관련된 토픽8의 평균 토픽 분포는 0.04037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독자적인 토픽으로 독립될 정도로 많이 언급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정치 일베의 특성상 특정 정치이벤트에 따라 일베 내에서 교환되는 메시지 역시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토픽 8의 '평균'보다도 특정 시기에 5.18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 6>는 일베가 설립된 2011년 5월 이후 2014년 2월 까지 5.18을 다루는 토픽인 토픽 8이 전체 문서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토픽 8 역시 상당한 변동폭을 보여주는데, 초반 몇 개월을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3년 1월과 5월의 기울기이다. 이미 2012년 '홍어택배'사건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5.18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것이다. 이때 가장 5.18에 관한 폄훼가 기승을 부리던 2012년 5월의 토픽 8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많은 이용자들이 일베에서의 '드립'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7>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월별 토픽 8 분포

한편 일베에서 5.18이라는 단어 자체는 데이터 상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LDA분석을 위해 사용한 공개된 한국어 자연어 처리 알고리듬이 아직 충분한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베특유의 언어표현양식이 데이터의 노이즈를 증폭시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36]. 실제 PMI 분석을 해보면 5.18이라는 단어와 50번 이상 직접 연

36) 예컨대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폭동절', 날짜에 착안하여 '오십팔',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자체를 5.18을 대신하는 말로 사용한다.

관된 게시물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특정 단어로 검색된 문서 집합의 토픽분포가 보여주듯이 5.18과 '폭동'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나의 문서에서 '폭동'과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pmi지수가 3이 넘는 95개의 단어를 추출하면 <부록 표 2>와 같다. '총기'나 '무기고', '실탄', '기관총'과 같은 단어가 보여주듯이 일베에서의 '광주폭동론'은 시민'군'이 '무기'를 들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전두환이 아닌) '최규하'정권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37], 그의 명령에 따라 발령된 계엄군 역시 정당하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따라서 희생된 광주 시민들에 대한 언급보다 '신군부'와 '군경', '공수부대'와 같은 진압당사자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5.18항쟁담론에서 이들 진압주체들이 언급된 경우는 대부분 폭력담론인데 반해, 일베에서는 '사상자'나 시위대의 '폭력', '탈취', '약탈'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그들의 '진압'행위가 '국가전복'을 '주동'하던 '내란'세력을 평정한 이들이 바로 진압주체라며 추켜세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18과 폭동은 LDA 토픽분포의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부록 그림 2>, <부록 그림 3>). 이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남을 지칭하는 문서집합에서 공통적으로 토픽 14 '욕설'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사이버공간, 특히 일베와 같은 유머사이트의 특성상 플레이밍(flamig, 이항우, 2003; 스미스·콜록, 2001)이 다시 발견될 수 있고, 욕설 자체가 극적인 표현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일베에서 반 호남 지역주의가 팽배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진보좌파에 대한 상은 '종북'이라는 말이 그러하듯 대단히 복잡하고 불분명한 진술의 이 혼재되어있다. 여러 인터뷰나 게시물에서 일베 이용자들은 '종북'과 '좌파'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는 데이터 상으로도 나타난다. 부록의 <부록 그림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종북과 좌파 각 키워드는 사실상 동일한 토픽분포를

37) 단어와의 상대적 연관빈도를 살펴보는 PMI분석에서 '폭동'이 '전두환'보다 '최규하'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보이고 있어서 보수의 젊은 이데올로그를 자임하는 일베에서조차 개념정돈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일베 이용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겠지만, 그들조차도 종북 개념의 모호함은 정치적 판단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종북좌파'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 '종북좌파'라는 단어와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지 PMI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부록 표 3>)

이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종북좌파'는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비호하는 세력으로만 특정지어지기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왕재산'등 '추악'한 종북좌파에 대한 일베의 태도는 '척결'이나 '철폐'등에서 보듯이 매우 단호하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종북좌파는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는 세력이라는 것인데, 그렇게만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합법적으로 집권한 전 정권의 대통령을 '좌파정권'이라 단정하고 그들이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것이나,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의 '적'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정치적 반대편을 싸잡아 '종북좌파'로 낙인찍고 있다고 하는 편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 '통합진보당'을 위시한 '종북좌파'가 '민중'을 '좌편향'으로 '조종'하여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일소하기엔 '종북좌파'에 대한 일베의 공포와 분노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들은 사회 전반에 '종북좌파'가 암약하며 사람들을 점점 '좌편향'시키고 있으며, 이는 시급한 '바로세우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반정부', '반국가'에서 보듯이 현 정권, 혹은 현 체제에 대한 강한 옹호가 나타나는데, 이는 일정부분 일베가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적 성격을 대변해주는 것 같다.

<부록 그림 5>는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노알라' 및 '노짱'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슨상님'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그래프는 노무현이라는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인데도 '노짱'과 '노알라'의 패턴이 다르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자와 후자의 용법이 전혀 다른데서 오는 차이에서 온 결과이다. ‘노알라’의 경우 토픽 18(일베 지칭어)이 높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알라는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게시물을 일컫는 말을 넘어, 마치 과거 디시의 전성기 시절 ‘개죽이’처럼 일베를 상징하는 표상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와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일베의 평가는 상당히 냉혹하다. 앞선 5.18 관련 토픽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토픽 8의 비중이 다른 토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키워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정 부패 관련 토픽(토픽 3) 역시 높았다. 무엇보다 좌파 및 호남에 대한 비아냥을 의미하는 토픽 2의 비중이 특히 높다는 사실은, 특히 토픽 2에서 두 번째로 자주 언급된 단어가 ‘박정희’였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중요한 정적이었던 김대중의 정치사적 위치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 일베 게시판에서 중요한 화두가 개발주의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호남과 좌파를 두루 대표하는 김대중이라는 표상은 조국 근대화를 위해 온갖 ‘발목잡기’와 좌파들의 중상에 고독히 맞서며 역사적 임무를 완수한 박정희의 대타자가 된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지역균열의 중요한 당사자(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이며 ‘실패한’ 대북정책의 입안자라는 점에서 김대중은 일베가 상정하는 적의 중요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베 이용자들에게 김대중은 호남사람의 종주이며 종북좌파의 수괴인 동시에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여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간첩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논의는 욕설이 많을지언정 토픽 5, 다시 말해 북한 관련 토픽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새천년민주당에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르는 야당 전체에 ‘종북’딱지를 붙이면서도 기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낙인을 의도한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북한과 직접 연계되어있다고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LDA

토픽분포 결과는 '종북'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부록 그림 6>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발언 및 'RO'사건 으로 유명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당 이정희 의원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석기 전 의원을 특정짓는 일베 이용자들의 인상은 '북한'과 연계된 적이었다. 이는 국정원 관련 토픽인 토픽 13의 비중이 높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욕설이나 비하의 비중이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인데, 일베에서의 욕설이 상당부분 냉소를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태도는 그를 '진지빨고' 증오하며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38]. <부록 그림 7>이 보여주듯이 토픽 13을 제외하면 이런 패턴은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슷하다.

이처럼 일베에서 사용되는 '종북좌파'개념은 북한 자체에 대한 공포나 증오에서 비롯된다기보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이들에 대한 불안과 분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적대세력에 대한 중구난방식 낙인이다.

2)일반 일간베스트 게시판 분석

일베 게시판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결과는 '저격'과 관련된 토픽 7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0.081). 이러한 결과는 일베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통틀어 가장 많은 열광과 지지를 얻는 글이 누군가를 '사실'에 의거하여 비난하는 카타르시스가 일베라는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위 표에서 제기된 것처럼 '저격'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면면이다. <부록 표 4>에 나타난 단어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베 간 글'자체를 재 저격하는 경우

38) 단, RO사건, 속칭 이석기 사태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한 인터뷰이는 다음처럼 대답하며 '환호'했다고도 말했다. "드디어 걸릴게 나왔구나.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이었죠."(A)

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일베 이용자들이 스스로를 '합리적'이며 '선동'에 휩쓸리는 이들이 아니라는 확신 혹은 자부심의 근거가 된다. 이는 일베의 대타자인 오유 이용자들과 그들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아래 그림은 일베가 바라보는 오유에 대한 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일베가 보기에 오유는 '유머사이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반대되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저격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부록 그림 8>은 오유가 일베의 대타자로서 얼마나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부록 표 5>는 일베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 100개를 정리한 것이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베'와 '(일)게이' 등 자신들을 지칭하는 단어 또는 '새끼' 등 중립적 지칭어를 제외한 지칭어는 '여자'가 13165회로 모든 단어 중 26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만약 '여성'이나 '김치녀'와 같은 단어를 포함한다면 약 2만 2천여 회로 자신들을 지칭하는 '일베', '일게이'등과 더불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지칭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과 가족에 대한 단어들의 집합인 토픽 10은 일베에서 가장 많은 직접적인 비난을 받는 타자가 여성이라는 윤보라의 지적을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여성 '김치녀'나 '보지'와 같은 격한 표현으로 비난을 하면서도 여성은 언제나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서 논의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LDA의 통계적 모델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관련된 어휘와 자주 나온다는 사실은 일베에서의 여성혐오가 많은 부분 가족주의적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분노는 취업과 결혼, 가정으로 이어지는 '평범함'의 이상이 좌절되는 지점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39].

---

39) 윤보라는 "혐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성적 자유를 얻은(것처럼 보이는) 이 여성들이 결국 나에게만 '대주지 않는' 준엄한 분노와 박탈감이 존재한다"(윤보라, 같은 글:51)고 지적했는데, 이는 일베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경로로는 연애도 결혼도 못하는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일베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는 ‘김치녀(년)’이나 여성의 성기 자체를 속되게 이르는 ‘보지’, 그리고 그 성기를 ‘벼슬’처럼 여긴다는 데서 유래된 ‘보슬아치’ 등이 있다. <부록 그림 10>는 이 세 단어들의 토픽분포를 나열한 것이다. 세 단어가 공통적으로 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토픽 10이 높은 확률로 나타나지만, 지칭어의 집합인 토픽 14가 자주 나오는 것은 얼마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보슬’의 경우, 앞서 살펴본 토픽 7과 함께 자주 쓰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에게 과도하게 잘해주는 남성을 의미하는 ‘보빨’과 함께 비교했을 때 더 풍부한 설명이 가능하다.

<부록 그림 11>이 보여주듯이, ‘보슬’아치와 ‘보빨’러는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토픽 7의 비중이 높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양자는 공히 비난의 대상이지만, 정작 ‘보슬’아치 자체보다도 ‘보빨’러가 더 자주 저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후 사례분석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김치년’인 여성들은 ‘무식’하기에 ‘3일에 한 번씩 패야’하고(삼일한) 그 관리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하지만 남성인 ‘보빨’러들은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오히려 그들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여성들이 점점 더 남성들을 ‘착취’하고 ‘개념없는 짓’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한다. 즉 공범인 것이다. 따라서 ‘보빨러’들은 자주 ‘김치년’ 자체보다 더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토픽 14가 개입한다. ‘너’같은 ‘놈’ 때문에 ‘우리’같은 ‘남자’가 피해본다는 것이다. 한편 언제나 ‘팩트’를 강조하는 일베의 특성상 ‘주작(조작)’에 대한 저격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감정표현의 집합인 토픽 3은 일베가 공유하는 감정적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하다. ′ㅋㅋㅋ′, ′ㅠㅠ′ 따위의 문자와 ‘시발’등의 욕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베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문자로 표현한다. 이는 사이버공간 일반

‘루저’임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3포세대’ 전반이 가지고 있는 좌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에서 자주 발견되는 예라는 점에서 일베만의 고유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냉소적 표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ㅋㅋㅋ'은 물론이고 명시적으로는 슬픔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ㅠㅠ'조차 화용론적으로 냉소나 비아냥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 된다[40].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 토픽 16은 '노무현-김대중 비하', 더 정확히는 일베의 방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정치일베에서 보여주는 양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는 다른 것으로써, 토픽 16이 서남방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나그램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있듯이 일베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표현임을 알 수 있다.

<부록 그림 13>는 정치일베와 마찬가지로 pmi지수를 기준으로 그려본 일베 게시판의 시맨틱 네트워크이다. 이 분석이 보여주듯 '정치'를 제외한 일베는 대단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사이트와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축구와 요리, 연예같은 주제는 물론이고, '학원', '입학', '수능'과 같이 특히 고등학생들이나 나눌만 한 내용이 중요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우측 하단에서 보듯이 '정권', '가카(각하)' 등 정치 관련 게시물도 있는 한편 왼편 중앙엔 의학 관련 단어도 상당수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일베 특유의 '알아보자'문화가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알아보자'란 일종의 지식공유로써, 사람들이 잘 모르거

40)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이버공간에 상당부분 퍼진 것처럼 보인다. <부록 그림 12>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뉴스 정치섹션에서 각 해마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뉴스 20개의 베스트 댓글 5개씩 총 800개 댓글이 어떤 감정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단순한 기술이나 기쁨, 슬픔 등은 기타로 코딩한 채 냉소와 비아냥, 분노, 짜증 및 무기력을 각각 코딩했을 때, 우리는 매년 냉소적 표현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만약 짜증을 '냉소적 분노'라 할 때 냉소는 사이버공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하루에도 수 백만개씩 생산되는 댓글이라는 점에서 케이스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등 '기관'의 개입이나 의도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사이버공간의 여론이 네이버 대 여타 포털사이트로 양분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나,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추세에 일베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궁금해할 수 있는 '알찬'정보를 자세히 설명한 글을 말한다. 이는 일베의 저격과 함께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분석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일베 이용자들이 '팩트'를 중시하는 행태 등은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피아를 구분하게 해주는 중요한 표징이다. 실제로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몇몇 이용자들 역시 일베에 가능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같은 '알아보자'문화에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일베의 이러한 '의외성'은 일베 이용자들이 그들에게 덧씌워진 스티그마를 '억울'해 하는 이유가 된다. 그들 입장에선 "나는 평화롭게 자전거게시판에서 활동할 뿐인데" 그 커뮤니티가 하필 '일베'라는 이유로 욕을 먹는다는 것이다.

이 의미망 분석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기병', '나폴레옹'등의 역사 관련 지식은 쉽게 '전차', '전투기'등의 전쟁 관련 클러스터로 넘어가게 되며[41], 이는 다시 '저그'등에서 볼 수 있는 컴퓨터 및 게임 클러스터와 이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쟁 및 군사 지식은 '슨상'과 함께 5.18 폭동론을 암시하는 단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치 관련 의미망은 네트워크의 2시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등의 여당 인사들이 집중된 가운데 '노알라', '슨상' 등 야당 관련 인사 및 사건이 파편적으로 흩어져있다. 이들 주변에 '폭동', '시위', '빨갱이', '분탕'등의 단어가 '광주'와 이어짐으로써 5.18수정주의는 일베의 공인된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여성 관련 클러스터는 거의 보이지 않고 곳곳에 작은 노드들이 흩어져있다. 이런 현상은 이 그래프가 단어 간의 연관도를 기준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성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유로든 비난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역설할 뿐, 일베의 여성혐오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41) 일베에서 전쟁사 관련 클러스터가 매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청년' 보수주의 담론의 기원이 『로마인이야기』등의 극우성향 대중 역사교양서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다시 말해 LDA와 PMI 분석을 위한 자연어처리 기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사례분석; 열광적인 웹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치적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일베의 주된 공격대상은 호남과 여성,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인 진보좌파이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듯[42] 일베에서의 '외국인 혐오'는 수치상 크게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단히 한계적(marginal)이며 상황적이다. 아직 일베에게 외국인은 가시적인 적 혹은 자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일베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혐오는 '오원춘' 사건이나 '이자스민'의원 등의 개인 및 사건에 수렴될 뿐 뚜렷한 혐오의 범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일베의 혐오는 어디까지나 내부를 향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나타나듯 이들은 북한이라는 실제의 '적'을 겨냥한다면서도 실상 '종북'에 더 많은 냉소와 분노를 표출하고, 5.18은 북한군, 다시 말해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반골기질'을 가진 '홍어'들의 '폭동'이라고 깎아내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무엇보다 가족주의의 포섭대상인 여성을 향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다. 요컨대 일베적 혐오는 외재하는 실존의 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믿어지는 내재적 타자를 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여러 극우주의 및 극단주의자 연구와는 상

42) <경향신문>, 2013년 6월 2일 "['일베현상'에서 한국사회를 본다] 노골적인 진보·여성·외국인 혐오...'진보 비방이 재미있어 보수 자처'"

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혐오발화의 내용상 일베는 극단주의자들의 그것과 대단히 유사한 반면 혐오의 대상이 내부자를 향한다는 점에서 '네오나치'나 '재특회'와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특징은 일베를 극우주의로 위치시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다. 때문에 우리는 일베가 주는 여러 인상에 대한 평설보다도 실제 그곳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절부터는 일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사례분석을 통해 일베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구조를 자세히 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베 이용자들의 열광의 끝에 뒤르켐적 연대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다음 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사례의 일람이다.

	url	게시 날짜	제목	일베로	민주화	댓글수
사례 1	http://www.ilbe.com/1239887703	2013.05.17	518)광주가는버스안에서일베중이다	323	37	145
사례 2	http://www.ilbe.com/1244900688	2013.05.18	일베에왜518글이올라오는이유??	269	21	348
사례 3	http://www.ilbe.com/702712645	2013.01.25	일본유학게이가느낀김치년VS스시녀가장큰차이점BEST5	479	474	387
사례 4	http://www.ilbe.com/2552295180	2013.12.15	나도대자보썼다.jpg	5708	213	1142
사례 5	http://www.ilbe.com/1286941933	2013.05.25	독립군후손,625참전용사,베트남파병장병,518유공자현재모습.JPG	711	31	170
사례 6	http://www.ilbe.com/637585285	2013.01.12	이것이5.18의FACT다!!!!!!!!!!!!!!!!!!!!!!!!!!!!!!!!	693	144	565
사례 7	ttp://www.ilbe.com/1758838894	2013.08.09	[재업]광주사태가폭동이이유	528	44	356

사례 8	http://www.ilbe.com/564481451	2012.12.28	[펌]종북세력의실체군대다녀온사람들은알거다..!	503	17	210
사례 9	http://www.ilbe.com/2551908751	2013.12.15	선동의심각성을모르는새끼들에게.collapse	437	62	145
사례 10	http://www.ilbe.com/382083333	2012.11.16	개씨발년甲.jpg	472	187	328
사례 11	http://www.ilbe.com/2760445204	2013.01.16	[스압]일베상주하는좌좀들에게해주고싶은말.TXT	1574	145	1037
사례 12	http://www.ilbe.com/1204564793	2013.05.10	[5.18핵폭탄]드.디.어.올.것.이.왔.다!!!	1195	104	351
사례 13	http://www.ilbe.com/748389060	2013.02.03	차 안가지고 와서 빡친 김치년.jpg	855	88	628

<표 2> 사례 분석 일람

1)사회적 무시와 타자화

호네트는 그의 저서 『인정투쟁』에서 인정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무시나 모욕 역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정이 신체적 불가침에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폭력으로 빼앗는 실제적 학대”(호네트,2011:252)가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 굴욕이라고 주장했다. 신체적 학대와 폭력이 기본적인 자기믿음을 훼손한다면, 권리의 박탈은 “한 개인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정도의 도덕적 판단능력을 인정”(호네트, 같은 책:254)받지 못하는 굴욕감을 준다. 이는 그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동등한 상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주는 무시이다. 마지막으로 호네트는 개인이나 집단이 공동으로 믿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정, 다시 말해 문화적 평

가절하가 사회적 무시의 세 번째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호네트의 이론화는 사회적 무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설명해주고, 무시를 당한 주체가 정치적 저항과 같은 인정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해준다. 이를 우리의 논의에 비추어본다면 일베에서의 혐오가 비록 인격적 침해는 행사하지 않을지라도[43] 여성, 호남 등의 타자들에게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부정할 뿐 아니라 분단체제에 기대어 여타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는 무시를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부터 제시될 예시들은 일베가 '타자'들을 어떻게 호명하고 무시하는지를 드러낸다.

(1)전라도, '7시 방향'에 위치한 '홍어들의 나라'

우리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5.18 담론과는 상관없이 전라도에 대한 깊은 혐오와 냉소를 볼 수 있었다.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전라도 출신들은 가난하고 '민도'가 낮으며 자기들끼리만 연합하여 타지인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들이다. 앞선 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호남에 대한 일베의 혐오는 매우 넓게 퍼져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곧바로 '전라도 출신'이 아니냐는 댓글이 달리고 직접적으로 전라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서남방언을 조합한 일베 특유의 사회방언을 사용한다.

이러한 호남혐오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례 1[44]은 글쓴이가 광주행 버스를 탄 것을 인증하며 광주, 그리고 5.18을 에둘러 비난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전라도에 대한 혐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데, '슨상님', '홍어'가 대표적이다. 우선 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데,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을 지칭할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에 기인하여 이를 서남

43) 이때 일베에서 자주 행해지는 '신상털이' 혹은 인격살인은 호네트적 의미에서 명백히 인격적 침해에 해당한다.
44) http://www.ilbe.com/1239887703

방언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드립'으로 볼 수 있다. '지역드립'은 종종 호남에 한정하여 '홍어드립'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홍어는 호남을 표상하는 단어로 자리잡았다. 또한 '홍어드립'은 자주 '호성드립'과도 연관되는데, '호성드립'은 전 해태타이거즈 선수였던 이호성이 처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을 호남사람들의 폭력성 혹은 야만성의 근거(즉, 팩트)로 들며 희화화하는 것을 말한다. '호성드립'은 특히 '성님은 힘이 장사셨제'와 같은 표현이 동시에 따라붙는다. 사이버공간에서 전라도 혐오 발언은 서남방언을 이용한 희화화와 김대중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 대한 조롱, 그리고 호남 사람들의 '민도'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45] 댓글에서는 특히 광주의 치안이나 광주 시민들의 폭력성을 경계하는 발언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진심으로 조심해라 말한마디잘목했다가 어째될줄모른다[46]"거나 "홍어국 안위험 하겠냐 몸조심 해라"는 등의 발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게시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은 광주를 '적'으로 명시한 지점이다. 이것은 5.18을 무장폭동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되어 '외국'으로 취급하는 일베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베에서는 호남이 한반도의 '7시 방향'에 있다다는 의미에서 '7시국國', 혹은 '홍어국'으로 부르며 호남을 '국민'의 범주에서 제외시킨다. 댓글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그대로 반복된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일베 이용자에게 "여권없으면 너두 외노자다 걸리면 강제추방이고 치외법권지역이다ㅋㅋ조심해"라고 한 말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베에서는 같은 일베 이용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사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은 '친목질'이라 하여

45) 이는 디시 시절 대구를 '고담'이라고 부른 것과도 대비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각 도시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냈는데, 예컨대 대구에서는 '황당한'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인천 지역에서는 강력사건이, 광주에서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공식화되기도 한다.

46) 이하 제시되는 사례에서 직접 인용문은 가급적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수정하지 않고 일베에서 작성된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주된 제제의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스스로를 광주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금기에 해당한다. 이에 “홍어새끼야 왜 태어났노?”나, “너 홍밍으로 건게에 신고한다ㄱㅅ”와 같은 비난이 함께 나타난다. 또한 게시자에게 ‘여권’이나 ‘비자’를 가지고 갔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았는데, 이는 광주·호남에 대한 타자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사례 2[47]는 일베에서의 5.18폄훼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운영자(모니터링)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한 흔치 않은 사례를 캡쳐한 것이다. 그에 대한 답글은 일베에서의 5.18폄훼의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일베충’의 단순무식한 논리와는 전혀 다르게도 “5.18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5.18옹호자(진보진영)을 비꼴겸 일베가 유머사이트이므로 유머(드립)도 칠겸 겸사겸사”라는 말은 일베의 지역혐오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적시하고 있다. 우선 일베에서는 5.18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진보진영’으로 국한시킨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5.18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기보다는 ‘광주사태’이며 5.18을 신격화시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진보세력’의 ‘음모’가 있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지역주의를 설명하며 민주화의 가치, 나아가 진보를 상징하는 지역으로서의 광주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요컨대 5.18을 폄훼함으로써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진보진영 자체라는 것을 뜻하는데, 일베에서 보는 진보는 곧 종북과 다르지 않으므로 자주 ‘북한개입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한 드립을 유머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들에게 있어 지역드립은 정도가 심할지언정 어디까지나 일베에서 통용되는 유머코드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 ‘진보단체’의 ‘고소크리’는 유머도 이해하지 못하는 ‘씹선비’일 뿐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스스로의 발언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클리셰를 남발

47) http://www.ilbe.com/1244900688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베가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는 지역보다는 이념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캡쳐의 대상이 된 운영자 '모니터링'은 댓글에서 "5.18드립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노잼인데 계속 올리니깐 물어본것임"이라며 애초에 '유머코드'로서의 '5.18드립'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이같은 질문에 "뭐 드립도 모르는 병신년아"며 욕설을 한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모니터링'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5.18폄훼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답변들도 많이 나왔다. 예컨대 "명절날 세배는 꼭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다"는 대답은 5.18폄훼가 일베 이용자들의 의례임을 드러내고, "걍 폭동절이니까 일베 한번 가볼 생각에 머리속에서 드립웅 줘짜내는거지 애새끼들은 좆도 재미없지만 의무감에 일베주게되거"라는 대답은 '일베가 되고자 하는 욕망', 말하자면 일베 내에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상황적 전략 중 하나가 더 자극적인 5.18폄훼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어그로'로서의 5.18드립이 '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유저들도 많았는데, "5.18갖고 드립치면 홍어들 광분하잖아"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일베적 혐오의 중요한 동인을 찾을 수 있다. '타자'의 대상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주는 카타르시스는 호남과 5.18은 물론 본 논문에서 다루는 나머지 타자들에 대한 비난에 쾌감을 더한다. 이들의 '드립'이 어디까지나 '유머'였다는 자기변호가 배후에 깔린 것은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타자가 분노한다는 사실 자체이다. 이를 일베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몸서리치는 것을 보는 재미, 다시 말해 '부들부들잼'이라고 말한다. 이런 '부들부들잼'은 무식한 도덕주의자인 '씹선비'들을 공격할 때 가장 잘 나타나는 반응이며, 위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씹선비'는 5.18의 성스러움을 신봉하는 이들에서부터 여성, 진보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때문에 일베에서 말하는 '씹선비'란 타자 전반이며, 이 타자들은 이성적인 판단 대신 감정이 앞서는 모든 이들을 의미한다[48].

(2)여성, 개념없는 ‘김치녀’

일베에서 말하는 ‘김치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여성에 대한 타자화가 일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여성에 대한 타자화 과정은 무엇보다 젠더호명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성을 향한 차별적 시선은 언제나 범주화를 포함하는데, 이는 또한 부정적 여성상을 여성 일반에 덧씌우는 담론적 장치가 된다. 김수진은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을 분석하며 신여성이 근대적 지향을 표명한 지식인들의 욕망과 정체성을 투영하는 장소였다고 주장한다. 당시 지식인 남성, 나아가 식민지 조선의 대중에게 알려진 ‘모던걸’은 나혜석 등으로 특정되는 지식인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큰 길에 나오는 모든 여자”(김수진, 2009:289)이며, 그들의 외모나 지식은 “주체적인 사고의 발로”라기보다는“단순한 허영심(같은 책:341)”에 찌든 “요컨대 유녀”(같은 책:284)로 특정지어졌다.

이러한 담론은 1930년대 초 『신여성』의 주요 필진이었던 남성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식인데, 이러한 식민지 조선의 담론장에서 여성은 근본적으로 비주체적이고 의식성이 없는 이들로 그려졌다. 하지만 김수진은 이러한 남성들의 비판이 기실 그들이 여성을 “퇴폐와 타락, 자본주의적 상품화, 그리고 배금주의의 체현자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혹됨의 눈길과 끊을 수 없는 엿보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에 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06년을 전후로 일반화된 ‘된장녀’ 개념은 ‘소비주의’와 ‘허세’로 일축하는 남성들의 조소와 비아냥은 실상 “소비

48) 물론 이 부들부들잼이 항상 타자를 향하는 것은 아니며, 일베가 위기에 놓인 순간에 일베 이용자들이 ‘부들부들’하지 않았던 것 또한 아니다. 예컨대 지난 2014년 6월 4일 일베가 지지하던 서울시장후보가 낙선하고 난 이후의 일베는 대선패배 이후의 진보 커뮤니티와 비슷한 ‘집단멘붕’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를 통해 여성들이 충족하고 있는 욕망의 내용을 알 수 없을뿐더러 그들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느낄 때"(모현주, 2008: 53)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남성들의 불안은 여성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비하적 젠더호명으로 표현된다. 모던걸을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이 기실 다가오는 근대를 향한 욕망과 불안이 가시적인 여성에게 투영된 것이라면, 된장녀로 표상되는 21세기의 여대생을 향한 공공연한 비난은 그들의 소비주의 그 자체보다 그들을 '된장'이라 명명한 (20대 남성으로 추측되는)이들의 불안과 공포가 분노의 표현으로 응축되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신여성 비하 담론이 매스미디어에서 소수 남성 오피니언 리더들의 관음적 시선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지금의 여성혐오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환된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합쳐져 여성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3[49] "일본유학게이가 느낀 김치년VS스시녀 가장 큰 차이점 BEST 5"는 여성에 대한 타자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시물이다. 글쓴이는 한국 여성들의 특징을 다섯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한국 여성들은 더치페이 문화가 없어서 "밥좃나게 처먹고 커피한잔"사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무개념녀"이다. 둘째, 대화를 나눌 땐 "지하고싶은얘기만 좃나게"하고 "지심심하면 웃겨봐라 재밌는얘기해달라"며 "징징"대서 아무리 "성격좋던사람도 성격다배린다". 셋째, 연애를 할 때는 (밥값을 계산하지 않는 것과는 정 반대로) 대단히 계산적이어서 "연애하면서 저울질하고 따지는게 좃나게 많다". "김치년들은 같지도않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남자라도 조금 튕겨야 비싸보이는줄"안다는 것이다. 넷째, 연애스타일에 있어서 '김치년'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받기만"한다. 글쓴이는 그 이유가 "주변 친구랑 비교를 존나게"하기 때문이라며 "내가 비싼거사주면 주변친구들한테 자랑존나하면서 들들볶겠지 병신같은년ㅋ"이라고 냉소한다. 마지막으로 연락빈도에 있어서, "24시간 내

49) http://www.ilbe.com/702712645

가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사생활은 절대있을 수 없다". 반면 일본여성들에게 더치페이는 "기본중의 기본"이고 듣는 자세가 바르기에 "남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며, '밀당'을 하지 않고 "남자에게 헌신"한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도, 선물의 가치에 매달리지도 않은 채 "작은것에도 감동하고 받은 것은 반드시 갚"는 개념녀인데다, 남자가 연락을 못하면 "다이죠부[50]~ 하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여성들은 이기적이고 의존적이며 계산적인 반면 일본 여성들은 남성에게 위안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불만은 '허영' 혹은 '허세'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의 허세는 남성보다 SNS에 훨씬 매달리는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거니와, 별 '쓸데도 없는' 명품백에 '환장'하고 자기들 끼리 비교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구매할 경제적 능력은 없기에 그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 남성을 '착취'한다. 때문에 여성은 언제나 남성을 '도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일베에 쓰여진 수많은 '연애하다 헤어진 썰'은 '간도 쓸개도 다 빼줬더니' '돈 많은 놈팽이랑'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친밀성을 요구하는 남성들의 '소박한' 소망은 허세로 가득찬 '김치년'들의 '종특'으로 인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획이 된다. 글쓴이가 한국 여성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 역시 친밀성에의 요구가 좌절된다는 것에 있고, 그것을 만족시켜줄 대안으로 일본 여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1에 육박하는 추천 대 비추천 비율로 보듯이 이 주장은 그리 많은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글쓴이에게 쏟아진 비추천의 대부분은 그의 글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다시 말해 'ㅈㅈㅂ'(X중복)이라는 것이다. 유머는 본질상 패턴은 있을지언정 내용은 지속적으로 변해서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글쓴이의 글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내용을 재반복하기 때문에 추천만큼이나 많은

50) '괜찮다'는 의미의 일본어. だいじょうぶ·大丈夫

비추천을 받았다. 바꿔 말하면 이 글이 작성된 2013년 1월 현재 일베에서 글쓴이가 지적한 '김치년'들의 '패악질'과 그 완벽한 대립쌍으로서의 '스시녀'의 비교는 이미 상식이다. 한 마디로 '김치녀 대 스시녀'라는 '떡밥'은 '쉴대로 쉬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민주화'의 의미가 한국여성에 대한 과도한 비하, 혹은 일본 여성에 대한 고평가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국 여성이나 일본 여성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아예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즉, 보혐)를 표출하거나, 어디까지나 '케이스가 하나 밖에 없어서 단정은 못짓겠지만' '내가 클럽에서 본 스시년은 존내 간'을 보더라며 지나친 일반화를 경계하기도 했다. 더구나 '스시녀에 대한 환상만 키워줄 뿐 뭐 아무것도 해결되는거 없'으며 '혹여나 이런 글들만 골라 보고서 헛된 환상에 빠지는 게 이가 없었음 좋겠다'는 주장도 자주 보였다. 즉, '보슬은 어디든지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어떤 의미에선 '한국여자가' '앞뒤없이' '솔직'다는 차이점만 남을 뿐이다. 하지만 역시 이 '솔직'함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여성들의 '무식'함은 변하지 않는다.

(3)종북이라는 이중국적

사례 4[51]는 지난 2013년 겨울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에 맞서 한 일베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대자보를 인증한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자보를 캡쳐한 이미지인데, 이 대자보는 다소 길지만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때 대자보 작성자의 강조표시(글자색, 밑줄, 기호 등)는 최대한 반영했다.

51) http://www.ilbe.com/2552295.180

저도 "안녕못합니다."
안녕하냐고 묻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학업에 전념중이신 대학생 여러분! 자신의 직업과 역할에 충실하신 OO시민여러분! 요즘 '안녕하신지' 묻고 싶다고 하는 대자보가 전국 각지 대학에 붙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느니,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라느니 하는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선동을 여러 대학교의 몇몇 학생들이 개인의 주장을 담은 대자보 말입니다.
현재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수사중이며 법원에서도 아직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체 선거인 40,507,842명 중 투표에 참여한 30.721,457 중 15,733,128명의 득표를 얻어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전체 투표자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을 어떻게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p.1----------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입니다.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작 3대 세습 독재정권 '북한'에 대한 비판에는 침묵하는 사람들은 反국가 종북세력이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불순세력입니다.
또 요즘 "철도가 민영화된다"는 "가스, 전기 등 공공부문이 민영화된다"느니 하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며 오히려 이번 철도 민영화는 "철도개혁"입니다.
2005년 공기업으로 전환된 코레일은 영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17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코레일의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17조를 적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6.7% 인상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밥그릇 수호에 여념이 없습니다. 코레일 노조는 평균 연봉 6000만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연봉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는 노조의 임금인상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코레일의 정상화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철도노조의 행태를 우리가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p.2----------

지금의 KTX는 서울-광명-천안·아산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지역(강남, 송파, 구리, 남양주 등)은 KTX를 이용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나온 방안이 바로 수서발 KTX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코레일은 엄청난 적자로 인해 노선신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안한 방안이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입니다. 코레일 지분의 자회사를 설립→경쟁체제구축→서비스 질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란 말입니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라가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 "유신이 부활했다"
자신들이 할 일을 다 내팽겨치고 데모질, 선동질을 하는데도, 정부에서 방관하는 것

을 보면서도 잘도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정말 7~80년대 독재정권이었다면 당신들이 시위하고,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벽 뒤에 숨어서 민주주의의 과실을 먹고 있는 당신들(=반국가세력)이 할 말입니까?
스스로를 깨어있는 시민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반국가투쟁에 동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선동하는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유도,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p.3----------

진짜로 깨어있는 시민들은 사회에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허위사실에 선동당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며 참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학생 여러분! OO시민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군인들이 피땀을 흘려 지켜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것에 의해 이익을 얻는 단체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잡혀가는 심각한 안보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반국가세력을 분쇄하고 안보의식을 튼튼히 해야합니다.
허위선동세력이 안녕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안녕하다. 자유대한의 땅 위에서 행복하다. 그러나 당신들과 같은 세력이 정부를 비난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안녕하지 못하다.” 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 안녕 “합니다.”

----------p.4----------

일베에서 공유되는 종북에 대한 단상이 가감없이 드러난 이 글은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의의 틀에 한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글쓴이는 “안녕하십니까” 운동이 “명백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며 반민주적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대자보를 붙이는 ‘세력’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논란은 대단히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수사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가 불순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의 파업에 관해서도 그들의 “철도 민영화”주장은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놓”았다며 눙치는 한편 그들이 받는 연봉을 상기시키며 “밥그릇”싸움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나열한 후 글쓴이는 현 정권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反국가세력”이라고 단정하며 곧 종북으로 등치시켰다. “내부의 분

열을 조장하고 그것에 의해 이익을 얻는 단체"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反국가세력"은 "자신들이 할 일을 다 내팽겨치고 데모질, 선동질"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가혼란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종북'의 반대편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은 "사회에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고 최선을 다할 뿐", "진실을 추구하며 참된 정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민주시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종북'이라는 호명은 정부에 대한 의심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모든 이들에게 퍼진다. 한국의 전통적인 냉전주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쓴이의 호명은 '분열'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는 사례 5[52]에서도 볼 수 있다. 글쓴이는 "군대 갔다와서 생각을 달리하게"되었다며 중국 및 베트남의 "공산화과정"은 내부의 적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어 글쓴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적화통일 전략은 '인권'등을 들먹거리며 적 개념을 모호하게 하는 "화전양면전술"이 핵심이고, 북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베트남 케이스는 일베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교대상이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압도적 경제력을 가졌음에도 월맹이 패망했던 것을 반면교사삼아 한국의 '안보'를 철저히 무장할 것을 주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53].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위에서 살펴본 대자보에서 보듯이 '북한'자체에 대한 공포나 위협은 부차적인데 반해 내부의 적, 즉 '종북세력'에 대한 증오가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앞선 양적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 '종북'이 지칭하는 바는 보수의 젊은 이데올로그를 자처하는 일베에서 조차 전혀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증오를 냉전주의의 부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일베에서 이루어지는 진보주의(자)에 대한 호명과 타자화의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우를 범할 위험이 있다.

이 '명문'을 접한 일베 이용자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5,700개가 넘는 추천수와

52) http://www.ilbe.com/564481451
53) http://www.ilbe.com/2551908751

1,155개의 댓글은 전날 새벽 일베 이용자가 고려대학교에 걸린 대자보를 찢은 것을 인증한 것[54]이나 <자유 대학생 연합>에서 “안녕들”에 대한 반박 대자보를 써줄 대학생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가 수많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큰 지지를 받았다[55]. ‘대자보부터 찢는 행위랑은 격이 다르’다며 글쓴이를 칭송하고 ‘멋진 글’, ‘잘 썼다’는 등의 칭찬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행게이’, 다시 말해 ‘행동하는 일베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찬양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켠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도 있었는데, “국정원 개입, 댓글 뭐라반박해야되냐”는 질문에 대해 한 이용자는 “국정원은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합법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SNS로 국익에 반하는 선동하는 종북세력들을 공격,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곧이어 그는 “댓글 몇 개 단 거 가지고 대선개입이라고 하면 전노, 전교조 및 몇몇 공무원들이 댓글로 선동한 것은 왜 비판 안하”냐며 일베 특유의 논리적 비약과 이중잣대론을 제시했다. 이는 본문에서도 나타난다:“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작 3대 세습 독재정권 ‘북한’에 대한 비판에는 침묵하는 사람들은 反국가 종북세력이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불순세력입니다.”

2)타자에 대한 분노와 일베적 정의의 탄생

멜러와 쉴링이 적절히 지적했듯 “의례는 흥분한 행위의 중심적 매체이다.”(멜러·

54) “고려대 파업대자보 찢어버렸다. 행게이 ㅍㅌㅊ?”라는 제목의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http://www.ilbe.com/2547036937)이다.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인 ‘고파스’에서는 해당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신공격과 ‘신상털이’가 시작되었고, 곧이어 그는 고파스에 사과글을 올렸으나 같은 시간 일베에 자신의 신상이 털린데 대한 고소를 준비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구설에 올랐다. 이후 일베 이용자는 훼손된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이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됐다.

55) <오마이뉴스>, 2013년 12월 15일, “보수 대학생단체 “‘안녕...’반박 대자보 공개모집”

쉴링, 2013: 109) 형벌이 인간의 열정, 특히 복수의 열정을 만족시키는 것인 한, 그것은 분노와 직결된다. 범죄자의 죄는 단순히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침범한 것은 성스러운 것, 혹은 공적도덕이며, 이에 사람들은 모여서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 분노한다. 즉, 이때의 분노는 공적 분노인 것이다(뒤르켐, 2012;158~159).

이윽고 범죄자는 "속죄"(뒤르켐, 같은 책;167)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공적인 분노는 속죄의례를 통해 성스러운 것의 회복을 선언하며, 그 의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집합흥분 속으로 밀어넣는다.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감정이 폭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되"(뒤르켐, 같은 책;155)는 것도 이 때문이며, "속죄의 명목으로 가해진 고통은 이러한 공적인 분노의 표현, 즉 만장일치의 구체적인 증거일 뿐이다."(뒤르켐, 1992;561) 이처럼 분노는 "동원 가능한 힘을 흥분"시키며, "우리의 감정을 돕고 강화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하도록 한다."(뒤르켐, 같은 책;154)

아래부터 제시될 사례들은 일베 이용자들이 타자로 규정된 이들을 향해 발산하는 분노가 어떠한 내용을 구성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분노는 자주 직접적 행위, 즉 신상털이나 격렬한 비난으로 구체화되며 열광을 예비한다.

(1) 5.18의 교훈-'국가를 향해 총을 쏴라'

사례 5[56]는 각각 독립군 후손과 6.25참전용사, 베트남 파병장병의 현재모습을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의 이미지로 대치시키고 그와 비교하여 친일작가로 알려진 김완섭 씨의 광주민주유공자증 사진을 붙여 넣으며 적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정부를 상대로 싸우자"라는 냉소섞인 결론을 내고 있다. 711개의 추천과 31개의 비추천을 받은 이 글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이끌어냈다.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극단적인 사례"만 짜깁기 한 것이라며 이 또한 하나의 선동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이 게시물과

56) http://www.ilbe.com/1286941933

댓글 상호작용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5.18유공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다. 이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보상을 '치트키'라고 표현했는데, "광주폭도 주도자 자녀들 전부 대학 특례 입학에 가산점 10퍼"센트나 받고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혜'를 특히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이 '들고 일어난' 대상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라는 데 있었다. 이러한 특혜를 위해 자신들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데 대한 분개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공분의 핵심은 '역차별'론으로써 앞서 살펴본 소수자화 전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 한 것은 일베 이용자들이 내면화한 도덕경제(moral economy)이다. 이들이 보기에 "백번 양보해서 민주화운동이라 쳐도 6.25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이 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인 부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베의 시선에서 5.18은 '적'이 아닌 '정부'를 향한 '폭동'이었고, 민주화라 할지라도 이미 8-90년대를 거치며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공고화되어 도덕적 부채의 시효가 소멸됐다. 이러한 일베의 도덕경제는 일베 이용자로 하여금 5.18과 그에 대한 기억, 추모가 도덕적으로 '등가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한다. 즉 이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공적인 분노'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추모는 이미 '과도'하고, 여전히 실재하는 적에게 투사되어야 할 감정이 더 크다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물며 5.18을 북한에 의해 선동된 전라도 인들의 폭동으로 본다면 이러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게시물에서 볼 수 있는 참전용사들과 광복군 후손들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깊은 공감은 그들의 도덕적 부채의식이 민주주의 자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있기에 가능하다. 이는 역으로 이들이 느끼는 부채의식의 핵심엔 대립쌍으로

서의 북한이 항상 접합된 실을 유추할 수 있는 동시에, 국가는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없다는 믿음을 보여준다[57].

사례 6[58]은 사례 1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5.18수정주의 담론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것이 5.18의 FACT다!!!!!!!”라는 다소 과장스러운 제하의 이 게시물은 기존에 일베에 게시된 글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광주항쟁당시 시민군들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이미지와 “5.18의 진실”이라며 지만원의 책을 요약·발췌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5.18은 “헌법기관이 내린 정당한 명령”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광주의 대학생들”이 “헌법기관이 내린 명령을 위반”했으며 각종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특히 “구두닦이 넝마주이 등으로 대표되는 소외계층”과 광주시민이 공수부대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거리로 뛰어나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5.18을 철저히 지역주의와 북한의 선동에 인한 사건으로 격하시키고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살해했고, 경상도 차량들을 보면 불태워버렸고, 경상도 사람이 운영하는 상점을 불태워버렸다”며 이러한 ‘폭동’의 근원이었던 유언비어의 “진원지는 북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라도의 “열등의식”을 거론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는데, 곧이어 “44개의 무기고”가 “동시 탈취”되었다는 사실을 보건대 “분명히 지휘부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며 북한 개입설을 또다시 거론한다. 또한 5.18 수정주의자가 항상 걸고넘어지는 ‘경찰 최초 희생자’론도 나타났다.

이 글은 693개의 추천과 144개의 비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댓글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게시자가 ‘가져온’ 글이 기존에 유명한 글이었다는 점에서 일베를 ‘날로먹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불만은 각자의 ‘창의성’을

57) 만약 우리가 일베의 보수성을 논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이들이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발화의 준거가 항상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58) http://www.ilbe.com/637585285

겨루어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구조로 작동하는 일베의 공간적 특성이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근거로도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머사이트라는 태생상 '중복'은 크나큰 일탈인 것이다. 둘째, 대선 이후 정착된 정치 관련 글은 정치게시판에 게시해야 함에도 그 규칙을 어겼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이들도 많았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불만에 대해 게시자가 보여준 지나친 '독선'때문이었다. 그는 '정치 게시판에 올려라'라든가 '퍼온 글을 자기 글인 양 올리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전라도 출신자들의 '분탕'이라며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근거를 요구하는 이들에게조차 자신(정확히는 글쓴이)의 논거를 시종일관 "광주사태 수사기록 18만페이지를 지만원 박사가 6년간 전부 검토해서 2008년 출판한 '12.12, 5.18'과 2010년 출판한 '솔로몬 앞에선 5.18'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라며 지만원 '박사'를 절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와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표면상으로나마 '합리적 공론장'을 지향하는 일베 이용자들에게 글쓴이의 태도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라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지만원이라는 권위에 기댄 게시자의 글 역시 선동의 하나라는 지적도 자주 나왔다. 넷째, 일베에서 불문율로 여겨지는 '3줄 요약'이 없이 긴 글줄로 이루어진 게시물이라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례 3과 같은 '긴 글'은 '좌좀'들을 설득시키기에 설득시키는 주체인 자신조차 요점을 잘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에서도 스스로를 '소수자'와 '약자'로 등치시키는 댓글이 자주 보였는데, 대법원의 판결이나 교과서가 결국 "김영삼-김대중-노무현 15년간 좌파정권"이 만들고 "역사라는 것은 정권 잡고, 힘있는 놈이 입맛대로 고치는"것이라는 게시자의 댓글이 인상적이다. 소급입법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어기고 "다 끝난 사건을 다시 관뚜껑 열어서 부관참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수정주의는 다양한

‘근거’를 제공하여 기존의 관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새로 취임하신 가카(박근혜)가 바꾸실 수도 있겠”다며 “바꾸는 건 몰라도 확실히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것같”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5.18의 ‘팩트’를 다룬 게시물들의 댓글에서 ‘이런 저런 의견이 많으니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숙고’가 자주 나타나는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례 7[59]는 5.18을 촛불집회와 비교하며 “광주사태가 폭동인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종편과 지만원 등에 의해 유포된 북한 개입설이 사실상 기각된 시점인 2013년 8월에 게시된 이 글은 일베에서 5.18을 비난하는 논리가 반 호남 지역주의와 ‘폭력시위론’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편 기실 촛불집회에 대한 반감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게시물은 여타 수정주의론이 그러하듯 ‘헌법에 의한 합법적 정부’임을 전제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촛불집회와 5.18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타도하려 했다는 점, 불법폭력시위였다는 점, “악질적인 유언비어 잔치판”이었다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기에 5.18 역시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촛불집회, 소급하면 거의 모든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거부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이들이 혐오하는 것은 ‘불법’‘폭력’집회이다. ‘신상털이’와 ‘패드립’으로 악명높은 일베에서 ‘합법’에 대한 강박이 있다는 사실은 다소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을 논하면서도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이라며 끊임없이 근거를 찾아나선다. 때문에 5.18을 ‘광주사태’라고 칭하고 싶어도 당대의 ‘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끊임없이 갑론을박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일베 이용자들의 ‘공감’은 희생자나 시위대가 아닌 그들을 ‘막고 진압하는’ 법의 대행자인 경찰과 군인에게 향한다. 자신을 촛불집

59) http://www.ilbe.com/1758838894

회 당시 기동대원이라고 밝힌 이용자에게 많은 이들이 “너야 말로 진짜 영웅”이라며 찬사와 존경을 보냈고, ‘불법’집회를 막은 당시 의경들이야 말로 진짜 애국자라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5.18 유족들을 비하하던 이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전도된 공감은 일베 이용자들이 행위의 정당성을 ‘합법성’에 국한시켜 찾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2)’명불허전 김치년’

사례 8[60]는 일베에서 흔히 말하는 ‘중복’게시물이다. 이 게시물 캡쳐된 화면은 실상 강정마을 논란이 가장 증폭되던 시기인 2012년 3월에 작성된 트윗인데, 그것이 무려 7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 현재 일베에 다시 게시된 것이다. 글쓴이가 작성한 제목에서 드러나듯 “해군그냥없애면 안되나?”고 한 여성(이하 ‘가’)이 얼마나 커다란 비난을 받았을지 예상할 수 있다. ‘일베로’와 ‘민주화’, 그리고 ‘댓글’은 각각 472개, 187개, 331개였는데, 이것은 전체 게시물에 있어 각각의 비가 약 5:1:3인 것과 비교하면 평균을 상회하는 ‘민주화’를 받은 것이다. 그 이유는 ‘가’의 게시물이 실상 보수진영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른바 ‘고전’이기 때문으로, 일베 이용자들은 ‘가’를 “총알받이”로 써야 한다는 게시자의 극단적인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민주화’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은 ‘유머사이트’로서의 일베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다.

‘가’에 대한 비난은 대체로 그녀가 “무식”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즉, ‘가’의 주장의 “팩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섬나라 맞아 XX년아.. 위로 처막혔지 서쪽 남쪽 동쪽 다 바다지...”라는 댓글이 잘 드러내듯,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보나 “섬”이 맞다는 것이 일베 이용자들의 인식이다. 또한 “해병대도있고 특수부대도있”다는 주장 역시 무식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필연적으로 군필자가 많을

60) http://www.ilbe.com/382083333

수밖에 없는 일베에서 “해병대가 상륙작전 하려면 해군 상륙정에 올라타야”한다는 사실은 ‘지식’이 아닌 ‘상식’이며, ‘다’의 주장에 따라 해군을 없앤다면 자연스럽게 해병대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해군안에 또 특수부대가 있는건데” 그 사실조차 모르는 ‘가’는 심각한 ‘김치년’들의 “안보의식”을 표상한다. 이처럼 ‘가’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저격’ 중 상당수가 지식에 기반한다는 사실은 앞서 마녀사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글쓴이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은 그녀의 ‘무지’에서 비롯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댓글과 같다. “무식한년; 명불허전 김치년”

여기에 해군을 철폐하자는 ‘다’의 극단적인 주장은 그녀가 일베의 네 가지 증오축 중 하나인 ‘좌파’라는 요소가 추가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제 ‘가’는 단순히 “무식한 김치년”이 아니라 ‘종북좌빨’이기까지 한 ‘김치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화는 “촛불”로 더욱 구체화된다. “이러면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촛불좀비하지. 시X 논리도 없고 대가리 생각수준이 저정도 밖에 안돼니 광우병 촛불좀비 되는거야.”라는 댓글은 이러한 생각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진보를 자임하는 여성들은 “총알받이”나 심지어 북한(혹은 남한)군의 성욕을 해소하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 “저런년들 싸그리 모아서 벗겨논담에 우리 군으로보내서 XX받이 시켜야한다”는 반응은 이러한 생각의 극단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종종 ‘다’의 프로필사진을 보고 그마저도 거부하는 이가 있을 정도로 글쓴이에 대한 비난 수위는 끝없이 높아졌다.

수많은 일베 이용자들이 게시자에게 신상털이를 위한 ‘좌표’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게시자가 ‘좌표’를 제시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이름과 트위터 계정이 그대로 드러난 캡쳐화면을 통해 얻은 정보는 ‘다’를 찾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포탈줘”, “좌표좀 저 XX년이 뒤질라고 욕 X나 해주겠어”와 같은 표현들은 신상털기라는 의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분노가 개입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앞서 소개한 뒤르켐의 논의를 따르면 일베 이용자들이 보이는 이와 같은 격렬한 분노와 '가'의 신상을 털고야 말겠다는 다짐은 비윤리적인 만큼 충분히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폭력성은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일베의 도덕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 일베 이용자들은 '가'를 징벌함으로써 그녀에 의해 훼손된 국가정체성과 국민의 안보의식이라는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의례를 수행하게 된다.

(3)인간말종, '종북좌파'

"[스압] 일베 상주하는 좌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TXT"이라는 제목의 사례 9[61]는 좌파에 대한 혐오의 합정적 이유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글쓴이는 장문의 글에서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동시에 연방제 통일 주장과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연방제통일은 북한정권을 숙청시키지 않고 그 정권을 유지한 채로 연방을 이루는 통일"인데, 북한의 "절대 목적"이 적화통일인 한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들은 "리정희"와 같은 "종북주의자 내지는 간첩"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일소에 부치며 "강간죄를 철폐시키기 위해 억울하게 무고죄로 잡혀간 사람의 예를 하나 내세우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62]. 햇볕정책의 경우 "좋은 취지에서 나온걸 누가 모르"냐면서도, 공산주의 역시 '의도는 좋았다'며 조롱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쌀 보내줘봤자 북한정권이 다 해처먹"었을 뿐 아니라 "변한건 북한이 핵무장 국가

61) http://www.ilbe.com/2760445204
62) 국가보안법 철폐논쟁의 주요 논거는 '양심의 자유'이지 '무고'의 문제가 아니다. 글쓴이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사실호도와 논점비틀기는 일베에서 자주 보이는 행태이다.

가 됐다는"사실 뿐이다.

하지만 글쓴이가 진정으로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좌파'들의 이중성, 더 정확히는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좌파들의 위선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러한 글쓴이의 감정을 잘 보여준다.

> 너같은 상당수 양심없는 쓰레기들은 북한의 동포가 죽건 살건 나완 상관없다는 얄팍한 이기심을 부리거나
> 김정일의 요구를 들어줘야 평화가 온다는 위선적 평화론에 속고 있지.
> 이기심과 두려움에 빠진 좌파들은 김정일에게 달라와 쌀, 비료 온갖 물자를 주면서 그의 독재체제를 공고히 해줬지.
> 국제 사회에서 김정일의 범죄를 변호해 주면서 하수인 역할음 담당했지.
> 놀라운건 김정일의 사악한 범죄의 종범 역할을 자처하며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뻔뻔함 까지 보였지.
>
> (중략)
>
>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동포를 북괴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헌법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 그저 북한주민들 괴롭히는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돈 퍼주고 하는 짓이야 말로
> 선을 가장한 악마와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지.
>
> (중략)
>
> 솔직해지자.
> 너희들은 그냥 대가리도 좀비고 인간성도 못되처먹은 말종 새끼들이야.

글쓴이는 댓글창에서도 활발하게 이용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북한의 인권에 대한 그의 분노는 진심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노무현의 악행을 애써 외면하는 새끼들이야말로 북한에서 인권유린당하는 북한주민들 외면하는 인간쓰레기"임을 자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는데, 이는 보수 일각에서 '촛불'을 비난할 때마다 진보세력을 조롱할 때 쓰이는 어법과 동일한 논리이다. 예컨대 촛불집회가 그 동력을 거의 상실했을 시기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해 많은 보수 네티즌

들은 ‘박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왜 촛불을 들지 않느냐’며 2010년대 횡행하는 무차별적 종북호명을 예비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쓴이의 주장이 ‘전략적’이라거나 ‘위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가 누차 주장하건대, 북한 ‘동포’에게 무관심한 이들이 ‘인권’을 운운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성’이 나쁘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범죄자” 정권을 옹호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동조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총 1574개의 추천과 1047개의 댓글을 받는 등 일베 이용자들에게 격한 공감을 얻었다. “가슴속에 사무친 엉어리(응어리)가 좀 풀린다”, “정게가 망한뒤로 다섯손가락안에 들 깔끔한 정리다”, “어린게 기특허다”와 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다. 많은 일베 이용자들이 그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좌좀들은 한 두세줄 읽다가” 말 것이라는 등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이들의 지성이나 소통가능성을 단념하는 반응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지능’이 낮다는 비난은 여성에 대한 타자화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좌파에 대한 지칭, 특히 ‘좌파좀비’에서의 ‘좀비’가 ‘뇌 없이 맹목적으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괴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진보세력에게 역시 ‘무식’ 프레임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글쓴이에게는 “논리적”이라는 찬사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일베적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준다.

3)일베의 열광과 의례: 타자의 ‘이중성’에 대한 ‘저격’

(1)5.18수정주의, 혹은 광주’사태’의 진실

사례 10[63]은 일베에서 5.18수정담론이 가장 많이 언급되던 시기인 2013년 5월 초에 게시된 글이다. 게시자는 그간 5.18수정주의자로 악명이 높았던 ‘역사학도’ 김대

63) http://www.ilbe.com/1204564793

령이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책을 '자발적'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그는 김대령을 "잘못된 조국의 현대사를 바로잡고자 지난 수십년간 논객 활동을 해오셨던 바로 그분![64]"이라며 그를 지만원과 함께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투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총 1,195개의 추천과 104개의 비추천을 받은 이 게시물에 달린 댓글은 그간 '팩트'에 목말라하던 일베 이용자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이들의 평가에 따르면 '역사학도'는 "좌파자료들 쭉 검토하면서 모순점들(을) 파헤"친 사람으로써 "5.18주동자들의 행적과 5.18의 사건들을 맞춰"보면 5.18이 좌파들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다. 그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파에서 5.18의 진실을 알리려 했다간 "목숨걸어야"하는 사태가 빚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수 십년간 홀로 연구한 성과를 책으로 내놓는 것을 일베 이용자들은 커다란 희생과 용기로 이해했다. 쉽게 말해 그가 "총대 매고 출간"했다는 것이다. 자연히 이들은 이 저서가 당시 논란이었던 교과서 개정문제와 더불어 최대한 이슈가 되기를 희망했는데, 책을 구입하는 것은 개인적인 움직임일 뿐이라며 "동네 시립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할 것을 요청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러한 주장은 일베에서도 5.18을 담론투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이들이 스스로를 '소수자'라고 부르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일베 이용자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공식적인 국가담론에 있게 된 '배후'에는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곳곳에 숨어들어간 '좌파'들이 지식사회를 잠식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소수자 담론의 전회는 이들이 스스로의 주장을 '정의'롭다고

64) 문장부호는 일베는 물론이고 사이버 공간에 작성된 게시글 작성자의 연령대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잦은 느낌표(!)의 사용은 젊은 네티즌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일베 이용자들은 글쓰기 의례에서 나타나는 세대차이를 대단히 민감하게 느낀다.

여기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스스로를 소수자로 위치시키는 전략은 이른바 '역차별'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소수자화와 역차별론, 표현의 자유 등은 그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거짓만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일베 이용자들을 '청년'세대로 가정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가정이 많은 이들에게 일베가 놀라움의 대상이 된 이유이겠지만) 이들이 민주주의의 제도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의 대항담론이 만들어지는 전략을 살펴보건대, 이들이 공격하는 것을 '민주주의' 자체로 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문제를 단순화시킨 것이다. 오히려 일베 이용자들의 '소수자'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알바'등으로 쉽게 매도되는 일상의 불편함이 그들을 동세대 사이에서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현실을 '진정'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게시자의 의견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역사학도'를 지나치게 우대한다며 불편함을 표현했다. '박사'와 같은 수식어로 저자의 권위를 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이 게시물도 결국 '선동'이며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며 냉소를 표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러한 반응은 '모두가 병신'이라는 일베적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는 한편 일베적 합리주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일베적 합리주의란 일베 이용자들이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적'인 '좌파들'의 결정적인 단점, 다시 말해 '감정'적이고 '무비판'적이며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좀비'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이는 논증의 근거를 요구하는 상호작용 의례로 구체화되고 이용자들간의 친목까지도 금기시하는 일베의 문화를 특정짓는 바, 앞선 3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팩트'와 '합리'에의 강한 요구를 동반하게 된다. 김대령의 책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열광 역시, 5.18을 폭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는 기쁨에서 온 것이지만 반대로 이 열광 자체

가 '좌파좀비'와 같은 행태가 아닌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일베의 패러독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2)김치녀에 대한 색출과 징벌

사례 11[65]에서는 어떤 여성(이하 '나')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캡쳐하여 남자친구(이하 '다')를 향한 그녀의 언동을 "김치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약 10:1에 육박하는 '일베로' 대 '민주화'의 비율이 보여주듯 이 글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일베 게시물 평균인 5:1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855개의 '일베로'역시 평균인 256개를 세 배 이상 웃돌고 있으며, 댓글의 수 역시 평균보다 약 다섯 배나 많아 이 게시물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게시물에 달린 댓글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지를 폈다. 가장 먼저 '좌표'를 제시하라는 주장이 많았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좌표는 윗글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만큼이나 '나'의 신상을 털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이다. 여러 마녀사냥과 신상털기가 그러하듯 여기서도 일베 이용자들의 '정의로운 분노'를 직접 실행에 옮기는 '의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단 한 번도 본인의 게시글에 개입하지 않으며 '좌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글쓴이의 행위는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주작'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했다.

다음으로 자주 나온 댓글은 "지차로 남자 친구 태워주는건 안되는거냐?? 지도 없으면서"와 같이 무능한 여성이 남성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을 많이 담고 있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여성은 자신의 성을 무기로 남성을 '착취'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맨날 남녀평등 외치면서 결국은 성을 무리로 남자한데 삥뜯는거나 생각하는 놘들이 왜이리 많아"라는 댓글은 이러한 생각을 대변한다. 이렇듯 일베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남성착취설'은 여성을 향한 일베 이용자들의 커다란 불만 중

65) http://www.ilbe.com/748389060, 단 2014년 현재 원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다.

하나인데, 여성과 관련된 주제어 중 적지 않은 수가 데이트에서의 불평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은 곧바로 “김치년들은 차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명함”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베 이용자들, 나아가 남성들의 인식은 뿌리 깊은 것이다. 예컨대 “황금팔뚝시계-보석반지-현대녀성은 이 두가지가 구비치 못하면 무엇보다도 수치인 것이다”(김수진, 같은 책; 291, 재인용)라는 1928년 안석주의 사설은 ‘김치년’들을 비난하는 일베 이용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의외로 많은 이들이 비난한 대상은 ‘다’였다.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해당 여성이 저렇게 “김치짓”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여성의 ‘개념’문제도 있지만 남성이 지나치게 여성을 잘 못 “길들여서” 발생한 일이다. 이는 일베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인 삼일한, 즉 ‘여자는 3일에 한 번 패야 한다’는 말과 밀접한 이러한 인식이다. 바꿔 말하면 여성들의 안하무인적 행동에는 반드시 남성의 방관이나 비굴한 태도(즉, 보빨)가 있다는 일베 이용자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보빨’이란 여성의 성기를 애무한다는 표현이 여성을 표현이 여성을 지나치게 옹호하거나 우대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변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남성들을 흔히 ‘보빨러’라 부른다.

흔히 남초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베에서 일반인 남성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려진다는 점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베의 문화적 기원이 디시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일베 이용자들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밝히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은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역사에서 비롯된 면이 있으며,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지문화가 일베에서도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서이종, 2002), 이는 일베에서의 여성혐오를 설명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이다. ‘다’에 대한 비난이 격렬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보밍아웃’은 반드시 ‘보빨러’의 호응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이러한 ‘보밍’과 ‘보빨’이 만연하게 되면 일베 역시 앞선 디시의 본진들처럼 쇠퇴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바탕에 깔린 것이다. 물론 '보밍'은 '허세'에 가득 찬 여성의 '관심병'이라는 인식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기념일에 놀러가기로 해놓고 "남친이 자꾸 ㅂㅅ(병신) 호구처럼 형한테 차(를) 빌려"줬기 때문에 '나'가 화가 난 것도 이해가 간다는 의외의 주장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베의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 이러한 '의외성'은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일베 특유의 '팩트'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좌표'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터져나온 조작 의심과 '가'의 입장을 나름대로 추측하려는 시도는 일베 이용자들은 '좌좀'이 그러하듯 '감성팔이'에 쉽게 선동되지 않는다는 일베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글쓴이의 무식, 즉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자주 보였다. 자신들만의 사회방언을 사방에 흩뿌리는 일베 이용자들이 '나'를 향해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 자못 우스워보일 수도 있지만, 띄어쓰기 및 맞춤법에 대한 비난은 일베 이용자 상호간에도 자주 사용되는 비난이다. 일베에서는 그곳에서 사용되는 사회방언(운지, 민주화 등)이나 단축어(ㅇㅂ(일베), ㅈㄱㅈ(X고전)), 종결어미(盧)와 같은 일베적 예외표현을 제외한 일상표현을 표준어에 맞게 구사해야 한다. 일베 특유의 사회방언은 콜린스(콜린스, 같은 책:87)가 말한 '경계선'으로써, 일베 이용자와 일베 이용자 아닌 자를 구분해줄 수 있는 표지가 된다. 또한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정상교육을 받았다는 최소한의 표지이며, 이것은 각종 외계어 및 어법에 맞지 않는 국어생활을 하는 여성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호이다.

동시에 일베 특유의 지역감정도 드러났다. 많은 일베 '중독자'들은 "그냥가까운데라도"에 주목했다. 일베를 너무 자주 한 나머지 "'라도'밖에 안보인다"고 자조하면서도 여성이 가고자 하는 곳이 전라도 모처일 것이라거나, 여성이 고향이 전라도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여 높은 수위의 비난을 했다.

위 게시물에서 '가'는 이미 속된 것(the profane)으로 위치 지어졌다. 즉 '김치년'인 '가'의 속됨은 전염적이고, 이러한 전염성은 성스러운 것의 특징이기도 하기에 '성스러운 악'으로의 지위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나'의 성화(聖化)는 그녀를 '김치년'으로 특정하는데서 끝나지 않는다. 일베 이용자들은 일베에서 통용되는 또 다른 속된 표상인 전라도와 혼합시키는 의례를 수행하며 '성스러운 악'으로서의 '나'를 더욱 격리시켜야 할 타자로 만든다.

(3)강남좌파: 착한 사치와 나쁜 사치의 변증법

진보세력의 이중성은 일베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핵심 혹은 공격을 위한 최선의 무기이다. 사례 12[66]은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반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지난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크게 당황시킨 '의자'게시물의 원본이다. "레얼 강남스타일.jpg"라는 제목의 이 게시물은 문재인 후보의 TV광고에 불과 몇 초간 스쳐지나간 의자가 최소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의자임을 몇 장의 사진으로 '저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쓴 안경의 브랜드를 찾아내어 60만원이 넘는 제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저격'에서 글쓴이는 어떠한 텍스트도 본문에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되었고, 일베 이용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531개의 추천으로 응답했다. 초반의 몇 몇 댓글은 "돈 있는 사람이 그정도도 못 쓰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녀딸이 입은 패딩이 고가라며 비난한 좌파와 다를 것이 없다고 글쓴이의 의도를 폄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은 게시물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이 문재인 후보의 "서민코스프레"라는 점을 정확히 포착했다. "이게 서민적이냐", 혹은 "자기 수준에 맞게 사는건 뭐라 안"하지만 그런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이 "서민"임을 주

66) http://www.ilbe.com/427524853

장한다는 것이 이중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게시물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사례 13[67]에 대한 댓글은 문재인 혹은 좌파의 이중성 프레임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글쓴이는 “문 후보님이 앉으신 저 의자의 원조가 107만원짜리 모 사이트의 브랜드 없는 수입품이 아니라 세계적 가구업체 허먼밀러사의 400만원짜리 정품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문 후보가 앉은 의자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고 지적한다. 이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에서 이미 ‘문재인 의자’사건에 대한 일베의 정치적 입장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으따 우덜의 진정한 서민후보 문죄인후보가 그럴리가 있당가.... 저건 분명 쥐박이의 음모랑께!!!”

이 게시물에 대한 열광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930개의 추천 대 35개의 비추천은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이며, 댓글 역시 이 글에 대한 ‘역저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제 일베에서 문재인은 서민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면서도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자가 되었다. 댓글에서는 문 후보의 이중성은 물론이고 앞서 언급된 이 전 대통령 손녀의 패딩문제를 거론하며 문 후보 지지측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있다. 다음 댓글은 이러한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좌좀의 생각

이명박 손녀패딩 : 서민들은 10만원 패딩도 못 사는데 손녀
100만원 패딩입히는 이명박 Out

문재인 의자 : 능력있는 사람이 쓰는게 뭐가 문제? ㅉㅉ 수꼴들 자본주의 이해도 부족하고 열등감만 찌들었네

67) http://www.ilbe.com/427603577

V.일베 이용자들의 감정과 행위

1.신자유주의 체제의 불안과 공포

벡의 『위험사회』론은 불안의 사회학적 이론화를 위한 초창기 작업인 만큼이나 불안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현대사회에서 위험risk은 체계적으로 재생산되는 확률과 가능성의 문제,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모두에게 적용된다(벡, 1997). 특히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위험은 더더욱 공포스럽고도 이해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이는 불안을 더욱 부추겨 과거엔 정치적이지 않았던 것도 정치적 함의를 가지게 된다. 세넷은 후기 자본주의가 불안과 두려움dread에 의해 추동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불안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과 관련”있는 한편 “공포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알고있는 상황”(세넷, 같은 책: 68)이다.

이와 비슷하게 바우만도 인간이 가진 공포를 두 가지로 구분하며 일차원적인 본능적 공포와 이차원적 공포를 구분한다. 이 공포는 사회적-문화적으로 순환되는 파생적 공포이며, 자신이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느끼는 감각이다.(바우만, 2009) 이 지점에서 바우만의 공포 논의가 주는 함의는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감수성이 감정아비투스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위험사회적 신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는 2008년 촛불집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노동자가 아닌 중산층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나는 불안하다’는 주장이 근대성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것인 한편 스스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감각 자체가 계급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후기근대론이 일베 이용자들의 감정을 올바르게 성찰하기 위한 근

거가 되기엔 매우 불충분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국 신자유주의가 외환위기 직후에 확산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원은 박정희 정부 말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지주형, 2011)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후기근대'로 총칭되는 시기로 환원시킬 수 없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인터뷰한 이들이 청년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이 체화한 불안과 공포는 이미 취업과 생존과 직면한 이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유예된 감정이며 현재와 미래에 갖는 막연한 상(image)이라고 할 수 있다. 일베 이용자들에게서 보이는 불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른 불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투명한 미래가 첫 번째 원인이고, 그 경제적 위기와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친밀성의 영역이 붕괴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다.

1)불안

(1)취업과 안정적인 삶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그에 따른 생애주기의 예측불가능성은 일베 이용자들 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뷰에서 미래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며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야망보다는 사적 친밀성에 머무르게 된다. 이때 사적 친밀성은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솔직히 불안해요. 워낙에 취업난, 소리를 많이 듣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의 꿈이 그거에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게 굉장히 궁극적이라서, 궁극적인 목표라서, 취업난 이런 얘기들으면 좀 실감이 돼요.(E)

위의 인터뷰이가 자신의 삶에서 “돈을 많이 버는”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 이유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평범한 가정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져야 했다. 때문에 그는 여타 전문직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학과보다는 경영학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취업난’과 같은 이야기가 그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 불안감이 그로 하여금 더 안정지향적인 꿈을 갖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안정지향에는 유년시절 겪었던 외상적 기억 즉, 1997년 외환위기가 잠재되어 있었다.

많은 인터뷰이들이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IMF 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주, 자신들의 부모님이 겪은 고통이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동원되었다.

> 뭐 아버지가 IMF로 좀 힘드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평범한 가정에서 그니까 평범하다는게 중산층인 가정에서? 누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OO대학교 왔고(중략)
> 아빠 얘기 들으면 밥 한끼에 두 끼 먹고 진짜 불도 못때고 그런 얘기가 전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전혀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게 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막 거기 나와있는 사진들을 보거나 우리 아빠 얘기 생생한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더 느끼게 됐어요 아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커온 환경은 우리 집이 IMF로 인해서 좀 가난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 너무 복받은 환경에서 자랐구나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나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엄마가 저 먹고 싶은 건 진짜 다 사주셨거든요 진짜 햄버거 먹고싶으면 햄버거 사주고 뭐 아무튼 다 사주셨어요 진짜.(B)

> 어릴땐 굉장히 조용했어요. 조용했고, 그래서 그 동생이 여섯 살차이나는데 태어나고 제가 일곱 살되니까 동생이 태어났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바람은 안피웠지만, 그래도, 그때 imf 터지가지고 회사에서 짤렸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그상태로 한 십년동안 장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그다음에 용접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아졌거든요.(I)

그런데 이들의 불안은 정수남이 노동자들이 “빈민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정수남, 같은 글:67)에 시달린다는 지적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그 이유는 그가 주로 연구한 연구대상과 본 연구의 그것이 갖는 세대차, 달리말해 현 상황을 내면화하고 순응하는 전략이 다른데서 오는 차이 때문이다. 노동빈민에게 있어서 불안과 공포가 종종 저항과 비행위의 방식을 취하는 반면,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일베 이용자들이 속한 2010년대의 청년들은 진입 자체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켐퍼의 지적처럼 이러한 불안이 분노로 외사화될 때 사람들은 저항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수치심이나 무력감 등으로 내사화될 때는 순응이라는 행위전략을 선택한다.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순응과 노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기계발(혹은 최면)로 불안과 공포라는 ‘부정적’감정에서의 극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의 생활과 전망을 낙관하며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태도가 뒷받침되어 순응을 강화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노력이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뒷받침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이 ‘그 정도’라면 거기서 더 이상의 ‘과욕’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사는 것을 올바른 삶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잘 사는 게 마치, 김정은 김정일 처럼 살아야 잘 사는게 아니라. 그냥. 그니까 자기 신변에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자기가 뭘 잘 하면은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거 자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G)

따라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들의 염려는 “신변에 위험” 수준으로 격하되며, 사

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는 열패자들의 하소연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정치적 보수화와 매우 쉽게 연결되는데(푸레디, 2012)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마저도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되는 상황에서 불안은 사사화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개인화된 현실을 그대로 순응하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개인이 느끼는 불안을 친밀성의 영역을 통해 위로받고 해소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즉, 새로운 가족주의가 부상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2014년의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국면에서 '가족'문제가 유력 후보자들을 낙선시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단순한 '가부장적 전통의 귀환'도 아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불안의 사사화가 친밀성을 공적영역으로 소환했을 때, 사생활은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말한다 해서 '공론장'이 아니듯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한국 공론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친밀성의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친밀성의 약속과 여성의 배신

이와 관련하여 일베 이용자들의 '목표'가 가정을 꾸리는데 있다는 말에 주목해보자. 일루즈나 벡-게른샤임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로맨틱한 사랑은 점점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 우선 벡-게른샤임은 오늘날과 같이 '다소 삶이 편해진' 시대의 개인들은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나 사랑과 같은 개인적 친밀성을 통해 해소하게 된다. 때문에 현대인들은 "낭만적 사랑과 영원한 사랑의 결합이라는 이상"(벡, 벡-게른샤임, 1999: 99)에 점점 매달리게 되며 사랑은 이윽고 현대의 세속적 종교로 발돋움하게 된다. 하지만 사적 친밀성이 강렬해진 이유 자체가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없는 개인화된 사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종교는 언제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루즈는 그 이유가 "현대의 애정생활이 과학적 지식, 선택기술, 절차를 중시하는

규칙 등 감정의 미묘한 맥락을 걷어내는 장치로 대칭과 상호성의 합의를 지켜내도록 강제"(일루즈, 2013: 358)하는데서 온다고 옳게 지적한다. 이에 에로틱과 사랑을 떠받드는 의미질서들은 사랑의 합리화 과정 앞에 무너진다. 이러한 열정과 에로티시즘의 상실은 평등이 만들어내는 두 가지 문화적 감수성, 즉 불안함과 아이러니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불안함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에서의 불안함은, 각종 평등의 구호가 어떠한 행위도 오해의 여지를 살 수 있게 한다는데서 비롯된다. 즉 현대적 사랑의 불안은 "고통스러우며, 서로 행위를 주고받는 일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내야만 하는 어려움"(위의 책: 374)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일베 이용자들과 여성사이의 전선이 가시화된다. '남성'인 일베 이용자들은 후기근대적 불안과 순응의 피로를 로맨틱한 사랑의 이상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여성 일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녀'들은 사랑의 이상을 물질화하고 결혼을 통한 안정을 평등의 이름으로 파괴한다. 그러면서도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고, 병역의무로 대표되는 공동체적 책임을 회피하며 전혀 일상생활에 필요 없는 물건에 집착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통제불가능성은 남성들(특히 일베 이용자들)이 강하게 성토하는 부분이거니와[68], 이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과는 별개이다. 다음과 같은 30대 인터뷰이의 말을 들어보자. 그의 주장은 여성에 대한 혐오나 분개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방금 여성혐오얘기 나왔어요. 여성문제도 일베에서 막, 김치녀랄지 된장 보슬 이런얘기 많이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68) 30대 인터뷰이 J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이건 일베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다 그랬어. 그것도 근데, 그거를 남자들끼리, 아까 정치얘기할때 경상도사람들끼리 있을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꺼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단말이야.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남자들끼리도 뭐 무슨 년, 무슨 년, 보슬아치 막 별 얘기를 다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여성비하 다 했는데, 여자들이나 이렇게 있을때는 아유~ 못한다고. 오히려 쿨한 척. 페미니즘 뭐 이런 척. 다 그랬단말이야. 이거는 내가 대학교 다닐때도, 나도 그랬다고."

나는 이건, 예전의 질서를 계속 갖고싶어 하는데 능력은 안되는. 가부장, 남자로서 여자를 휘어잡고 이러고 싶은데 예전처럼. 능력이 안돼. 경제적인 능력도 안되고 다른 능력도 안돼. 지위도 없고. 사회, 우리 사회 과반수의 남자들은 일베가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진짜로. (J)

이러한 분개는 일정부분 불안을 완충시킬 수 있다고 믿어지던 유일한 가치인 사랑이 사실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의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이들은 사랑에 언제나 목말라하면서도 '아파'(일루즈, 2013; 1997)할 수밖에 없다. 불안한 현대에서 사랑이 보장하는 안정에 대한 배신감이 격렬한 것은 당연하다.

(3)관계의 도덕경제와 은폐된 지역감정

이에 비하면 호남 사람들에 대한 일베의 불안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거의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자신들에게는 "지역주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전라도 출신 친구들이 많다며 '홍어'라는 말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며 불만을 표시한다. 대구가 '통구이'나 '고담'이고 인천이 '마계'이듯이, 광주나 호남을 '홍어'라 부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씨는 그럼 지역감정이 없는거예요?

네 전 자신있어요 왜냐면, 제 진짜 친한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한 절반정도가 절반 좀 안되게 절반 좀 안되게가 이제 호남이에요 호남. 그리고

대학 친구?

아니 초등학교 중학생들 쭉 올라오던 애들 대학친구 대학에서도 지금 진짜 친하게 지내는 애들 중에 이제 뭐냐 두 명 두 명이 호남이고 한 사람은 부모만 호남이고 두 놈이 경상도 아무튼 섞여 있어요 다 우리는 그냥 걔네들도 나 일베하는 거 알고 맨날 내가 그래요 장난삼아서 이 홍어 새끼야 게임하다가 만약에 뒤에서 공격하면은 이 새끼 전라도 새끼라가지고 통수치네 막 이러고. 아 저는 진짜 지역차별주의적인 이런게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전혀 그런 의식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새끼한테는 제가 만약에 화염방사기로 게임에 쏴요 죽여요. 이 통구이 새끼 똑같이 됐네 이러면서 저는 진짜 막 이런 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쁜 드립이죠 진짜 나쁜 드립인데 제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고 경각심이 없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아 아 이러다가 이제는 익숙해져갖고 그냥 지들도 뭐 그러고 막.(H)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홍어'로 대표되는 사이버 지역주의의 어원이 일베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에 분개하기도 했다. '홍어택배'등 '패륜사이트'의 낙인으로 인해 "어디가서 일베한다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앞선 3장에서도 찾아봤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디시, 특히 야갤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그러한 하위문화를 이어받은 것에 불과한 일베가 과도하게 "욕을 먹"고 있다는 주장이다[69].

하지만 여전히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과 '홍통'(홍어가 뒤통수를 친다)은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지역감정이 없다고 단언한 이용자 조차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조심하게"된다며 호남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한 인터뷰이는 "제일 친했던 애들이 다 광주애들"이었다면서도 "다 척을 졌다"며 "이놈들 다 이런가(통수치나)" 생각했다는 경험담을 들려줬다. 그에 따르면 전라도 사람들은 "잘해줄 땐 되게 잘해주는데 너는 내 편이

69) 일베는 종종 야갤'성님들'이라는 조롱섞인 존칭을 붙인다. 이는 그들의 언어표현이나 행위양식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디시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이나, 사실상 야갤을 향해 '너희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내지는 '사실은 너희가 더하지 않느냐'는 항변이 내포되어있다. 참고로 최근의 야갤러들은 자신들과 일베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거나 (아니면)남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뒤끝"이 심해서 흔히 말하는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하게 전 애인이 광주 출신이었다고 밝힌 A는 그녀와 헤어진 과정에서 "진짜 까보전은 과학인가"고 생각했다가도 어머니의 설명을 통해 납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엄마도,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 전라도 사람들이 통수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전라도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정을 잘 주는데 거두는 것도 한 순간이라서, 그러면 이제 그 때 이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거다...(E)

그에 따르면 차라리 "서울이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충청도든, 전라도든 간에 지내다가 한 순간에 그냥 둘이 멀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를 잃는 거는 정말 힘들"고 하필이면 전 여자친구가 "광주"출신이었을 뿐이다. 때문에 그의 경험은 지역감정을 강화했다기보다는 차라리 사회적 관계에서의 쓴맛이고, 누구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불안을 처음으로 느끼게 한 것이었다. 이 불안은 누구를 만나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화시킨다. 기존의 지역주의는 개인의 경험을 특정한 방향으로 강화시킨다. 특히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 부르는 가족 간의 대화는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 아 생각 생각에서 생각에서는 이제, 교육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뭔가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건 좀 있어요.

아, 통수?

> 예 그건 있어요. 저희 저희 부모님도 저 결혼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얘기하시는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다 전라도는 안 된다.(중략)하여튼 그렇게 전라도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제 앞에서 대놓고 막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쟤네도 나쁜 애들은 아닌 건 다 알죠. 다 사람 사람 좋은데 그래서 전 통수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심하는거고 걔네들이 아 니 뒤통수 칠거지 이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조심을 하는거고 그냥 그거는

근데 그거는 어느 지방에서 태어난 애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 뭐 다 마찬가진데 그냥 그냥 이제 중점? 그냥 이제 그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조심해야지.

그럼 경상도 애들을 봤을 때는 어떤 조심을 해요?

경상도같은 경우는 저는 이건 되게 별개적인 얘긴데 경상도같은 경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친한 척 한다고 친한 건 아니다. (일동 웃음) 그건 그건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약간 그런게 있어요. 그니까 뒤통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냥 얌마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런 식으로 다가와도 결국에는 별로 친근하지 않아요. (H)

이처럼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불안은 차라리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은 마치 5.18이 호남사람들에게 있어 “자신이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없이 죽을 수 있다는 절대적 위기감”(최영진, 1999:143)을 느끼고 호남발 지역주의가 탄생한 것과는 정 반대의 맥락이다. 즉 절대적 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만들어 같은 지역민들 간의 연대와 단합으로 이어지는 대신, 일베에서는 일상에서의 맞닥뜨리는 위기와 배신감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자연상태’를 일상화시킨다. 이러한 불신은 보상받지 못하는 ‘친절함’에 대한 불안인 동시에 탈감정적 친절함이 본질적으로 동반하는 위선에 대한 피로증이 결합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2)북한: 절대적 혼란에 대한 공포

북한의 존재는 북한을 향한 한국인들의 마음 뿐 아니라 북한의 다양한 행태로 인해 자극된 공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태도는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지도부'와 '주민'을 구분하며 전자에 대해서는 '김돼지', '뽀글이'와 같은 비하표현을 써가며 혐오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한편, 그들이 지휘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공포는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 특히 위의 두 사건을 군복무 중에 겪은 이들은 이러한 공포를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느꼈다고 회상했다.

들어가서 제가 일병인가, 그 때쯤(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졌어요. 그 때 막 다 모아놓고, 뉴스봐라, 그래서 그 때 당직 사관이죠? 당직 사관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애들 불러 모아 놓고서, 뉴스 보게 했거든요. 그 때 터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죠. 뭐 그 뭐

이건 전쟁 직전이었으니까 거의.

예,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그 때 당시에 하사관도 되게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나이가 그 때 한 스물 네 살? 스물 세 살, 스물 네 살이었으니까, 몇 살 차이 안 났어요. 스물 여섯 살? 형이었는데, 좀 무서운 눈초리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견장차고, 그 감정을 안 드러낼려고 하는데 약간 걱정하는 게 조금씩 보여, 하여튼 그렇게 해서 터진 거 봤죠. 군대에 있을 때.(D)

하지만 이들의 공포와 불안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맥이 닿는 것 만은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감정은 차라리 연민과 한심함에 가까웠다. 많은 일베 이용자들이 북한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불쌍”하다고 대답했다. “망하는 배에 구멍 하나로 막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군함을 폭침시키거나 섬에 포격을 가하는 것 외에는 “믿을 것도 거의 없는 북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행보”를 “어린아이”같다고 표현했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이용자는 북한 주민들이 안되긴 했지만 그들이 “심적으로는 좀 빡구새끼들”같다며 “왜 안뒤집나”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곧이어 그는 87년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최근 근동지역의 자스민혁명 등을 예로 들었다. 즉 그가 보기에 부정한 정권을 뒤집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도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굶어 뒤질때까지” “내버려둬”야만 북한은 바뀔 수 있고, 햇볕정책 등 대북지원은 그 지원이 주민에게 가지도 않을뿐더러 설혹 가더라도 시민혁명을 지연시킬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무용하게 낭비하는 짓이 된다.

이 지점에서 대북지원과 북한에 대한 혐오와의 연결고리가 생기는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그렇게나 “퍼줬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어뢰와 포탄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신감은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보며 “아, 얘네들은 안되겠구나...이제 걔네들이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위협도 많이 하는구나”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군입대와 더불어 주적개념의 확립으로 이어지고 일베를 이용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때 이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목적은 “적화통일”이며, 북한 정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화전양면전술”

이나 “성서격동”과 같은 다양한 전술을 쓰는 “적”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어떤 이용자는 “뒤통수”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간첩이나 국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다고 믿어지는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이어졌다.

그런데 “종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조차도 대단히 혼란스러워 할 정도로 다양한 개념이 섞여있었다. 다음의 대화는 종북이라는 말이 가져온 혼돈의 일면을 보여준다.

촛불도 종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과격한 아니 뭐라그래 극단적인 생각 아닌가.

문재인도 종북인가요?

설마 그러겠어요?

노무현은?

하 참 어렵다 이거.(한숨) 저는 그 정도로 보지는 않아요. 진짜 이석기급. 그 정도는 돼야지.(F)

이와 비슷하게 다른 이용자는 “좌파와 종북” 개념이 너무 많이 섞여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좌판데 북한은 싫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70] 한편 비교적 정치관련 게시물을 자주 올린다는 이용자는 종북

70) 실제로 ‘보수 이데올로그’로 불리는 조갑제 등은 『종북백과사전』에서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들어왔다고 진단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친노계열 정치인과 범야권 정치인을 통틀어 종북으로 규정했다(조갑제닷컴 편집실, 2012). 하지만 대부분의

과 친북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 친북은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서 북한에 이제, 다양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물질적, 그리고 문화적 지원 및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이제 마음을 열자. 그런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김돼지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김대중 슨상님께서 좋아하시는 햇볕정책 있잖아요. 그거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종북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복하려는거죠. 이번에 이석기가 했던, 그 이제, 국가 전복 모의가 담긴 녹취파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게 종북이 아닐까 싶어요. 그니까 우리나라에 만약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그때 '앞뒤로 호응을 하겠습니다, 장군님~'하면서 그렇게 하는.(A)

곧이어 그는 "친북은 무식한거고 종북은 나쁜거"라고 규정했다. 즉 그가 보기에 친북은 "북한의 실상을 잘 모르고" "인도적"이라는 말에 "홀려서" "엄한 짓을 하는" 이들인 반면 종북세력은 "북한의 실상을 잘 알면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종북세력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이유가 대학시절 "이상하게 물이 든"채로 성장한 386세대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자기가 대학생때부터(교육받은 것이)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상을 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라고 진단했다. "아니야. 내가 신봉해왔던 사상이 그럴 수가 없어." 이러한 '진단'은 일베의 팩트 중심주의와 합리성주의와 연결되어 '주의'에 대한 배격으로 이어진다. 앞서 우리는 일베 이용자들이 선동에 대한 강렬한 혐오가 있음을 확인했다.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감정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인데도 사실상 누가 누군지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미 가망성이 없는 북

일베 이용자들은 그러한 분류에 분명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할아버지들"의 "수준낮은" "우좀"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냉소를 표시했다. 그래서인지 일베의 정치게시판에 일베의 하위문화와 전혀 동떨어진 글을 게시하는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행어'가 널리 사용된다. "아재, 고추서요?"

한을 “어리석은 사상”에 기대어 여전히 옹위한다는 점에서 냉소와 연결되기도 한다.

2.분노의 공적인 퇴출과 응어리진 분노

뒤르켐이 일찍이 『사회분업론』과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지적했듯이, 분노는 어디까지나 정의로운 것이되 이 정의로움의 준거는 도덕적 연대를 전제로 한다. 뒤르켐이 보기에 어떠한 범죄는 해당 사회의 집합감정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이때 감정은 “피상적으로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감정이요 어떤 성향” (뒤르켐, 2012;126)이다. 따라서 형벌이 인간의 열정, 특히 복수의 열정을 만족시키는 것인 한, 그것은 분노와 직결된다. 범죄자의 죄는 단순히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침범한 것은 (성스러운) 공적도덕이며, 이에 사람들은 모여서 그들의 분노를 공유하며 함께 분노한다. 즉, 이때의 분노는 공적 분노이며, 이윽고 범죄자는 “속죄”(뒤르켐, 같은 책;167)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공적인 분노는 속죄의례를 통해 성스러운 것의 회복을 선언하며, 그 의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집합흥분 속으로 밀어 넣는다.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한 감정이 폭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되”(뒤르켐, 같은 책;155)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처럼 폭력조차 “집단의 연대구조와 그들의 감정적 연계를 반영하는 도덕”(Collins, 1974;419)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속죄의 명목으로 가해진 고통은 이러한 공적인 분노의 표현, 즉 만장일치의 구체적인 증거일 뿐이다.”(뒤르켐, 1992;561)

한편 바바렛은 분노를 주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경험하는 감정으로 규정한다(바바렛, 같은 책). 특히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위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적인 힘에 의해 자신의 기회와 가치가 침해받았을 때 분노를

경험한다. 켐퍼와 콜린스는 사회적 관계의 핵심질서를 권력과 지위 관계로 설정하고 지위상실이 타인에 의해 발생할 경우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를 느끼며, 개인적 이유에서 발생하는 우울과 달리 분노는 투쟁에너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절에서 일베 이용자들이 느끼는 분노, 특히 앞서 4장에서 분석한 혐오 대상들에게서 느끼는 분노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분노란 정의에 대한 감각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부당하게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상실했을 경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들의 분노에는 그들이 느끼는 도덕 혹은 정의감을 드러내줄 것이다. 이들은 여성이, 전라도가, 좌파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빼앗아갔다고 느끼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노는 뒤르켐이 말한 것처럼 성스러운 것과 집합의식을 회복시키는 원천으로 기능하는가?

1)표현의 자유

일베 이용자들의 분노를 말하기 전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알아본다는 것은 어찌보면 전혀 맥락에 닿지 않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 연구자는 이들의 분노가 상당부분 자유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고, 자유롭기에 인터넷 상에서 분노를 마음껏 내뿜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유 중에서도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는데, 우선 서로 다른 인터뷰이들의 말을 살펴보자.

저는 저희 부모님이 죽었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욕하지 않을 거에요. 왜냐면 나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있지만, 그 사람은 우리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잘못됐건 그르건 간에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중략)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욕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권리는 없고 (그)권리를 욕해서도 안돼요. 아니 진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면 뭐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중략)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보고 욕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남한테 그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되죠. 남이 그렇게 못 느낀다고 해서 그걸 보고 막 패륜아 새끼 잡아 쳐 죽여야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에요.(B)

저희가 이렇게 노알라처럼 그렇게 풍자를 하면 고인모독이다라고 좌좀들은 평가를 하죠? 그런데 좌파들이 저번에 박근혜대통령이 출산하는 그림, 그 출산하니까 박정희대통령이 나오는 그림. 그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독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걸 풍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합성 소재로 쓰여서 하는건 고인모독이라고 하는건지 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똑같이 그냥 풍자라고 인정해 주든가, 아니면 자기네들도 그 그림을 똑같이 고인모독을 한다고 하든가.(A)

결국 우리나라 속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게 뻥으로든 진심이든 그것도 결국은 용인해야죠.

북한을 지지하는 것도?

그거는 이제, 다른 거는 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형식적으로 전시 상황이니까 휴전 상황이니까 좀 위험하죠. 그게 되게 애매해요. 민주주의라서 용인을 하자니, 위험하고. 그럼 반국가적으로 잡아야되냐 하면, 그것도 민주주의고. 여기서 좀 맹점이 생기는 거 같아요.(E)

우리는 앞선 III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강한 집착이 일베의 탄생과정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데 방금 살펴본 이용자들의 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자유에 대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다. 서동진이 저서의 제목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내듯 자기계발의 의지는 곧 '자유의 의지'인 바, 체계에 동화되는 논리가 억압이나 착취가 아닌 '자유의 실천'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서동진은 부르디외를 인용하며 "'개인의 자유의 소망 아래 세워진 이 경제 질서의 궁극적 토대는 사실상 실업, 불안정취업, 해고 위협에 의한 공포 등의 구조적 폭력'이라고 말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자유'의 소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구조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서동진, 2009:33)이라고 지적한다.

이 자유의 역설은 뒤르켐이 전체주의자라는 오해와 오명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것, 혹은 종교적인 것을 옹호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즉, '계약의 비계약적 전제'라는 유명한 금언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간은 사회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행위를 예상할 수 있고 서로가 계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기대와 예측가능성은 인간과 인간의 배후에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사회(바우만의 표현에 따르면 '고체근대'solid modernity)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들은 무제한적 자유가 가져다주는 무능과 공포로부터 기댈 만 한 준거점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유동하는 근대, 혹은 후기근대 사회에서는 자유의 이름으로 그 모든 기준과 규범이 해체되어 자유만이 남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한히 펼쳐진 가능성 아래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역설적인 무능상태에 빠지고 만다. 이는 일베 이용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 서동진이 우려한 것처럼 "자유를 향한 열망은 자유에의 환멸"(서동진, 같은 책:377)은 전염병처럼 퍼진 곳이 또한 일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한병철은 '피로사회'논의에서 피로사회란 결국 타자와 적이 사라지고 자유의 이름으로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때 한병철은 적이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를 헤겔적 논지에서 부정성이 사라진다고 보는 한편 에로스의 전제인 타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에서 개인에게 '달콤한' 나르시시즘만이 남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현대사회엔 더 이상 분노할 대상도, 연대할 대상도

없이 체계만이 살아남는다(한병철, 2012).

결국 일베 이용자들이 옹호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베 특유의 폭력성을 작동시키는 기제인 만큼이나 일베 이용자들이 느끼는 혼란의 핵심이며, 그들의 분노를 응어리지게 하는 원인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랑'이 선행하여 일베에서 활동하는지 혹은 일베를 옹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베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은 타인이 어떤 의견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분노해서는 안된다는 가치에 묶여 자신의 의견표명을 침묵당하게 되는 타자지향성의 또 다른 전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분노는 결국 표출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응어리, 혹은 내사화되며 "화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만다.

2)타자에 대한 분노와 전도된 피해자 의식

(1)여성을 향한 분노

많은 경우 인터뷰이들은 자신이 지역주의를 맹신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성을 혐오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스시녀'로 대표되듯 일본, 혹은 (대개 선진국인) 외국 여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념없는' 여성들은 언제 어디에나 있고, 단지 한국 여성들은 그런 경향이 심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없음'에 대한 불만은 결국 '부당함'에 대한 나름의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터뷰이들이 여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본다면 미시적 차원의 불만과 거시적 차원의 분개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미시적 불만이란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배신감, 더 정확히는 데이트 상황 및 연애에 있어서의 금전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남성만이 돈을 지출한다는 데 있었고, 거시적 분개는 여성부로 대표되는 제도적 특혜였다.

우선 인터뷰이들이 자신의 연애경험에서 ‘김치년’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살펴보자. E은 군 전역 직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진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나치게 ‘물욕’을 부리는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나이트클럽)가서 만났는데, 걔가 남자의 재력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복학 준비하는 학생이 돈이 어디있어요. 이제 그래서 복학하려고 옷장사를 이제, 지인 옷장사를 도와주면서, 장사 머리도 좀 배우고 이것 저것 했는데, 그 돈 그냥 홀라당 걔한테 쓴거죠. 걔도 좀 쓰긴 썼지만.

뭐하면서 (돈을)썼어요?

데이트하면서 쓰고. 뭐 어디 좋은거 먹으러 가고, 뭐 좋은데 가고 이러느라 썼죠. 그러... 그런데, 한 달 좀 남짓 잘 만나다가, 제 수중에 돈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사실 좀 재력있는 오빠가 좋다. 동갑내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랑 헤어지고 결국 차 있는 놈을 사귀더라구요.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아 진짜, 좆같애서 성공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결정적으로 속칭 말하는 보혐, 보혐. 그게 그때 좀 생겼죠. 아 진짜, 여자들 왜 이렇게 세상 남자들을 돈으로만 볼까.(A)

이처럼 그가 여자친구에게 기대한 친밀성은 상대방의 ‘속물성’으로 인해 완전히 배반당했다. 그리고 그 배반은 최후의 안식처로서의 사랑이라는 기대를 무너뜨리며, 그 배신감은 기존의 여성혐오 담론을 만나 ‘보혐’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김치녀에 대한 비난은 이것뿐이 아니다. 오히려 ‘개념없음’에 더 기대고 있으며 그 개념없음이란 개똥녀와 된장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의 추태에 대한 비난이다. 더욱이 “사람 간보고 그 소위 말하는 보슬짓”하며 남성의 감정과 재물을 “갈취”하는 ‘김치년’들의 행태는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남성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

린다.

물론 적지 않은 인터뷰이가 스스로는 “여성혐오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오히려 “그런게 너무 확장돼가지고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가 가끔 들어간다는 게 제가 싫어하는 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C는 ‘김치녀’들이 “불쌍”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즉, “장애인 수준으로 스스로 떨어지니까” 일베 등에서 일상화된 비하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가진 여성에 대한 분노는 상당했는데, 그는 “라도코드”와 “김치녀”문제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일단 전제를 깔아야 하는게, 이거는 라도코드와 다릅니다. 라도코드는 확실히 놀이 문화가 돼 버렸고, 이거(김치녀)는 놀이 문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자국민의 여성을 좀 공격할 수 있는, 자국민 여성을 폄하하는, 이런걸로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나 혹은 좀 아니면 이미 선진국이 된 일본이나, 제가 알기론 약간 자국민, 자국의 여성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걸 빌미를 제공한건 한국여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00%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게... 일단은 우리는 지금, 지텐? 맞나요? G20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했고, 일단 고학력이고, 엄청나게 고학력이고.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가서 성매매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거기서부터 에러죠. (중략) 다른 것 보다, 이미 김옥빈[71]이가 돈으로 이미 한국남자들을 치부했었고, 이OO[72]이 다른 거는 키. 재력이 아닌 외적인,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러면서 시작된게 김치녀라고 생각합니다. (C)

---

71) 여기서 김옥빈은 <박쥐>, <다세포소녀>등에 출연한 한국의 배우이다. 그는2006년 ‘남자친구와 ‘멋진 레스토랑을 갔는데 남자친구가 결제할 때 할인카드를 내밀면 분위기가 깨진다’는 발언을 하여 당시 한창 논란이 일던 된장녀 논란에 도매금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72) 이씨는 2009년 KBS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서 “키 180cm이하는 루저”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여성에 대한 분노는 개인적 차원에서 “여성이 존중받는 문화”를 뛰어넘어 이것이 제도화된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 제도화의 정점에 있는 것이 여성가족부인데, “세상에 좋은 여자는 여전히 많”다며 ‘김치녀’담론에 거부감을 표한 한 인터뷰이 마저도 여가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A는 현재 한국사회가 여전히 가부장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성부가 “군가산점”이나 “생리휴가”등에 있어 남성들을 차별하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가부를 포함한 여러 제도적 역차별 장치들이 기실 “여성 우월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확장된다. 때문에 남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국민 혈세 낭비해가면서 지네들 명품백”이나 사는 여성가족부는 ‘필요악’을 넘어 착취자이며 약탈자가 된다.

여성가족부의 만행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쫘르륵 나올텐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아마 많이 보실거예요.(F)

(2)호남과 북한을 향한 분노

한편 호남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앞선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베에서는 ‘오오미’, ‘슨상님’과 같은 서남방언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비하적으로 쓴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베 이용자들의 반응은 특기할 만하다. 대부분의 인터뷰이에게서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분노가 여러 차원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전라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한계적(marginal)인 태도를 유지했다. 환언하면, 일베 이용자들이 전라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는 거의 어김없이 ‘홍어’자체보다는 그와 관련된 다른 정치적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5.18과 관련된 화제가 나올 때만은 분노를 드러냈는데, 다음과 같은 진술을 들어보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25 유공자랑 광주민주화 열사랑 차별을 받고 있(는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유공자들은, 폐지를 줍고, 폐지를 줍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이제 폐지 끌고 막, 한달에 20만원씩도 못 받는, 기본 보조금에다가 뭐 이런식으로 살고. 그때 민주화열사 같은 경우는 뭐 대학 들어갈때부터 딱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특례다, 대학 들어갈 때부터 특례다, 뭐 그거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잘 사니까. 일단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20만원이 아니라 8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80인가? 하여튼 그 정도. 오히려 외적, 북한은 주적이라는 맥락에서, 외적과 싸운 사람은 지금 폐지를 줍고, 거기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를 줍고 다니고, 내란, 혹은 반란을 일으킨 놈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라는 맥락에서 이거는 100%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C)

이러한 C의 불만은 앞서 확인한 여성에 대한 분노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반응은 G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가 보기에 5.18유공자들은 여타 “국가유공자”에 비해 “혜택”을 과도하게 “많이 받고 있다”. 더욱이 “자기 권리”를 “얘기하고”다니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 아니 “악용”한다는 점에서, 5.18 유공자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무임승차자가 된다. E는 “홍어라고 까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 죄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조건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일베 이용자들은 전라도, 혹은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혐오나 분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거의 언제나 정치적 이슈를 언급하며 에둘러 비난했다.

한편 어떠한 인터뷰이도 5.18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낼지언정 ‘폭동’이라고 명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 이는 아마도 인터뷰에 앞서 인터뷰어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진심’을 은폐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는 일베의 5.18 수정주의는 일베 이용자들에게 5.18을 ‘폭동’

으로 정식화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차라리 일베의 5.18 수정주의 담론은 정설에 반하는 다양한 노이즈, 혹은 '팩트'를 제공하여 기존의 판단을 철회하고 혼란스럽게 할 뿐,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 5.18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스스로 '홍어택배'를 언급했다. '고인드립'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기도 한 '홍어택배'사건에 대한 인터뷰이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심지어 지역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가장 일베를 잘 대변한 A 조차 "그게 고소먹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홍어택배'의 원작자를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5.18은(그가 믿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는데도 (중략) 보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슬픔을 "웃음소재로 쓴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언했다. 이와 비슷하게 G도 "천안함 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사람이 참, 죽은 거 가지고는 이렇게 놀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기소된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고인드립'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그는 이 발언 직후 "일베 자체 내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희희낙락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겠지만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좋아지"기 때문에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지를 폈다. 즉, 자신이 '마음놓고' 일베를 할 수 없게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와 같은 '패륜적' 드립을 거부할 뿐이다.

한편 여성과 호남에 대한 혐오나 차별의식을 부인하던 이들조차, 북한과 좌파에 대한 혐오는 가감없이 드러냈다. 북한은 "주적"이고 "이적행위"를 하는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떤 타자에 대한 것보다 선명하고 뚜렷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공포의 '몸통'인 북한보다도 그들에게 봉사, 혹은 선동당하는 '좌좀'들에 대한 분노를 더 많이 드러냈다.

3)민주주의의 역설

일베 이용자들의 분노를 응어리지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표현의 자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자체에 있다. '민주화'라는 말이 표상하는 바 일베를 보며 느낀 많은 이들의 당혹감, 다시말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역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73]. 한 이용자는 촛불집회에 대한 감상을 묻는 질문에서 "너무 오버한다 싶은 느낌"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댄다는 거에 대한 감각이 뭔지 좀 궁금해요.

약간 좀 불편해요 근데 좀 보면은, 너무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나댄다라는 느낌? 이라고 해야되나. 그거보다는 약간, 좀 수위가 낮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나댄다보다 약간 낮다?

설친다도 아니고?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저 사람도 나도, 저 사람이나 나나 어차피 잘 모를텐데, 약간 나이대가 많으면 몰라도 또 저희 나이 때 있잖아요. 저희 나이대가 너무 저러면, 저 사람도 뭐 가만 보면 지켜봤던 결과 그렇게 막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저럴까.(F)

이 인터뷰이의 말 중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주목하자. '나대는' 행위가 가져다 주는 불편함은 각자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73) 혹자는 포스트 민주주의에 대해 논하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각한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막 잘 아는 사람”인 양 자기주장을 하는데서 오는 불만이다. 이는 전문가와 테크노크라트들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현대인들의 일면을 보여주는 한편, 정보화로 인해 수많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고 온 불편함이다.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말과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는 다른 주장일 개연성이 높아진다. 또한 타자지향적 주체들에게 있어 ‘나대는’ 행위는(그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을 지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과도한 감정소비를 요구하는 무례함과 “불편”함을 유발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모순은 앞서 다른 인터뷰이가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멍청한” 주장을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대는’ 이들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분노는 상당한 것이었다. 방금의 예와 같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이 촛불집회를 포함한 대중운동이었는데, 또 다른 이용자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울분을 표현했다.

> 진짜 아니 페이스북 sns 보면은 무슨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스무 살 된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세상에 대해서 뭘 알고 제가 민영화에 대해서 뭘 알고 알면 얼마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아 나 오늘 시위갔다 왔다’라고 글 싸지르니까 ‘아 오빠 멋있어’ 이런 새끼들도 있고 ‘형 진짜 멋있어요 저도 다음에 갈게요’. 무슨 이거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잘못된 예다 그리고 선동이 되는 거죠. (G)

위 발언에서 신념을 가진 “무식한 사람”에서 여성이 먼저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선동’이라는 말이다. 선동에 대한 증오는 일베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베 특유의 ‘팩트fact’ 중심

주의와 깊게 연관되어있다. “다시는 선동당하지 않겠다”는 일베 이용자들의 단호한 의지는 일베에서 찾을 수 있는 얼마 안되는 일관성이며, 이는 자신(과 일베가 제공하는 DB[74])의 이성 말고는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 ‘단호한 의지’는 엄기호가 『단속사회』 논의에서 지적한 것과 정확히 공명한다. 성소수자나 ‘전문가가 아닌’사람들이 자기주장, 아니 “존재를 알리는 행위 자체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 일베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즉 ‘홍어’와 ‘김치년’, ‘좌빨’과 같은 타자들은 “그저 ‘입닥치고’‘찌그러져’살아야 한다”(엄기호, 2014:154)는 것이다. 이로써 타인의 인정투쟁은 전면적으로 부정된다.

4)응어리진 분노와 타자지향성

하지만 이들의 분노는 여기에서 멈췄다. 아무리 ‘선동’당한 ‘김치녀’를 보더라도, “무슨 년, 무슨 년, 보슬아치”이라고 속으로 욕을 하다가도 “오히려 쿨한 척, 페미니즘 뭐 이런 척”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며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이다. 리즈먼의 표현을 빌면 이러한 태도는 ‘응어리진 분노’라 할 수 있다(리즈먼, 같은 책). 응어리진 분노는 타자지향적 성격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분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리즈먼은 195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산업화, 매스미디어의 확대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대도시의 상층 중간계급(upper middle class)의 성격유형과 유사한 이 성격은 현대사회의 변화(더 나아가 맥도널드화)가 국제적인 추세가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타자지향적 성격을

74) 아즈마 히로키는 오타쿠들이 무엇을 ‘리얼’이라고 느낀다고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문화를 분석한 저서에서 그들의 이야기 소비는 DB화되고 시뮬라크르화된 작은 이야기들의 변주라고 주장했다. 오타쿠가 이야기를 DB화 시켜 그것들간의 조합을 소비시킨다면, 일베 이용자들은 혐오대상에 대한 지식을 DB화 시켜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들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즈마 히로키, 2012 참고.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타인지향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점은 그들의 동시대인이 개인에게 있어서의 지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그들은 그가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가 친구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러한 원천은 물론 생활지침으로서 그것에 의존하는 습성이 어릴 때에 심어진다는 의미에서 '내면화'되어있다. 타인지향적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는 그 지침과 함께 바뀐다. 일생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추구하는 과정 자체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신호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 뿐이다.(같은 책:106)

학점에서 영어, 공모전 등과 같은 스펙을 쌓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자신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과는 달리 성실하고 건실한 시민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믿기에 한국은 "능력에 대한 행복은 보장을 해주는 사회"이고 "능력있는 사람이 못살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이 헛된 것일리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런데 집회와 시위를 하며 한국사회에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은 대중의 불만과 불안을 조장하고 선동하여 정의를 가장하지만 결국 "자기욕심" 때문에 거리에 나와 "떼"를 쓰는 무임승차자들이다. 즉 이들 "종북"과 "좌좀"들은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시위를 한 일밖에 한 일이 없는데도 그들이 응당 받아야 할 보상(예컨대 실업) 이상의 지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화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지점에서 특히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일베 이용자들의 감정은 '분노'라 하기에 적당하다. 뒤르켐을 따라 분노를 집단의식의 훼손과 그 회복과 관련된 감정이라고 할 때, 일베 이용자들이 분노하는 대상이 '무임승차자'라는 점에서 일베 이용자들이 신앙하는 가치는 노력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어떤 이들도 이러한 분노를 일상생활에서 표현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타자지향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일베 이용자들의 타자지향적 성격은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응어리지게

만든다. 이와 같은 분노의 내사화는 현대인들의 타자지향성과 함께 현대 감정장의 변화라는 구조적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분노를 가능케 하는 조건들은 오늘날 두 단계에 걸쳐 해체되었다. 먼저 바우만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의 공적인 것들이 사적인 것들에 의해 식민화되었고, 세계는 전대미문의 자유를 가져온 만큼이나 전대미문의 무능력을 낳았다(바우만, 2009). 이 '자유'는 우리가 종종 해방이라 믿어왔던 다양한 프로젝트 안에 배태되어있던 것들이다. 하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도덕, 혹은 제약이 없는 후기근대적 상황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 연대를 얻기보단 한없이 고독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줄 뿐이다. 근대의 초창기에 운동이 가능했던 것이 목전의 공포와 명백한 차별 등이 만들어내는 공적인 분노에 있었던 반면, 지금은 운동을 위한 감정적 자원들이 사라진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현대인들은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내사화하여 순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불안이 전염병처럼 퍼진 상황에서 연대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며, 이는 분노가 사라진 두 번째 조건과 연결된다. 세넷의 말처럼 후기근대의 주체들에게 애착이 사라지고 "개인이 삶을 서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녹아 사라'"(세넷, 같은 책;36)지면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내러티브를 아웃소싱하게 된다. 이 아웃소싱은 일루즈가 이야기하는 감정장, 즉 정신건강과 감정건강이 일차상품으로 유통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감정장이란 사회생활의 한 영역, 곧 국가, 학계, 각종 문화산업, 국가와 대학이 인가한 전문가 집단, 대규모 의약 및 대중문화 시장 등이 이리저리 교차함으로써 창출되는 모종의 작용-담론영역을 가리키며, 그 나름의 규칙과 대상과 경계를 갖고 있다."(일루즈, 2010: 125) 감정장에서는 감정생활이 관리와 조절이 필요하며 건강의 이상에 따라서 규제해야 한다는 탈감정주의적 인식을 공유한다. 바꿔말하면 감정장에서는 감정을 병리적인 것, 혹은 아동기의 트라우마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분노 또한 상담을 통해 치료되어야 할 감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어찌 보면 분노에 대한 경악[75](스미스, 같은 책)이라는 현대 감정장의 지배적 분위기야말로 일베를 문제적 공간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즉 오늘날 감정장에서 '사랑'이 중요해진만큼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시급하게 감정관리기술을 전수받고 치료받아야 하며 문명화되지 못한 '미개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거나, 감정자본(일루즈, 같은 책)이 부족한 하층계급임을 자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게 되었다. 요컨대 오늘날 주된 감정은 연인들 간의 미시적이며 로맨틱한 사랑이지, 계급간의 거시적이면서도 폭력적인 연대를 이끌어내는 분노가 아니다. 때문에 공공의 감정인 분노는 다른 모든 공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감정에 잠식당해 사실상 버려지고 최대한 은폐시켜야 할 감정이 된 것이다. 공공의 믿음이라는 든든한 뒷배경과 정당성을 가졌던 분노는 친밀성이 지배하는 사적인 세계로 부터(Sennet, 1974) 퇴출된 것이다. 친밀성의 영역이 공적 연대를 배태하지 못한다는 역설은 결국 공적 분노의 퇴출에 있으며, 이는 다시 모든 것을 '친절'하게 용인하며 각자의 자유임을 인정하는 타자지향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을 기억한다면 '퇴출'된 분노가 새롭게 찾은 터가 사이버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분노는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이들이 행간에 암시해 온 평범 내러티브를 통해 내사화되어 순응과 냉소를 낳는다. 다음 절에서는 우선 행위전략으로서의 순응과 그것을 가능케 하고 타인은 물론 자신의 인정투쟁조차 무화시키는 메커니즘인 평범 내러티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75) 스미스의 '분노에 대한 경악'과 근대 감정장의 유사성

3.순응과 평범 내러티브

1)친절함과 관용, 그리고 수치

야스다 고이치가 재특회 회원들을 인터뷰했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비슷하게, 일베 이용자들이 연구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 대단히 공손하고 친절했다. 일베가 보여주는 수위높은 폭력성과 대비되게도, 인터뷰를 하러 나온 이들의 표정과 말투는 '외교관'과 다를 바 없었다. 실제로 많은 인터뷰이들이 자신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무슨 일베하는 모든 사람이 전체가 나쁜 것 마냥 매도당하고 그런거 보면 (중략) 많이 억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꼈으면 (좋겠지만 이상한 쪽으로만) 매도당하는거 같아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밍'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C의 예에서 보듯이, 군대에서나 사용할 법 한 '다나까'체의 극존칭을 시종일관 써가며 대화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복장이 지나치게 "격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친절함과 예의는 '자유민주주의'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칙적으로는 용인할 수 없는 행위까지도 인정하는 '관용'을 표면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한다. "사회에 혼란을 조장한다"며 질색하던 집회나 시위조차도 법이 보장하는 한에서라면 얼마든지 행해도 상관없다, 혹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교통 막 막히잖아요. 그럼 피해입는거에요, 피해끼치는거에요. 시위하는건 좋은데 질서를 지키라 이거죠." 하지만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과 관용은 기실 대단히 혼종적인 종류의 감정으로, 매력적이고 예의바른 만큼 타인에게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감정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합성되고 꾸며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위선적인 형태의 호의"라고 할 수 있다.(메스트로비치, 같은 책: 111-2)

예컨대 친구들과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보니까 딱히

얘는 안 만나도 되겠다...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락 안하게 되고. 저는 뭐 원래 연락 안하거든요. 그럼 걔들도 연락안하면 그냥 그때는 아는 애가 되는거고"와 같은 언급이나(I), 기숙사에서 함께 숙식하던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다가도 "어차피 너를 밟아야지 내가 등수가 올라가니까, 좀, 약간, 친구보다는 동료같은 그런 느낌. 같이 숙식하는 그런 동료.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했어요."(G)라는 같은 '친구관'을 보더라도 친절함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주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서, "일베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호남출신자들)의 특징을 좀 읽어보면서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한 면으로써는 같은 지방출신이지만 얘도 뭐 크게 같은 지방이라서 크게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줄 필요는 없겠구나 생각도 해요"(E)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나지 않게' 행동하지만 전적인 신뢰를 주는 것에는 인색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친절함의 이중성은 일베 이용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회생활'의 패러독스이다. 예컨대 "사회 생활 개 꿀 팁 하나 알려준다. 성공의 지름길"[76]이라는 게시물을 살펴보자. 여기서 글쓴이는 "인사 잘하는 것"이야 말로 "조직생활에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게"해주는 지름길이라고 설파한다. 글쓴이는 또한 댓글에서도 인사하는 타이밍과 미소짓는 법과 같은 다양한 팁들을 알려주는데, 이 글을 읽은 많은 이용자들이 인사의 어려움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사실을 지적했다는 사실 때문에 비추천을 준 이들도 있었지만, 인사로 대표되는 친절함이 대외적인 자기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구차하고 성의가 무시될지라도 열심히 인사를 하지 않으면 '조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때문에 기분 나쁘고 굴욕적일지라도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일상적 소외라는 점

76) http://www.ilbe.com/2813107535

을 생각해보건대 일베 이용자들만이 겪는 고충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러한 '이중성'이 다름 아닌 호남 출신이나 여성, 좌파들 에게서 나타나는 특성과 기묘할 정도로 닮았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베에서는 좌파와 북한, 그리고 전라도는 사실상 하나라는 의미의 '홍북빨'이라고 불릴 만큼 동일시되고 있다. 사실상 일베의 혐오가 북한 자체보다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종북'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북'을 제외할 때, 여성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타자화 전략이 가동된다. 따라서 일베의 혐오대상은 '홍북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홍보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베 이용자들이 타자라고 지정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결국 '이해할 수 없'고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이중성이다. 환언하면 일베의 적으로 규정된 이들은 누구보다 탈감정적 자기절제에 능한 이들이며, 이는 다시 자신이 일상에서 언제나 행하고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피로와 수치심(shame)이 타자에게 투사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수치심은 스미스나 시어도어 켐퍼, 토머스 셰프 등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 순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바바렛, 2007; Turner, 2005; 스미스, 같은 책). 수치심은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인 바, 도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예컨대 스미스는 인간은 스스로의 마음 속에 있는 공정한 방관자(spectator)의 눈으로 스스로의 행위를 성찰하고 그것이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자부심(pride)을 느끼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수치심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자부심과 수치심이 사회통합의 원천이 되는 감정이라는 주장은 이후 쿨리에게 계승되어 셰프의 수치심 이론으로 발전된다. 그런데 셰프가 주장한 것처럼 수치심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행위자가 인지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수치심의 수치심은 수치심을 은폐하고 이는 수치심을 저가시적low- visibility이게 하고 쉽게 무시"(바바렛, 같은 책: 194)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할

수 있으며, 자주 합리화를 시도하게 된다. 한편 켐퍼는 수치심이 과도한 지위를 유발한 이가 누군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외사(extrojected)된 수치로, 이는 타인을 향해 화와 적대감의 형태로 나타나는 수치심이다. 외사된 수치심은 타인이 자신보다 과도하게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생기는 감정으로 계급저항과 같은 행위로 표출될 수 있다. 하지만 내사된 수치심은 스스로의 무능에서 비롯된 수치심으로써 거북함이나 창피함의 형태로 표출되며 순응과 회피의 행위전략으로 이어진다(정수남, 2009).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현대인들의 성격, 다시 말해 타자지향성이 수치심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일베 게시물과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일베에서 여성 등 혐오대상에 대해 자주 표출하는 느낌feeling이 화와 적대감이라는 점에서 일베 이용자들의 수치심은 명백히 외사된 수치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리즈먼의 논의를 고려해본다면 친절함의 논리에 의해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최대한 저가시적으로 억제해야 하는 난관에 빠지게 된다.

2)자기계발하는 일베

연구중에 만나본 대부분의 20대 일베 이용자들이 자기계발논리에 강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소 길지만 G의 말을 들어보자.

이제 복학하니까 대학교 2학년이더라구요. 2학년 됐는데, 뭐 여전히 정신못차리고 동기들 정신못차리고 뭐 여자 후배 꽁무니 쫓아다니기 바쁘고. 저는 그래도 그와중에 1학년때부터 동아리를 하던게 있어요. 경영 컨설팅 동아린데, 제가 이제 작년에 회장을 하고. 이제는 뭐 약간은 뒷전으로 물러났죠 거기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공모전에 많이 나갔어요. 공모전에 나가서 좀 수상경력도 두 번 만들어놓고, 나중에 서류 쓸때 도움이 될랑가 모르겠

는데 뭐 그런 것도 만들어놓고. 좀 공부하는 위주로 대학생활을 했어요 여태까지. 되짚어 보면. 자격증도 따고.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영어실력이 제가, 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나쁜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영어만 한건 아니예요. 좀 딴짓거리도 하고, 공모전도 여기저기 쿡쿡 찌르다가 떨어지는 거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 3학년이 어영부영 흘러간 기분이 들어서 되게 아까워요. 내가 뭐 토익점수를 만들어놓은 것도 없고...한심하게 보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요즘 학원다닌다며?

네. 오픽(OPIC)점수를 만들어야죠. 저의 목표는 이제 삼성 입사를 큰 목표로 잡고 하니까, 이제 오픽은 삼성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 있잖아요.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학원다니면서 바짝 하니까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구요. 문제는 SSAT를 어떻게 뚫느냔데...(A)

대기업 입사를 “큰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에 주목하자. 때문에 그는 최근 유행하는 ‘경영 컨설팅 동아리’에서 회장을 역임하고 여러 공모전과 수상경력, 자격증 등을 섭렵하고, 그것도 모자라 영어학원까지 다녀가며 자신의 ‘스펙’을 높이는데 전력을 쏟아부었다. 그는 스스로의 대학생활이 “아싸(아웃사이더)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를 유지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2학년 됐는데”(도) “여전히 정신못차리고” “여자 후배 꽁무니 쫓아다니기 바쁜” 한심한 이들과 동류로 취급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한심함’의 범주엔 “쉽게 편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이들도 포함됐다. 그가 보기에 올바른 삶이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삼성에 꼭 가지 않아도 좋다. 다만 어느 회사에 가서 커피를 타더라도 거기서 눈치있게 싹싹하게 행동하면 조금씩 밟아서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또래, 아 나는 꼭 대기업을 가야돼, 공기업을 가야돼, 그런 고집은 없어요 저한텐. 그냥 다만 흘러가는대로. 그게 좀 제 삶에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아요.(A)

이러한 경향은 다른 인터뷰이들에게서도 쉽게 발견되었는데, 이는 서동진이 지적한 자기계발하는 주체와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노동자들은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기보다는 '1인 기업'으로, 착취당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경영) 존재로 위치지으며 자기계발 논리를 내면화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자기경영과 기업가적 자아 개념을 통해 개인의 동기화 수준까지 침투한 것이다. 김종엽이 옳게 지적했듯이 이제 "개인이 자신을 기업으로 사고하게 되면 노동자라는 범주가 해체"되고 "스스로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범주도 사라"지며 "개인의 삶은 기업 자체인 자신에 대한 경영적 실천으로 환원"된다. 이처럼 자기계발 담론은 결국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체의 생산을 주체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는 재생산 메커니즘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진은 자기계발 담론이 주체에게 치부를 권한다거나 자신의 인생을 '도구적'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을 설파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자유'를 되찾으라"(서동진, 같은 책: 287)고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의 확산 이후 열풍처럼 불어닥친 자기계발에의 의지는 수동적인 피고용자, 다시말해 "부품과 나사라는 생각이 골수까지 박혀있는"(같은 책: 290)로서의 삶에서 탈피하여 자기 자신을 새롭게 문제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자유'는 대단히 역설적이다. 서동진의 지적처럼 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주체들은 "사회와 자신의 관계를 의식하고 또 끊임없이 주의 깊게 조정하는 주체"이며 "사회적 삶을 자기 내부에 각인"(같은 책: 291)시킴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체제에 구속시킨

다.

또한 방금 살펴본 일베 이용자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스스로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여기는 자기계발적 주체와는 약간의 유격이 느껴진다. 각종 공모전 수상경력과 자격증으로 대표되는 스펙은 기업가적 정신, 바꿔 말하면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와는 전혀 다른 일반적이고도 제도적인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분명 자기 '경영'으로서의 스펙쌓기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자'의 자기경영이 천편일률적인 경로의존성을 띤다는 점은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스스로'의 직무나 계획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계발담론은 노동개념을 삭제하고 공적인 것에 대한 상상력을 지웠으며, '자유'보다 '구속'을 요구하며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한다. 일베 이용자들에게서 보듯이, 이들은 '1인 기업가'도 아니고 '자기경영'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착취하면서도 그러한 대세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비난한다. 이 새로운 무능과 구속에의 집착은 자유의 이름으로 획일화를 만들어낸 후기 자본주의 체제의 진정한 힘이며, 이는 유동적 근대가 '유동화' 원리가 사람들을 공포로 경직시켜 상상력과 사유의 능력 자체를 빼앗아 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오찬호는 20대 대학생들을 연구한 저서에서 오늘날의 20대들을 차별에 찬성하는 이들이라고 단정한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의 논의는 일베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틀을 제공한다. 특히 자기계발 담론과 그 내면화가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은 패자에 대한 편견을 제공하며, 그러한 편견이 다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 20대를 '보수화'시킨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오찬호, 2013). 그러나 오찬호의 분석은 20대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담아내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88만원 세대'론 이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세대론에 제기되는 강력한 혐의, 다시 말해 '20대 개새끼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저항하지 않고 (별 쓸모없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스스로를 착취하는 즉자적이고도 우매한 20대들을 '비판'하며 '고발'

할 뿐 386세대들이 오늘날의 20대를 비웃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최근의 세대론이 공히 가지고 있는 20대들에 대한 냉소 가득한 비난(과 가끔 '진심'처럼 보이는 걱정)은 듣는 이들을 더욱 분개하게 할 뿐이다.

한 일베 이용자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386세대를 "부르주아 좌파"라고 단정하며 "자기 잘 살고 있으면서, 그 세상, 아니, 필터링 해야되나, 좆같다 그러고. 세상 좆같다 그러고 사는데, 아 자기는 그 체제 내에서 기득권이거든요. 그 체제 내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거는 뭐든 다 얻어먹고 사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세상 좆같다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며 비난했다(G). 그들이 보기에 '88만원 세대'론에서 말하듯 '짱돌을 들'라는 요구는 대단히 무례하면서도 무리한 요구이다. 이미 공포와 불안은 내사화된 이들 앞에서 '기득권'인 '386'세대들은 "존나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에게 80년대의 자신들처럼 저항하지 않느냐며 다그치는 무례한 존재들일 뿐이다.

그의 이런 반응은 인터뷰 당시 모든 반응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가 최선을 다해 '자기계발 담론'을 수행하는 '노력'이 부정되고 무시되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다. 386에 대한 일베 이용자들의 분노란 결국 자유의 폭력에 노출되어 사실상 어떠한 선택지도 놓여있지 않은 현실을 만들어낸 이들의 원죄에 대한 추궁이며, 이들의 순응은 순응 외에는 '답이 없'는 한국사회를 온몸으로 통찰한 결과이다.

이를 감정사회학적 견지에서 번역하자면,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선배세대의 그 같은 요구는 불안을 외사하여 분노를 표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의 감정적 분할통치 전략은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도 불가능하게 한다. 정수남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불안·공포는 노동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권력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상이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퇴직의 공포를 내사화시켜 적극적으로 체제에 순응한다. 그들은 자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멸시하는 식으로 철저한 구별짓기 전략을 구사할 뿐 아니라 연대가 아닌 개인적 야망을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자

들 간의 무한경쟁과 상호불신의 분위기를 낳는다"(정수남, 같은 글: 154).

하물며 타자지향적 성격으로 대표되는 중산층의 감정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라면 불안과 공포를 분노로 외사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아직 취업을 실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대'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변주되어 체제 순응적 삶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상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3)평범 내러티브의 탄생

이와 같은 체제 순응은 본고에서 '평범 내러티브'라 부르는 메커니즘을 통해 정당화된다. 일루즈는 『감정자본주의』에서 미국 감정장의 "고통 내러티브"가 '성 해방', '자아실현'과 같은 내러티브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목표들은 "내 문제상황을 결정하게 하며, 문제상황은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옛날 사건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 논리를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한데 묶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일루즈, 같은 책: 106)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하게 일베 이용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평범함의 범주로 끊임없이 수렴시키는 한편 자신이 겪은 삶의 특수성을 최대한 억압하여 '준비된 사회인'이라는 내러티브 목표로 재구성하고 있었고, 이는 다시 기묘한 방식으로 자기계발 논리와 합치된다.

E은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컸"다고 말하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유치원 다니고, 미술학원, 태권도학원"다니는 삶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는 "평범했다"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따기억을 회상해냈다. 2013년 현재 교육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16.5%가 집단따돌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77] 그의 경험은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77) <경향신문> 2013년 11월 28일, "학교폭력 비율 줄고 언어·사이버 폭력은 늘어"

평범의 범주로 쉽게 환원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왕따를 경험했던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이후 반이 재편성되었을 당시,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는 척”을 했을 때의 반응이었다. 그는 “환멸을 많이 느꼈”다면서도 “5-6학년이 이제 제가 반장, 부반장까지 했을 정도로 애들 사이에 중심으로 섞여들어갔”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자신은 평범함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때 나이토 아사오의 이지메 논의는 학교폭력 등의 경험이 순응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참조점을 제공한다. 그는 이지메의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자신이 그와 같은 경험을 ‘이겨냈다’는 방식으로 재구조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강인함의 전능’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강인해졌다고 자부하는 피해자는 현실의 비참함을 부정한다. 강인함의 전능을 구현하려면 현실의 비참한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해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중략) 약자의 입장에 놓여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체험을 가공함으로써 비참함을 부정하고 인내의 미학을 학습하면서 오로지 ‘처세’의 기능을 습득한다.”(나이토 아사오, 2012:115)

E이 경험한 집단따돌림은 일정부분 나이토가 지적한 ‘강인함의 전능’으로 변환됐다. 그는 초등학교 때의 고통이 분명 “트라우마”라면서도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상처 하나씩은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고통을 ‘평범’의 언어로 환원시켰다.

C의 경우는 그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왕따와 ‘마녀사냥’의 목격자로서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별명을 얻게 된 학우가 마녀사냥을 당한 과정에서 그는 특히 교사들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 예를 들어서 성교육이라든가. 남녀 간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느꼈던 건, 마녀사냥이라는 게 위아래가 없어요. 그냥 다 합심해서. 아니면 다 묵과하는. 그중에 좀 젊거나 깨어있는 선생님도 몇 분 계셨는데 그 분들조차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분명 봤을 텐데. 그 여자애가 우는 거 봤을 텐데. 지나가면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렇게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별명을 부르는 거 봤을 때 무슨 뜻인지도 알고. 모른다고 하면 그건, 약간 자질이 없다고... (C)

학교의 이러한 분위기는 그가 선생에게 기대했던 어른으로써의 '이상형'이 깨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어른들도 그냥 어린애처럼, 사실은 똑같"다는 실망은 그가 "일찍 철이 들게"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지금의 회사생활에서 "좋은 인간관계는 그대로 냅두고 나쁜 인간관계는 버리는 식으로 하나둘씩 잘라"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회사생활을 이어왔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시절 체득한 적절한 무관심 및 "동정은 하지 않"는 태도가 회사생활을 영위해 감에 있어서 하나의 전범이 된 것은 분명하다. C과 A이 내러티브화 하는 "배신의 경험과 기억"은 그들이 체화한 불신의 근원이다. 엄기호가 지적하듯이 이는 결국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권력을 쥔 자이건 그것에 대항하는 자이건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라는 경험적 지혜가 절대화"(엄기호, 같은 책: 177)되면 이윽고 소통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평범 내러티브는 하나의 차원을 추가한다. 위의 인터뷰이들이 말하듯이,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누구나' 겪는 것이고 따라서 특별히 말해질 이유도, 들려야 할 이유도 없다. 그저 내면으로 침잠하여 스스로 삭이면 그만이 되는 개인적 경험이 된다. 고통 내러티브가 친밀성의 영역을 공적인 공간으로 끌어낸다면, 평범 내러티브는 그마저도 억압한다. 이제 고통을 들어달라고 '징징'대는 것은 스스로가 약자임을 자임하는 꼴에 불과하고, 이 열등함은 자기경영에 실패한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이용자는 오늘날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이 학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특정하는 표상을 획득하는 의례로 전락한 상황

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흥미롭게도 조금 더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경영학과에 들어가기를 결정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취직이란 "창의적이지 않고" "사회 틀에 맞춰가야"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는 것이지 개인의 특출남은 물론이고 꿈을 향해 경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경영학과가 취업전선에서 가지는 특권적 지위, 즉 "준비하고 공부하고 스펙쌓"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외엔 별다른 꿈이 없는 그가 경영학과를 택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또래의 한 이용자도 자신의 인생이 "평범"했음을 누누이 밝혔는데, 그의 학창시절이 "고등학생 때도 계속 학생회하고 학생회장하고 반장을 다 했"으며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평범'이라는 범주로 자신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과도한 겸손이 아닐까.

이러한 평범 내러티브의 핵심은 고통 내러티브와 정반대의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감정장의 고통 내러티브가 "개인과 집단들이 점점 '인정'-내 고통에 대한 각종 제도들의 승인 및 배상-을 요구"(일루즈, 같은 책: 114)하게 된 맥락에서 나타났다면, 일베 이용자들의 평범 내러티브는 자신의 고통(예컨대 왕따)에 대한 승인이나 배상, 다시 말해 인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정을 요구하는 대신 자신의 고통은 물론 우월함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는 전략을 채택한다.

하지만 일베 이용자들이 구사하는 평범 내러티브가 왕따나 폭력의 경험, 어려웠던 유년시절 등 고통 내러티브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겪을건 다 겪어봤다'(been there don that)는 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평범함의 범주로 포함시킨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결국 '누구나 그 정도의 고통은 겪는다'는 평범 내러티브로 환원되며, 자신은 그 고통을 이겨낸 생존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문제는 이 평범 내러티브가 타인의 고통 내러티브를 억압한다는 점이다. 즉 평범 내러티브의 확산과 내

면화는 고통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나는 참아냈는데 너는 왜 떼를 쓰느냐'는 식의 억압을 정당화시켜주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비순환적 내러티브의 연계는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킨다는 점에서 인정체계의 작동 자체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개인은 각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 문제에 국가와 체계는 개입한 바 없으며 각자는 '노루가 사냥꾼 손을 벗어나는 것과 같이 새가 그물친자의 손을 벗어나는 것과 같이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 내러티브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평범함 자체가 하나의 유토피아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제 이들에게 "꿈"은 친밀성과 가족의 영역을 유지하여 계급을 재생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제 누구도 '상승'을 꿈꾸지 않는다.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고" "평화롭게, 사회에서 튀지는 않지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은 불가침의 유토피아가 된다. 하지만 그러한 절대가치를 위해서는 모든 가치를 물화시키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김치녀의 근성이나 '종특'은 미워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그러면"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금전적 바탕"이 있어야 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든,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든 결국 필요한 것은 오로지 돈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불안은 고개를 든다. 대학 입시에서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이었던 것은 차라리 애교일 만큼 청년실업은 살인적이고, 부모로부터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취업을 했다 한들 구조조정의 공포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맴돈다. 오늘날 한국을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을 이런 상황에, 일베 이용자들은 저항보다는 순응을 선택했다.

4)체제에 대한 순응

일베 이용자들의 순응은 취업이라는 생활-생존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본인을 언더그라운드 힙합신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뮤지션으로 소개한 한 인터뷰

이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만약 현재가 “전통 내지는 박통”시절이었다면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디스[78]나 욕설을 가사에 넣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제가 만약 그랬다면은 되게 이게 순응하는 사람으로 보일 거 같지만 저의 진짜 속마음을 얘기한다면은 그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랩을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거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만약에 그게 그렇게 반대당하고 탄압 당하는 거였다면 저는 안 했을 거에요.

인터뷰이의 이와 같은 반응은 특히 그가 ‘힙합’음악을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웠다. 그는 그의 삶에서 음악이 “2순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힙합음악의 전통이며 특수성인 다양한 문화가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탄압된다면 “자기만족식”으로 “걸리지 않게” 개인적으로 향유할 뿐 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사회적” 결정이란 법적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 저도 언제나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뭔가 좀 다른 의미일수도 있지만 예술인계나 이런 쪽은 특히나 좌쪽이 많죠. 그렇지만 저는 우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마인드는 그런거에요 약간 규정을 어긋나지 않는게 일단 중요하다. 그런 마인드 그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만약 그렇게 정해졌다 그러면 따라야죠.

사회적으로?

---

78) ‘디스’란 ‘disrespect’를 줄인 말로써 음악계, 특히 힙한 뮤지션들 간에 서로를 비난하는 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예 사회적으로.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법으로 정해졌다. 설령 말이 안 되는 법이더라도 일단 정해지면은 따르지 않으면은 사회가 이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중략)제 마인드가 계속 아까 말했듯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니까 따라야 되면 따르자 약간 저는 이런 마인드에요 그래서 얘가 얘기했듯이 제가 뭐 나름 모범생으로 지냈던 것도 '선생님이 말하면 지켜야 되니까 하는 얘기겠지' 하고 지키고. 어떤 면에선 되게 힙합의 마인드하고는 되게 거리가 멀죠.(H)

이처럼 이 H는 스스로가 '순응'적임을 인지하며 "힙합의 마인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설령 말이 안되는" 악법이라 하더라도 "따르지 않으면은 사회가...무너진다"는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규정을 어긋나지 않는게 일단 중요"하고 집회나 시위는 "나라가 절단이" 날 수도 있는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해석하며 반대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

4.냉소와 열광

1)냉소주의

앞서 우리는 일베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타자를 구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봤다. 그 과정에서 타자들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은 종종 분노로 표현된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분노는 테라피문화 혹은 힐링 담론으로 대표되는 감정장에 포섭되어 응어리지는 한편 평범 내러티브가 개입되어 분노와 고통 등의 자기주장을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분은 중산층의 감정 아비투스를 공유하는 중산층 청년들의 삶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여

기서 멈추게 된다면 서동진 등이 말하는 자기계발 담론의 확산과 그 실천에 대한 보론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 일베 이용자들은 청년 세대가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수 있다. 하지만 본고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일베에서의 열광과 그 감정동학이라는 점에서 일베를 '일베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놓쳐선 안된다. 또한 우리는 일베에서 여전히 폭력적인데다 분노를 품은 것처럼 보이는 격렬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일베 이용자들을 만약 청년세대의 불안과 공포를 공유하는 이들로 규정한다면 일베의 폭력성은 쉽게 이해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간극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앞선 게시물 분석에서 우리는 2010년대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 지배적인 감정적 분위기가 냉소라는 점을 언급했다. 슬로터다이크는 그의 저서 『냉소적 이성 비판』에서 현대사회에서 냉소주의는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는 현대문화 전반에 퍼진 냉소문화가 '계몽된 허위의식'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냉소주의는 이미 계몽에 의해 예비된 것이다. 일루즈가 페미니즘의 '성공'이 사랑의 합리화를 가져와 로맨틱한 유토피아를 파괴했다고 지적한 것처럼, 슬로터다이크는 계몽적 이성 자체가 오히려 궁극적인 회의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그런 의미에서 냉소주의는 차라리 계몽되어 남김없이 까발려진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이다.(슬로터다이크, 2005)

우리는 이미 일베 이용자들이 스스로를 근대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실이야 어떻든 그들은 명시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모든 판단에 앞서 근거와 계산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팩트'는 도덕과 가치를 앞세우는 '씹선비'들이 기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평소 민주화로 대표되는 성스러운 가치를 독점하고 있던 그들은 일베의 냉소적 공격 앞에 '부들부들' 떨며 속절없이 무너졌다. 때문에 일베 이용자

들은 ‘고인드립’에 대한 세간의 비난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비난 자체가 그들이 ‘고인드립’을 더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이유이고, 이 배후엔 그들의 분노 자체가 주는 통쾌함과 냉소가 스며들어있다.

일베의 냉소는 어떤 면에서 슈피겔오이렌을 닮았다. 즉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짓거리에 멋진 야유를 보낼 줄 아는 공격적 광대”이며 “몰매를 맞아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친 성향의 계몽주의자이다. 그는 고소해하는 마음을...세련된 계몽주의자들이 하듯이 교양 밑에 감추지 않는다...그가 증명하는 사실은 무례함을 대가로 해야만 우리가 진리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위의 책:268) 때문에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와 함께 일베의 양대 이데올로그로 불리던 성재기 전 남성연대 대표가 사망했을 때조차 그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다.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성씨의 행동이 “이성적인 어른으로써”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제가 뭐라고 말하기 뭐 할 정도로 또라이”라며 냉소했다. 생전에 고인이 남성의 권리를 위해 일베를 대신하여 ‘싸워’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상관없이, 성 전 대표에게 “애정은” 가지만 그가 “멍청”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웃음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다. 성씨의 사망이 알려진 이후 일베 게시판을 가득 메운 추모글 조차, 실은 진정한 추념의 의미라기보다는 “좋은 떡밥”에 편승하여 “일베 한 번 가보겠다고” 감정을 짜낸 글에 불과하다. 때문에 그들의 행위조차 “웃기다”. 오유를 비롯하여 ‘좌좀’들에게 “감성팔이”에 대한 비난을 한 일베에서 “멍청한”짓을 한 성재기를 영웅시하며 “감성팔이”를 ‘시전’하기 때문이다.

‘종북’에 의해 ‘선동’당한 이들은 이론의 여지도 없다. 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어차피 “자기 이권 챙기고자 하는 애들”이며 “똑같은 병신”인데 어느 “감성팔이”에 팔려 한 쪽을 열성적으로 지지한다. 정작 촛불을 들고 나가도 “제대로 이념을 갖고” 집회에 나간 것이 아니다. “이념이고 뭐고 자기 살기 퍽퍽하니까” 난동을 피울

뿐이다. ‘종북’도 마찬가지다. 그 “망해가는” 나라인 줄도 모르고 “갖은 아양을 다 떠”는 행태도 우습지만, 그렇게 통일이 되고 나서 “한 자리라도 얻을”지도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믿음은 “너무 웃긴”것이다.

선거 때마다 “몰표”를 주는 “홍어”도, “감성팔이”에 현혹되어 “무식”을 드러내는 ‘김치년’도 모두가 웃긴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들 타자가 결정적으로 결여하고 있는 것은 계몽된 이성 자체다. 슬로터다이크가 냉소적 이성을 비판하면서도 실상은 계몽적 이성을 비판하는 것처럼, 일베 이용자들의 자부심은 일베적 에토스의 진정한 핵인 냉소주의를 이끈다. 김홍중이 지적하는 것처럼 불가능함과 무의미함을 이해하는 지식인의 정조가 멜랑콜리라면(김홍중, 2009), 그 구체적인 행태는 냉소가 된다(주은우, 2010). 이것이 이른바 최근에 회자되는 ‘루저정서’인 바, 불안감과 냉소는 공적인 곳에서 어떠한 희망도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사적인 것으로 침몰할 때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베‘충’으로서의 충분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차가운 열광

일베 특유의 평등주의는 일베 내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도덕이 된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일베는 역설적이게도 사회주의적인 ‘공동체’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베를 ‘우리’로 지칭하지 않는 철저한 개인주의이다. 일베에서 유저들 간에 닉네임을 부르거나 존댓말을 쓰는 일은 금기시된다. ‘일간베스트’로 선정된 게시물 때문에 어떤 유저가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글에 ‘일베로’를 던져준 이들에게는 “강건너 불구경”일 뿐이다. 종종 ‘김치년’과 ‘홍어’, ‘좌빨’들을 향한 격렬한 분노가 표출되기도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을 향한 냉소와 비아냥이 지배적이고, 기실 그마저도 드립과 드립이 환유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이어지는

말장난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일베를 가득 채우는 드립과 클리셰는 의미를 창출해내는 담론이라기보다는 시시덕거림에 가깝고, 의례이기는 하나 표상을 만들어 '우리'를 낳지 못하는 불임(不姙)의 의례이다. '노알라'라는 표상이 '일베충'임을 드러내는 코드일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드립'에 머무르기에 현실적인 힘은 지극히 미약하다. 일베에서 자주 이야기되듯이 각종 어그로성 드립의 핵심은 성스러운 것에 대한 도전 자체라기보다는, 성스러운 것을 비꼬았을 때 그것을 숭상하는 '씹선비'들의 반응이 '우습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 반응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일베의 의례는 성공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비난은 징벌이기도 한 만큼 놀이와도 가깝다. '일베'에 등극하기 위한 치열한 경연agon은 '드립'의 강도를 심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거리를 무한에 가깝게 벌려놓았다. 관료제 하에서의 폭력이 피해자와 집행자 사이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마련한 것과는 판이하게, 애초에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공간은 모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맹폭을 가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낄 수 없게 한다. 동시에 일베 이용자들은 신상털이와 같은 열광적인 속죄의례의 과정에서도 팩트fact와 증거, 좌표를 요구한다.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이 수집되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례에의 요구에 대해 냉소한다. 겉으로 보는 일베는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끝없이 파편화되어있다. 심지어 일베의 코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미 일베에서 문화적으로 확정된 의례의 형식을 알고 있다면 '실제의' 감정이 요구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드립'을 치며 동화될 수도, 기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베와 그 동료들을 위한 충성심도 찾아보기 힘들며, 바로 그 점이 '일부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루저이되, 여전히 '감성팔이'에 속아 쉽게 선동당하는 '씹선비'와는 대비되는, 높은 감정자본을 지닌 '합리적'인 '병신'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병신'이 '씹선비'를 비난하는 가장 치명적

인 무기는 냉소인 바, '일게이'들이 날리는 차가운 웃음은 '선비'들이 믿고 있는 성스러운 것의 신화를 그 기반부터 무너뜨린다.

또한 합리성과 감정관리의 기술, 그리고 팩트로 무장한 '일게이'들이 보기에 이른바 소수자들의 요구는 한낱 '투정'에 불과하다. 자신이 아무에게 도움을 주지 않듯, 타인들 역시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파편화된 사회에서 믿을 것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뿐이다. 사회적인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이 극복할 일이기도 하거니와, 능력이 있다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를 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사회에 돌리며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화는 이들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요구에 굴복하여 애꿎은 자신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보호의 명목으로 기회의 평등이라는 원리를 내팽개쳤고, 이윽고 모든 것을 하향 평준화시킨다. 이처럼 일베의 도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담론이다. 이들이 하는 말에서 공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오직 개인만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의례적이지만 자세히 따져본다면 뒤르켐이 논한 바 있는 의례의 도덕적 조건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 위치한다. 즉 "(프랑스에서) 조국, 프랑스 혁명, 잔다르끄 등은 우리 모두에게 신성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려하지 않는다. ...여론은 민주주의, 진보라는 현실, 그리고 평등의 관념의 도덕적 우월성에 도전하는 것을 관용하지 않는다"(김종엽, 1998: 296 재인용)는 주장과는 정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일베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떡밥'과 '어그로'의 축제는 뒤르켐이 애써 외면하고자 했던 성스러운 것에 대한 훼손의 욕망을 기저에 깔고 있다.

거대서사가 사라진 오늘날 성스러운 것은 더 이상 단일한 무언가가 아니며 그마저도 주체들의 행위양식을 규제할 만 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예전같은 영향력을 행

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뒤르켐이 말하는 연대를 창출하는지도 의문을 남긴다. 콜린스가 지적했듯 상호작용에 있어 대면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뒤르켐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집합감정이 전기처럼 촉발되고 감정적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베의 특수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지점이다. 즉 온라인상에서 만큼은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보다도 열광적인 힘을 과시하는 일베는 '현실세계'에서 직접 대면한 적이 없기에 근본적으로 그들이 '일부심'등으로 연출하는 연대가 근본적으로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자는 일베가 보여주는 열광이 '연대를 만들어내지 않는 열광', 다시 말해 차가운 열광이라고 개념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차가운 열광은 타자에게 향하는 냉혹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열광은 '희생자'인 타자에게는 물론 동료이며 '가해자'인 '우리'에게조차 냉담한 열광이고, 일베라는 공간 자체는 공적이되 그 구성원들은 사적인 공간에, 즉 컴퓨터와 스마트폰 앞에 머물러있기에 가능한 열광이다. 일베와 피해자들 간의 감정적 거리가 먼 만큼이나, 같은 '일게이'들 역시 멀리 떨어져 서로의 '모인다는 사실'(뒤르켐, 1992)이 만들어내는 전류를 한데 모을 수 없고, 잠시나마 튄 전류조차 오랜 기간 지속되지 못한다.

일베는 개별성을 극대화시키고 구성원들간의 친목을 금지함으로써 완전경쟁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곳에 '모인' 이용자들은 따르드나 뒤르켐이 인지하는 군중이 아니라 "디지털 무리"이다. 한병철이 말하듯 디지털 무리는 "고립된 여러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일 뿐, "디지털 무리에서는 집단을 행동하는 군중으로 엮어줄 정신의 합일을 찾아볼 수 없다. 디지털 무리는 군중과는 반대로 내적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디지털 무리는 하나의 목소리로 표출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베의 열광은 "**소음**으로 느껴지는 것이다."(한병철, 2014: 129, 강조는 원저자) 때문에 일베 이용자들이 보이는 '일부심'은 기실 집단감정이 부여한 소속감이라기보다는 일베를 하는 '자

신'이 좌파들의 유언비어와 감성팔이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이성적 주체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자부심이다.

따라서 일베는 '공적인 감정'인 분노를 표출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모든 성스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기에 본질적으로 파편화되어있다. 이러한 파편화와 감정적 연대의 상실은 각종 '드립'과 '어그로'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중시하는 '팩트'가 상징하는바, 연대의 상실은 합리적 추론에의 요구가 이끄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처럼 일베에서의 차가운 열광이 보내는 조소가 80년대의 뜨거웠던 열광을 향한다는 사실은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80년 광주로 표상되듯, 민주주의를 성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지속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도리어 악화되었다.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시도의 와중에 인정이 전제되었던 과거의 다수는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낯선 경주를 해야만 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신자유주의는 민주화 이후 세대들에게 새로운 마키아벨리즘, 혹은 다위니즘을 내면화시키도록 강제했고, 이러한 일상적 불안정성은 최소한의 안락도 사치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민주화의 토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부모세대가 만들어낸 87년의 뜨거웠던 열광에 뜨거운 냉소로 화답하는 것이다.

VI.결론

1.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연구의 결과

본 논문에서 제기한 연구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일베에서 공유되는 감정은 무엇인가? 둘째, 일베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누구이며 기존의 혐오와 어떻게 다른가? 셋째, 일베를 일베라고 할 수 있는 특유의 멘탈리티는 무엇이고 그것은 한국사회와 어떤 점에서 공명하는가?

이 중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제 V장에서 일베 이용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일베를 꿰뚫는 감정이 분노나 혐오라기보다는 냉소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일베 이용자들이 현실에서,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보이는 냉소는 그들 스스로를 이성적 주체로 여긴다는 사실에서 연원하는 감정적 태도이다. 그러나 여전히 분노는 일베적 냉소를 예비하는 배후감정으로 작용한다. 이는 공적인 감정장에서 분노와 같은 '부정적'감정이 퇴출되고 친밀성, 혹은 친절함의 독재(Funiciello, 1994; Sennett, 1977)가 심화된 상황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일베 이용자들의 분노는 중간계급적 감정장의 압력에 따라 응어리져 있으며, 이렇게 응어리진 분노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뒷 마당'(Goffman, 1956; Sannicolas, 1997)에서 분출된다.

또한 분노는 불안과 공포가 외사된 형태라는 점에서 일베 이용자들의 분노는 사회적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안과 공포가 중첩되고 착종된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오늘날 유동화된 노동시장과 살인적인 취업경쟁 등은 (특히

청년세대인) 일베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계급재생산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켰다. 또한 친절함으로 대표되는 타자지향적 성격은 타자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는 만큼이나 그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을 심화시켰다. 그러한 분노와 배신감이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타자'는 여성이었고, 호남인들에 대한 혐오 역시 사실상 인간관계 자체의 불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자지향적 친절함은 그러한 행위를 내면화한 이들에게조차 위선이라는 사실이 각인되어있다는 점에서, 상호불신과 냉소는 불가피하다.(리즈먼, 같은 책)

사회경제적 불안과 중산계급 감정장의 확산은 불안을 내사화시켜 수치와 회피로 이끈다. 수치심의 특성상 인터뷰이들은 각자가 느끼는 수치를 드러내지 않거나 심지어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일베 이용자들이 느끼는 수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은 소외된 친절함으로 인한 수치이고, 다른 하나는 386세대로 대표되는 저항하는 청년상에 대한 수치심이다. 수치심은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할 때, 일베 이용자들이 청년상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은 자신들도 충분히 '자기계발'등을 통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감정이다. 역으로 '좌파'대학생들처럼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데모나 하는' '무식한' 이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이 이러한 수치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심은 회피 혹은 순응이라는 행위전략을 이끈다. 본 연구에서 만나본 일베 이용자들은 토익, 오픽, 사트 등으로 대표되는 '스펙'쌓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대단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베 이용자들은 자신의 순응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생애 내러티브 전략이 평범 내러티브였다. 즉, 위선적 친절함에 대한 환멸도, 폭력의 경험도, 자기계발도 누구나 겪는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범함의 내러티브는 타인의

고통과 그로 말미암은 인정투쟁을 억압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가족을 꾸리고 직장을 얻는 '평범'한 생애 기획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의 유토피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분노를 품고 일베라는 사이버공간에 '모인'이들은 집합적 열광을 경험하게 된다. 누구나 겪는 평범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열등한' 이들에게 비난과 냉소를 퍼붓는다. 시시각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댓글과 추천수는 많은 사람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살린다. 하지만 이때의 열광은 뒤르켐이 아룬타족에게서, 그리고 프랑스 제 3공화정에서 목격한 것과 같은 집합 도덕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는 열광의 '재료'가 냉소에 있기 때문이다. 냉소는 계몽적 이성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냉소는 세계의 탈주술화를 전제하기 때문에 함께 '모인' 열광이 회복할 '성스러운 것'을 재구축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디지털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당대의 집합의식이 지극히 미약해진 것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로써, 일베의 열광은 연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임의 열광, 즉 차가운 열광이다.

이처럼 일베가 보여주는 차가운 열광과 평범함의 내러티브는 냉소와 함께 일베적 멘탈리티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는 '일베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국사회의 오늘을 표상한다. 가장 열광적이고도 '뜨겁게' 회식을 하지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직장 상사와의 연대감이 생기지 않는 것도, 클럽에서 낯선 이와 사랑 없이 '원나잇'을 할 수 있는 것도 열광 자체가 주는 안도감이나 긴장해소를 기능적으로 즐길 뿐, 이때의 열광은 다음 날의 '평범함'을 유지하며 자기착취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열광이다. 이는 연대의 궁극적 목적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코로보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합흥분은 연대를 위한 도구였지만, 지금의 열광은 연대와 같은 거추장스러운 '부산물'은 제쳐두고 열광과 흥분 자체가 목적이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일베 이용자는 진심으로 '타자'들을 혐오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이 화내는 '우스운' 꼴을 구경하기 위해 위악을 행사하는 것이다.

평범 내러티브 역시 깊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 발전주의에 매몰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80년대가 되면...(누구나) 자가용 몰고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돼”[79]와 같은 언술은 기실 고통은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분담하는 것이기에 인내하라는 주문이다. 이들이 보기에 진짜 ‘애국자’이며 ‘산업역군’은 ‘데모’나 하며 ‘나대는’ 대신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자가용’을 타며 ‘내 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심화된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산업시대의 평범함은 쉽게 좌절되어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가 되고 만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수자들의 인정투쟁을 향한 국가와 언론의 요구는 ‘나대지’ 말고 ‘조용히’있으라는 요구 뿐이다. 2014년 총리후보로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했다는 발언은 평범 내러티브의 백미를 보여준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올바라야 한다. (동성애가) 좋으면 혼자서만 그러면 되지, 무슨 게이 퍼레이드 이런 걸 왜 하느냐.”[80]

IV장은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양적 분석을 통해 여성, 전라도, ‘종북좌파’로 지칭되는 진보세력 일반에 대한 타자화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LDA분석에 의한 패턴과의 일치, PMI분석에 따른 단어와의 연관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한편 사례분석을 통해 일베적 혐오의 구조와 열광적 의례를 살펴보았다. 일베에서의 공통적인 타자화 과정과 열광적인 ‘저격’, 다시 말해 ‘사실에 근거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고, 그 배후엔 일베 특유의 정의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세 타자들에게서 공히 나타나는 특성을 일베에서는 ‘홍·보·빨 일치설’이라 부른다. 호남, 여성, 진보좌파를 비하하는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이 신조어는 일

79)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80) <서울신문>, “문창극 ‘나라 망하려고 게이 퍼레이드’”, 2014년 6월 12일

베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처럼, 일베 이용자들이 말하는 '홍보빨'은 공통적으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며 '무식'하다. 확인되지 않은 낭설이나 유언비어를 믿고 그것을 사방에 퍼나르며 자신들만이 도덕적인 양 행세하고 있다. 막상 '팩트'앞에서는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뒤돌아서면 '감성팔이'에 또다시 현혹당해 선동당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베 이용자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나댄다'는 사실이다. 일베 이용자들이 보기에 '홍보빨'은 '소수자'라 쓰고 '엘리트'라 읽는 파렴치한 집단이다.

병역 등 국가와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실을 따먹는 '무임승차자'이며, 거기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착취자'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정부에 대한 비난은 물론이고, 총을 들이댄 것까지도 미화하며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 때문에 전라도는 대한민국의 일부가 아닌 '7시국' 혹은 '홍어국'이 되고, 한국 여성은 성적 매력은 물론 지성도 도덕도 없는 '김치녀'이기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고, 나라를 팔아먹는 '종북'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체제에 반대하는 모두로 환원된다.

또한 타자에 대한 일베의 공격이 '비이성'에 있다는 점은 일베 이용자들이 '산업화'와 '근대화'에 열광하는 모습의 일면을 보여준다. 근대 사회발전에 있어서 감정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전근대적"(바바렛, 2007:40)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때, 일베 이용자의 '합리성'에 대한 자부심은 '근대'를 체화한 '진정한' 시민으로 스스로를 주체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타자'들은 아직 근대화되지 못한 '미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베 이용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자부심'(혹은 '일부심')은 자신이 남성이고, 우파이며, 병역의 의무를 완수 또는 이행할 '1등 시민'이라는 점에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지식과 이성을 가진 시민적 주체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일베 이용자들은 '타자'들을 같은 사회 구

성원으로서 권리를 공유하는 이들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일베에서의 타자는 주체가 아닐 뿐 아니라 어떤 주체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네트의 주장은 멸시받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멸시와 모욕을 행하는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의 논의가 어디까지나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호네트의 논의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호네트는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모욕감과 죄책감,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가해자가 무시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 부재한다. 본고의 논의가 일베 이용자들의 폭력성이나 타자화 자체를 기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한,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과 그 혐오의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 만약 일베가 "'루저-백치-괴물'이 아니라 한국의 '평범한 시민'"[81]이라는 박권일의 지적이 맞다면 일베를 '이해'해야 할 필요는 충분하다.

또한 뒤르켐적 견지에서 열광은 '모인다는 사실'이 주는 감정적 에너지를 원료로 사회적인 것을 창발하고 이윽고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일베 역시 타자들을 향해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고, 신상털이 등의 의례를 통해 도덕적 회복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LDA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일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복'의 지향점이 공백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일베의 의미망 한가운데 '개발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적지 않은 논평자들이 일베를 국가주의자, 혹은 극우주의자들의 집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일베의 탈감정주의, 다시 말해 도덕적 준거점이 없거나 미약한 상황에서 기존의 분단체제를 과거회귀적으로 탈맥락화시켜 복원시켰을 뿐이다.

이를 메스트로비치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향수화된 전통과 내부지향적 과거로부

81) <시사in>, 2013년 6월 11일, "우리 안의 일베", 단 박권일의 네오라이트 논의 역시 일베를 과잉 일반화시키는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터 거의 항상 간접적이고 과시적이며 또 소비대상으로 간주되는 '죽은' 감정들을 이용한다.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변형된다."(메스트로비치, 같은 책: 134)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올바름'은 물론이고 대중매체에 의해 조작된 흥분, 예컨대 올림픽이나 예능프로그램은 더 잦아지고 의례화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심드렁해고 둔감해진다. 이 탈감정주의가 지배적인 사회는 우리가 종래 찾아볼 수 없었던 전체주의를 스케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민주주의가 급박한 위기에 처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친절한' 개인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이에 대해 분노하는 이들에 대해 냉소를 퍼붓는 방식의 새로운 전체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그 전체주의의 독재자가 쉽게 눈물을 짜낼 수 있는 '친절함'을 갖췄다면 그가 행하는 폭거는 냉소와 무기력에 의해 승인된다. 그리고 이 친절함과 냉소는 본 연구자가 일베 이용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 대부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던 태도이다.

탈감정사회 논의가 20세기 말미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이버 공간의 탈감정주의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맥도날드화될 뿐 아니라, 같은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들의 감정을 기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진술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의 집단감정은 타자지향성이 "야기하는 원심력적 성향을 억제하는 데 점점 더 무기력해진다. 왜냐하면" 타자지향성이 "더 많이 진척될 수록 원심력 경향은 더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집단감정 그 자체들도 약화되기 때문이다."(위의 책: 538) 따라서 신성한 것은 소멸/파편화되고, 도덕적 회복 역시 지난해진다. 여기에 '사회의 맥도널드화'테제가 오웰이 말했던 방식(기계화)으로 결합되어 감정은 이윽고 진정성을 결여한, 대량생산되어 틀에 박힌 탈감정주의로 흐르고 만다.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디오니소스적 단면인 감정은 재주술화라는 탈감정적 탈을 쓰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맞춰져'(tailored) 종국엔 기계화의 승리, 혹은 사회의 탈주술화를 완성시키게 된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복제되고 조작될 뿐이다.

2)연구의 시사점

2014년 4월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는 한국사회 전체에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사건이 일어난 진도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안산은 물론이고 전국에 세워진 임시분향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 사회적 고통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라 할 정도로 많은 면에서 씁쓸함을 던졌다. 탑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만을 남기고 구명보트에 누구보다 먼저 몸을 실은 선장과 항해사들은 국민적 공분(公憤)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은 무수한 오보와 뿐만 아니라 초동대처는 물론 침몰 이후의 수색·구조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능력한 대처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일베에서는 희생자 부모들에 대한 비아냥과 비판이 많았다. 많은 이들이 유족들에게 '이성'을 요구하고 정부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선동꾼'이 아니냐며 비판하며 유족들을 '유족충'이라 부르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유족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과는 대비되게도, 일베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도 유족들에 대한 공감보다는 현장에서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잠수를 하는 요원들과 대통령 등 정부측 인사들에게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일베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일부에서는 '공감불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러한 모습은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베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일베 이용자들은 5.18을 보며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원들과 군부에 더 깊게 공감하며 '시원하게' '사태'를 해결한 것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에게는 '선동'에 놀아나 '나대다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유가족들과 5.18유공자들에 대한 태도 역시

현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베 이용자들이 '공감'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감정사회학자들의 말처럼 문화적, 사회적 구성물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이 변했을 뿐이다. 일베 이용자들이 희생자들의 시신에 환호하고 유가족을 보상금이나 노리는 속물로 이해하며 대통령과 군인, 잠수부를 지지하는 것은 그들의 공감이 희생자보다는 가해자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이들의 공감대상은 '승리자'인 '가해자'에게 향한다는 것인데, 이는 5.18 수정주의에서 북한 특수부대 침투론이 상기시키는 것처럼 결국 민중은 스스로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다. 이는 촛불집회가 '선동'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이해와도 맥락을 같이하며, 이러한 생각은 일베 이용자들이 엘리트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처럼 일베 이용자들의 '전도된 공감'은 스스로의 위치를 패배자로 상정할 수 없는 상상력의 결여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상상력의 결여는 '약육강식'과 '우승열패'를 내면화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자기계발하는 주체(서동진, 2012)들인 '20대'의 멘탈리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 멘탈리티는, 평범함의 내러티브가 강고하게 작동하여 감정관리를 강요하고, 서로의 고통에 대한 무시를 종용하는 동질성에서 비롯된다. 일베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부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씨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작용'"(엄기호, 같은 책:212)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라는 신성한 것에 대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냉소와 희화를 보내는데 이르렀다. 일베에서의 '민주화'가 '비추천'이라는 말을 대신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민주화'에 대비되는 '산업화'의 대상에 5.18이나 진보세력, 그리고 여성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민주화가 일베로 대표되는 '보통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갔다고 느끼고 있음을 대변해준다. 그들이 보기에 자신과 같은 '보통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룩한 산업화의 결실은 여성 등의 전혀 생

경한 이들이 민주화의 이름으로 강탈해간 것이다.

이것이 일베를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적 징후로 보아야 하는 이유이지만 또한 같은 이유로 일베는 궁극적으로 무력하다. 민주주의의 자식들인 일게이들에게 독재와 산업화는 상상될 수 있을지언정 후기근대의 현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한 도달 불가능한 상상의 영역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그들은 가능성을 말하며 '나대는' 이들을 향해 냉소를 머금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를 하며 '제 앞가림'이나 잘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그것만이 후기근대적 인간의 최선이며 유일한 해법일지도 모른다.

일베는 그 본질이 유머사이트이다. 2010년대 이래로 인터넷에서의 유머는 '드립'이고 그것이 자주 '어그로'의 방법을 유지하는 한, 일베는 어디까지나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했듯 일베라는 사이트와 그 이용자들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후기근대적 조건들을 보여주는 창이다. 때문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이용자들을 사법처리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그것을 배태시킨 기저를 바라보지 않는 한, 그 비판은 '병신'들에게 여전히 '한물 간'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며 준엄하게 꾸짖는 '훈장질'일 뿐, 어떠한 의미도 없다. 때문에 일베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진짜 물음은 우리 모두가 소수자를 보며 일베와 똑같은 불안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아가 그러한 불편함을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을 동시에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에 있다.

부르디외가 지적했듯 패러디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코믹물은 "가슴을 탁 털어놓고 호탕하게 웃는…사람들에게도 커다란 만족감을 주며 다시 이것이 사회 세계를 전복시키고 실천과 예의범절을 뒤집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을 자유롭게"(부르디외, 2006: 77)해준다. 한국사회의 신화를 내동댕이치는 일베의 유머는 결국 그들이 진보의 과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가능성의 시대에 진보를 말하던 젊은이들은 불

가능의 시대에 냉소를 던진다. 이제 과거 민족주의나 개발독재, 심지어 민주주의조차 만족시키지 못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 시점인 것이다.

앞서 소개한 야스다 고이치는 재특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단체에 가입하거나 인터넷 활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재일 코리안 문제를 부각시키는 재특회의 다양한 활동에 '방법은 틀렸지만 내용은 공감한다'는 여론이 또한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일본 내의 한국인을 보며 '바퀴벌레'라고 욕설을 퍼붓지는 않지만 재일 코리안들이 일본사회에 '기생'하는 존재이며 근본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이들이라는 편견은 여전히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암묵적인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

각국의 극단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정의로운 선의의 피해자로 여기며, 가해자들은 일종의 엘리트 혹은 특권계층이라고 주장한다. 이때의 가해자들은 각각 재일코리안, 유태인 그리고 전라도 출신 사람들 혹은 여성일텐데, 일베 등에서 이들을 비난하는 주된 논리중 하나가 '특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선이 희미해진 시대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청산의 대상이 분명했고 착취의 주체가 명확했던 과거와는 달리 탈산업사회에서는 투쟁의 주체가 희미해진다. 민주주의가 심화되며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결국 착실히 세금을 내는 '보통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불안을 원료삼아 폭주하게 되고, 이 불안은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기존의 복지국가체제가 체제 내에 포섭되지 않은 이들에게 베풀었던 다양한 혜택을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거두어들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회의 가장 바깥 언저리에 위치하는 이들이 된다.

일베에서 비난하는 네 가지 소수집단 역시 다르지 않다. 페미니즘 담론의 현실적인 수행성이야 차치하더라도 여성부로 대표되는 권익기관이 존재하고, 10년에 걸쳐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으며, 2000년대 이후 진보정당은 원내에서 조금씩 목소리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명백히 여성의 사

회진출에 많은 장애가 존재하고, 호남 사람들 역시 수많은 편견에 시달리며,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다닌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편함을 참아내는 강박, 말하자면 체화된 감정관리이다. 즉 일베의 둔기가 향하는 곳이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향한 적대감은 타인과의 조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불편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서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혹쉴드는 이미 80년대에 감정노동자들이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말한 바 있다. 개인의 감정이 상품화되고 노동의 도구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실제 감정과 표현은 필연적으로 분리되고 소외된다. 그러나 노동자는 다양한 감정작업을 통해 표현과 감정을 동일시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진정성 없는 감정은 커다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혹쉴드, 2009)

하지만 현대인들의 감정작업은 직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적인 도덕이 사라지고 개인의 정서적 표현이 치료의 대상이 된 시대에, 개인들은 오히려 감정의 늪에 빠지고 만다. 빛바랜 '정치적 올바름'과 감정자본의 과시를 위해 '무대 뒤편'조차 없이 항상 감정관리상태를 유지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긴장 앞에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스스로를 기만하며 불편함의 근원인 소수자를 인정하는 일이다.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을 기만하며 내면에 들끓는 불편함을 다른 곳에서 표출하는 일이다. 전자의 문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야하는 결정적인 난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비밀을 공유하는 끈끈한 연대에 기반한 '무대 뒤편'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망이 파편화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의 대체재가 바로 일베이다. 술집, 뒷골목에서의 시시덕댐과 같이, 일베는 비천하고 비열한 '드립'들이 난무하는 사이버공간의 뒷골목이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일베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드립'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바를 조금만 더 자세히 고찰해본다면, ‘드립’은 화자의 발언이 애초에 계획되지 않았음을 전제한다. 만약 화자의 발언이 ‘드립’으로 규정된다면, ‘드립’이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대화상황의 리듬을 극대화하기 위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한 재치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이나 화자의 발언에서 책임성을 증발시킨다. 즉 자신이 한 말은 전혀 무게감이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개드립’에 불과했다는 변명이 가능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의 드립, 예컨대 지역드립이 일반화될 경우, 이것은 자주 자신이 ‘친’ 드립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일베는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보며 관찰했던 것과 같은, 타인의 관점에서 사유할 능력이 없고 판단도 할 수 없는 악의 평범성(아렌트, 2006)을 반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연구의 한계 및 제언

주지하듯 일베 현상은 2014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동안 한국사회에 급부상했다. 일베가 보여주는 문제의 심각성 혹은 선정성 때문인지 대다수는 비판적 논평이었고 진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또한 일베를 어떻게 위치지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통일되지 않았다. 때문에 일베에 대한 연구는 일베에 대한 포지셔닝은 물론 지금의 일베가 만들어지기까지 선행하는 한국 사이버 공간의 맥락부터 살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일베에 대한 초창기 연구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정교한 분석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지난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그러하듯 연구를 위한 인터뷰이를 모집하는데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크면 클수록 일베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조차 대단히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

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 본인 역시 일베를 '이해'하기 위해 논문을 작성한다면서도 '신상'이 털릴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항상 느끼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인터뷰이의 모집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은 케이스 수는 물론이고, 20-30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일베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일베충인 20대'라는 식의 '20대 개새끼론'의 아류로 오독될 가능성이 크다. 본문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일베 내에서도 정치게시판 이용자들에 대한 평가는 '아저씨'로 특징지을 수 있는 바,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의 세대분화 및 인지과정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이용자들 역시 본 연구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비록 일베 내에서조차 여성 일베 이용자들이 많은 비난을 받는다고는 하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공개적으로 '일밍아웃'을 한 여성들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여성 이용자들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쉬운 지점이다. 만약 본 연구의 테제가 옳다면, 여성 일베이용자들 역시 평범 내러티브를 내면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

한편 제 IV장의 말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베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분석하는데 있어 초보적인 수준의 한국어 분석툴을 사용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큰 한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경우 게시물의 양이 '개인'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단어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PMI분석을 정교하게 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추후 연구에서 고성능의 서버와 컴퓨터를 동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일베 이용자들의 탈감정적 태도를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실 SNS와 오유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적 네티즌, 혹은 '깨시민'(깨어있는 시민)들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히려 '깨시민'들

은 타자지향성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일베와 '깨시민'들에 대한 비교는 한국사회에서의 이념적 논쟁이 사실상 동일한 멘탈리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 학술지 논문

고경민, 송효진, 2010, "인터넷 확산과 민주주의의 관계: 사회경제적 지역적 요인별 비교연구." 국가전략 13권 제 3호,

구자순, 2008, "사이버공간에 대한 한국 사회학의 연구 동향-1997~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김경미, 2005, "인터넷이 집합행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0.1 (2006): 183-211.

김남국, 2004,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4 (2004): 341-362.

김성국, 2000, "신사회운동의 제도화와 급진화." 한국사회학 34.FAL (2000): 709-745.

김예란, 2010, 김예란. "인터넷 하위문화: 경험적, 감정적, 언어적 감각과 감수성." 한국인터넷 문화의 특성과 발전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8): 137-159.

김종엽, 2013, "분단체제와 87 년체제의 교차로에서." 창작과비평 41.3 (2013): 466-489.

모현주, 2008, "화려한 싱글과 된장녀:20, 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제7회『사회연구 학술상』장려상 수상논문, 사회연구 통권15호(2008년 1호), pp. 41~67

박혜경, 2012, “우울증의 ‘생의학적 의료화’ 형성 과정”, 『과학기술연구』 12(2), 117-157쪽.

서동진, 2012, “노동자 없는 노동의 세계”, 황해문화화 통권 제 77호

서이종, 2009,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변화와 사회이론적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26(4)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호

이길호, 2010, “우리는 디씨:사이버스페이스에서 증여, 전쟁, 권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승, 2008, “홀로코스트 부인-자유로운 표현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까지”,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발표집

이항우,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성; 한 온라인 토론그룹에서 벌어지는 ‘플레이밍(flaming)’에 대한 연구”,『정보와사회』 No.5, 한국정보사회학회

이현정, 2012, ‘1991~2002년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우울증 담론의 변화와 그 문화적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45(1), 43-88쪽

장우영, 2006, ″사이버공간의 이념과 정치 : 한국 사이버 공론장의 구조 변동″,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정수남, 2009, “계급분노와 저항의 감정적 동학-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_____, 2010, “노동자의 불안-공포와 행위의 감정동학:외환위기 이후 노동빈민에 관한 감정사회학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조용신, 2014, ″예외상태와 파시즘의 한국사회: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주은우, 2010,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사회의 역사 제 88집, 한국사회사학회

최문경, 김현희, 2000, ″과학기술의 발달과 여성-과학, 기술, 컴퓨터 그리고 사이버

공간", 정보와 사회 VOL.2 한국정보사회학회
최영진, 1999, "한국 지역주의 논의의 재검토: 정치적 정체성 개념과 동기부여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33집 제 2호
최태섭, 2012, "전자정의 (電子正義) 의 탄생." 황해문화
한윤형 , 2013, "한국 좌우파 투쟁의 흐름 속에서 '일베'를 바라보다: '일베'는 기존의 좌우파와 어떻게 닮았고, 또 다른가", 진보평론 2013년 가을(제 57호)

국내저서

김수진, 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소명출판
김종엽, 1998, 『연대와 열광:에밀 뒤르켐의 현대성 비판연구』 창작과 비평사
김홍중, 2009,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박가분, 2013,『일베의 사상;새로운 젊은 우파의 탄생』, 오월의 봄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서이종, 2002,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국사회』, 한울아카데미
엄기호, 2014, 『단속사회: 쉴 새 없이 접속하고 끊임없이 차단한다』, 창비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조갑제닷컴 편집실, 2012, 『종북 백과사전』, 조갑제닷컴 편집실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형성과 기원』, 책세상

번역서

뒤르켐, 1992,『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역, 민영사

_____, 2012,『사회분업론』, 민문홍 역, 아카넷

리즈먼, 1999, 고독한 군중,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메스트로비치, 2014, 『탈감정사회』, 박형신 역, 한울아카데미

바바렛, 2007,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박형신, 정수남 역, 일신사

바우만, 2009(A), 『액체근대』, 이일수 역, 강

바우만, 2009(B), 『유동하는 공포』, 함규진 역, 웅진씽크빅

벡,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벡·벡-게른샤임, 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배은경 외 역, 새물결

부르디외, 2006,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최종철 역, 새물결

쇼터, 2009,『정신의학의 역사: 광인의 수용소에서 프로작의 시대까지』, 바다출판사.

스미스·콜록, 2001,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조동기 역, 나남

슬로터다이크, 2005, 『냉소적 이성 비판.1』, 이진우, 박미애 역, 에코리브르

쉴링·멜러, 2013, 『사회학적 야망: 사회학의 꿈은 무엇이었고 사회학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박형신 역 한울아카데미

아렌트,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역, 한길사

아즈마 히로키, 2012, 『게임적 리얼리즘의 탄생: 오타쿠, 게임, 라이트노벨』, 장이지 역, 현실문화

알렉산더, 2007,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박선웅 역, 한울
야스다 고이치, 2013, 『거리로 나온 넷우익』, 김현욱 역, 후마니타스
일루즈, 2010,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역 돌베게
_____, 2013, 『사랑은 왜 아픈가:사랑의 사회학』, 김희상 역, 돌베개
_____, 2014,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박형신, 권오헌 역, 이학사
콜린스, 2009, 『사회적 삶의 에너지: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진수미 역, 한울아카데미
푸레디, 2012, 『공포정치: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박형신, 박형진 역, 이학사
한병철, 2012,『피로사회』, 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_____,2014, 『투명사회』,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호네트, 2011, 『인정투쟁』, 정성훈 이현재 역, 사월의 책
호위츠, 2013, 『불안의 시대: 역사 이전부터 불안은 존재했었다』, 이은 역, 중앙북스
혹쉴드, 2009, 『감정노동』 이가람 역 이매진

해외저널 및 저서

Ahmed, 2004, “Collective Feelings: Or, the Impressions Left by Others”, Theory, Culture & Society, Vol.21, No.2
Cohen-Almagor, 2011, “Fighting Hate and Bigotry on the Internet”, Policy & Internet, Vol.3, No.3
Collins, 1974, “Three faces of cruelty towards a comparative sociology of

violence", Theory and Society, Vol.1, No.4

De Rivera, J. 1992. "Emotional Climate: Social Structure and Emotional Dynamics.", *International Review of Studies on Emotion*. vol.2. ed. K.T. Strongman. Wiley.

Fogo-Schensul, 1997, "More Than a River in Egypt: Holocaust Denial, The Internet, and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Norms", *Gonzaga Law Review*

Funiciello, T. *Tyranny of kindness: Dismantling the welfare system to end poverty in America*. Atlantic Monthly Press, 1994.

Gerstenfeld et.al, 2003, "Hate Online: A Content Analysiss of Extremist Internet Site",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Vol.3, No.13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Dou bleday and Anchor Books, New York,

Illouz, E 1997, *Consuming the Romantic Utopia: Love and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y and Los Angeles, California

Kay and Meddaugh, 2009, "Hate Speech or Reasonable Racism?: The Other in Stormfront", *Journal of Media Ethics*

Kelman, 1973, "Violence without Moral Resistant:Reflections on the Dehumanization of Victims and Victimizers", Jurnal of Social Issues Vol.29 No.4

Levin, 2002, "Cyber Hate: A Legal and Historical Analysis of Extremists' Use of Computer Networks in Americ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45, No.6

Pardy, 2011, “Hate and otherness-Exploring emotion through a race riot”, *Emotion, Space and Society,* vol 4

Rydgren, J, 2007, "The Sociology of the Radical Right",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3: 241-262 (Volume publication date August 2007)

Sannicolas, Nikki. "Erving Goffman, dramaturgy, and on-line relationships." Cibersociology. Site (1997).

Sennett, 1974, The fall of public man, W.W.Norton & Company, New York

Turner. V 1969 The Ritual Process:Structure and Anti-Structure London; Aldine Publishing Company

뉴스 기사

<경향신문>, 2014년 5월 12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더러 ‘좀비’라고...50대 일베 이용자 입건“

<경향신문> 2013년 6월 4일, “[‘일베 현상’에서 한국 사회를 본다]“일탈적 놀이 즐기는 누리꾼일 뿐이냐, 세력화 가능한 여론집단이냐”

<시사in>, 2012년 11월 15일, “네오라이트의 탄생”

<SBS>, 2007년 4월 4일, “수술중 숨진 여중생 시신 놓고 유족-병원 충돌”

2014년 5월 16일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매경이코노미>, 2013년 8월 24일, "디시, 아고라 대신 일베, 뽐뿌가 대세"

<시사in>, 2013년 5월 21일

<경향신문>, 2013년 6월 2일 “[‘일베현상’에서 한국사회를 본다] 노골적인 진보·여성·외국인 혐오...‘진보 비방이 재미있어 보수 자처’”

<오마이뉴스>, 2013년 12월 15일, “보수 대학생단체 “‘안녕...’반박 대자보 공개모

집”
<경향신문> 2013년 11월 28일, “학교폭력 비율 줄고 언어·사이버 폭력은 늘어”
<서울신문>, “문창극 ‘나라 망하려고 게이 퍼레이드’”, 2014년 6월 12일
<시사in>, 2013년 6월 11일, “우리 안의 일베”

웹사이트

www.ilbe.com
www.todayhumor.co.kr
www.sookut.com
www.ilwar.com
http://cafe.naver.com/nonodemo
http://rigvedawiki.net/r1/wiki.php

Abstract

Dynamics of Cyber Hate and Effervescence; Focusing on the Korean Internet Community 'Ilbe-Joejangso'

This study analyzes Internet community ‘Ilbe-jeojangso(daily best bulletin garage, Ilbe)‘ which is recently giving a big shock to Korean society because of its particular violence and raunchiness.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part examines the context and history of the Internet culture ranging from ‘DCInside (DC)‘ to Ilbe (Chapter 3). The second part focuses on apprehending the structure of extreme hatred in Ilbe by analyzing the board of Ilbe (Chapter 4). The third part investigates how the users of Ilbe feel about the target of hatred in Ilbe by interviewing them, according to the sociology of emotion (Chapter 5).

Through this, the study insists that the seemingly frantic rituals of Ilbe is the result forged by the social reality where Ilbe users are situated. Because Ilbe stems out from the substructure of deepened neo liberalism process of Subjectification after 2000, with the deep-rooted tradition of system of divided state, regionalism, and patriarchy, Ilbe have a distinctiveness which can not be characterized by the previous models, while inheriting each branch of tradition. It means that it can not be reverted into the previous frames viewing Ilbe, such as fascism or radical right, and thus need of a new frame of

understanding is urging. At this point, sociology of emotions makes good use of a certain frame for apprehending and explaining Ilbe.

With prevailing anxiety and fear emerged from social mobility of modern society, Ilbe users are embraced by(fascinated by/bemused by) those emotional climate as well. At this point, fear and anxiety is introjected(=shame) or extrojected(=resentment) where most Ilbe users from the research project choosed introjecting. Shame as being introjected anxiety choose adaptation as an action strategy, where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the logic of adaptation is reinforced by the notion "narrative of normality" that can be summarized into a locution that 'everyone' is painful. This narrative of normality makes struggling for recognition impossible by simply generalizing pain of others as well as pain of one's own self, driving all the pain homogeneous. By situating those, who claim to be painful, on the place of defeat, "narrative of normality" is a mechanism that defenitely frustrates subjectification of other and regards adaptation as an absolute value, at the same time, substituting the pain of Ilbe users to mundane one, making it impossible to escape from structural anxiety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the fact that "other" in Ilbe, which is, typically left-winger, people of Jeolla-do, and women, are commonly assumed as exploiter or hypocrite. Resentment in a form of social sentiment occurs when power is unreasonably shorn of by other people. In this regard, the rage in Ilbe users is built on such logic of "sense of justice" in its own way. However, from 2000 when neo-liberalism rapidly spread out, ethical rage is

embraced by emotional field of middle-class which is typically represented by culture of therapy or healing discourse, deteriorated or 'kicked out' from the public space. Therefore, rage is suppressed rather then expressed out, withdrawing back into private space or expressed as a rage within cyberspace which became backstage of life before no one knows.

Rage in Ilbe is displayed as a form of cynicism. As a matter of fact, it is trully cynicism in that criticism and attack toward others are connected to ignorance at the end all the time. The core of Ilbetic mentality is emphasizing practical conformity, introjecting the narrative of normality recognized by the fact that one can do nothing. Thus Ilbe users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an avatar of defending system, forcing obligation to conform with truth of being so much normal, and to discourge every trial for subjectivation with struggling for recognition by revealing one's own suffering and pain.

And also, sympathy among Ilbe users can not face the sacrificed but is reverted toward assailant and agents of governmental violence. Thus this study claims that Ilbe or Ilbe users are the subjects that can only be created as a result of successfully operated system, rather than mutation of Korean society or fringer. In addition and above all, enthusiasm in Ilbe cannot bring about solidarity of Emile Durkheim in that it is intermediated to cynicism. This study suggest to conceptualize this kind of enthusiasm, which can not create solidarity, to 'cold effervescent' and this is the bare face of Korean society that Ilbe presents.

Keyword: Ilbe-jeojangso, DCinside, Sociology of Emotions, Efferverscence, Hate Speech, Radical Right, Narrative of Normality, Internet Community, Cyberspace

Student Number: 2012-22927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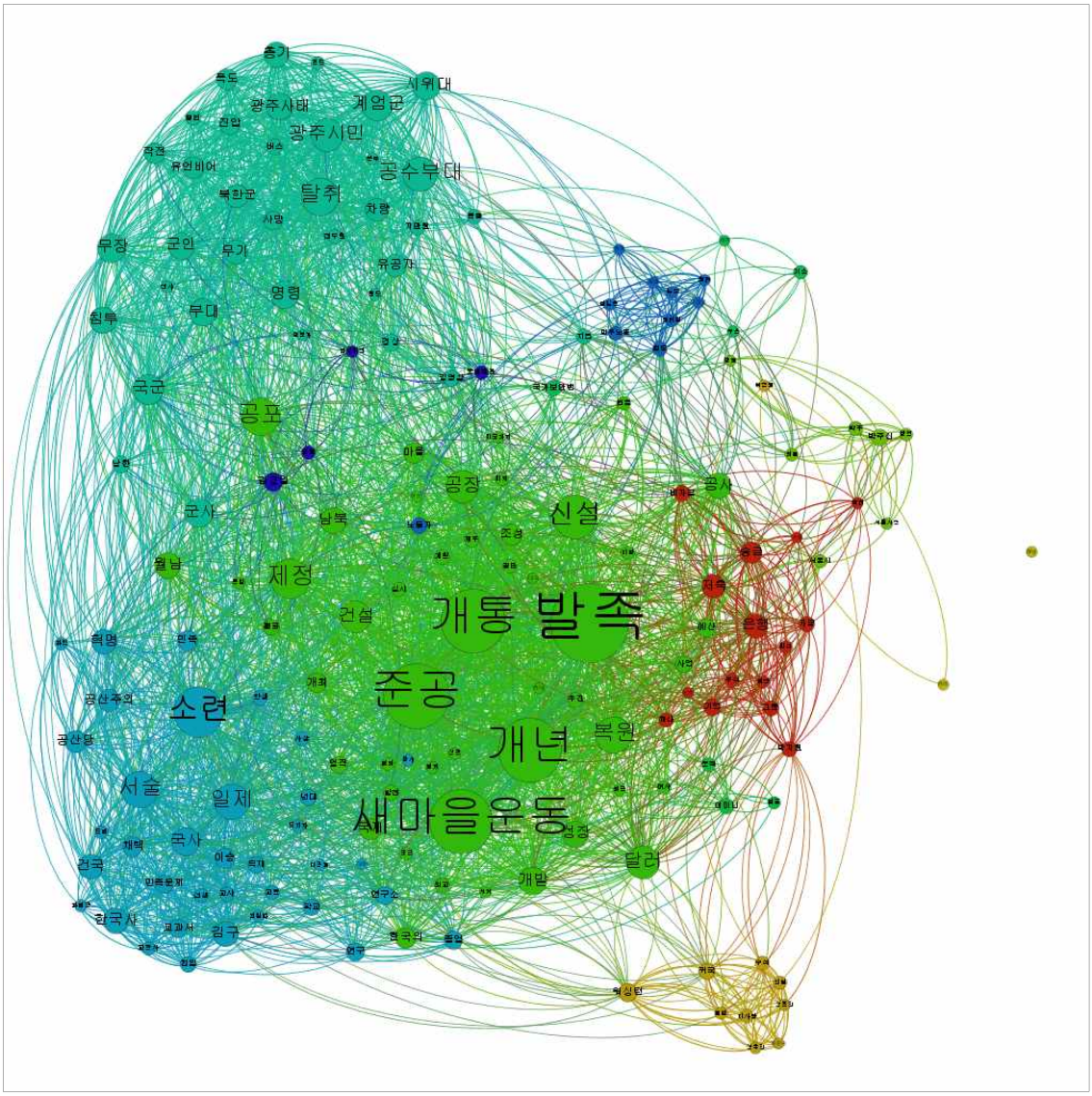
1.양적 분석 결과

토픽 번호	1	2	3	4	5	6	7	8	9	10
LDA score	**0.072763**	0.055035	0.043069	0.044245	0.054553	0.037058	0.049646	0.040371	0.049378	0.035398
순위	**1**	6	14	12	7	18	8	17	10	19
주제	정치	좌파 및 호남	독재 찬양	토건 중심 개발 주의	북한	부정부패	국제 정세 및 대북 관계	5.18	언론	사건 사고
1	**민주**	ㅋㅋㅋㅋㅋ	대통령	민국	북한	노무현	북한	광주	기사	경찰
2	**박근혜**	박정희	준공	대한	김대중	정부	민주화	방송	노조	토론
3	**후보**	전라	우리	단체	대통령	미국	시민	언론	파업	진중
4	**의원**	정보	당시	대강	종북	우리	폭동	뉴스	천안함	오늘
5	**새누리당**	속보	사람	서울	간첩	이명박	한국	당시	일보	사건
6	**대선**	보소	전두환	건설	통일	박지원	중국	운동	조선	제주
7	**문재인**	아따	민국	발표	주장	부산	경제	사람	보도	현장
8	**대통령**	진짜	국민	기공	활동	정권	세계	전두환	기자	발견
9	**안철수**	브금저장소	나라	대통령	이석기	당시	문제	광주사태	신문	철도노조
10	**대표**	요시	대한	보수	세력	회장	국가	북한군	선동	노예
11	**국민**	좌표	김대중	착공	통진당	은행	정책	북한	트위터	불법
12	**선거**	ㄷㄷㄷㄷㄷ	지역	계획	대표	인사	대통령	사실	내용	노동자
13	**통합**	성님	각하	개통	김정	장관	기업	우리	한겨레	전사
14	**국회**	ㅎㅎㅎㅎㅎ	대통령의	역대	국민	뇌물	개성	시위	발언	폭행
15	**당선**	스님	출신	개발	우리	자살	공단	증언	채널	민영화
16	**정치**	명불허전	독재	사업	탈북자	내정	우리나라	무기	인터넷	분신
17	**지지율**	문재	경상	전국	국가보안법	시절	전쟁	김대중	다음	택시
18	**국회의원**	좌좀들	시절	확정	연대	김병관	상황	시위대	네이버	코레
19	**발언**	성호	박대통령	새마을운동	정부	청와대	평화	경찰	미디어	연평해전
20	**야당**	오오미	호남	공장	사건	비자금	대화	사건	관련	해군기지

<부록 표 1>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의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045558	0.040574	**0.063958**	**0.066846**	0.03492	0.049558	0.043681	**0.060073**	**0.070637**	0.042678
11	16	**4**	**3**	20	9	13	**5**	**2**	15
보수 논객 및 토론	저격	**국정원**	**욕설 및 비하**	교육	지칭어	선동	**일베**	**이념**	서울시
변희재	안철수	**국정**	**새끼**	전교조	우리	윤창중	**일베**	**사람**	시장
교수	검찰	**진짜**	**대한**	오늘	여성	선동	**생각**	**박원순**	서울시
논문	수사	**병신**	**민국**	사람	대통령	사이트	**국민**	**지원**	사업
표절	사건	**채동욱**	**교과서**	생각	미국	좌좀들	**우리**	**정치**	서울
황장수	서울대	**경찰**	**씨발**	역사	시간	청와대	**보수**	**문제**	세금
애국	대학	**검사**	**빨갱이**	이승	집회	여자	**댓글**	**사회**	예산
트윗	의혹	**사실**	**개새끼**	교육	사진	영화	**인터넷**	**대한**	정부
보수	조국	**의혹**	**니들**	전쟁	촛불	한국	**좌좀**	**민국**	무상
강용석	박원순	**혐의**	**시발**	학생	친구	박근혜	**팩트**	**자신**	시민
변땅크	문제	**주장**	**지랄**	교사	시위	결혼	**산업**	**자기**	서울시장
저격	연구	**증거**	**홍어**	친일파	인증	사람	**게이**	**좌파**	문제
이준석	아들	**조사**	**생각**	학교	게이	아버지	**오유**	**자유**	기업
논객	내용	**직원**	**지들**	친일	투표	남편	**분탕**	**이유**	회사
어제	공개	**민주**	**자기**	교학사	전화	성추행	**자료**	**민주주의**	운영
일침	확인	**내용**	**박근혜**	운동	시작	방문	**게시판**	**사실**	복지
표창	박사	**댓글**	**민좆당**	독립	마음	대변인	**일게이들**	**사람들**	공무원
패널	병역	**원장**	**개소리**	공산주의	사람들	시간	**정치**	**보수**	의료
정미홍	학교	**공개**	**전라**	자유	가카	가족	**생각**	**나라**	단체
우파	사진	**판결**	**쓰레기**	좌파	이야기	남자	**우파**	**인간**	주식
박종진	검증	**총장**	**인간**	건국	ㅠㅠ	자신	**좌빨**	**이야기**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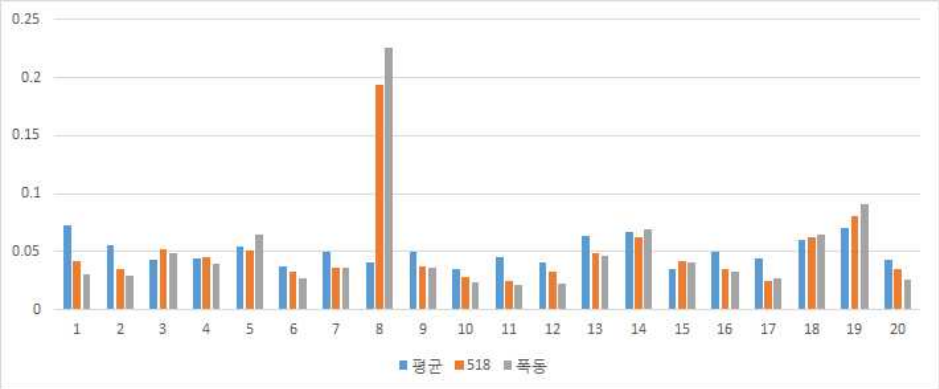
LDA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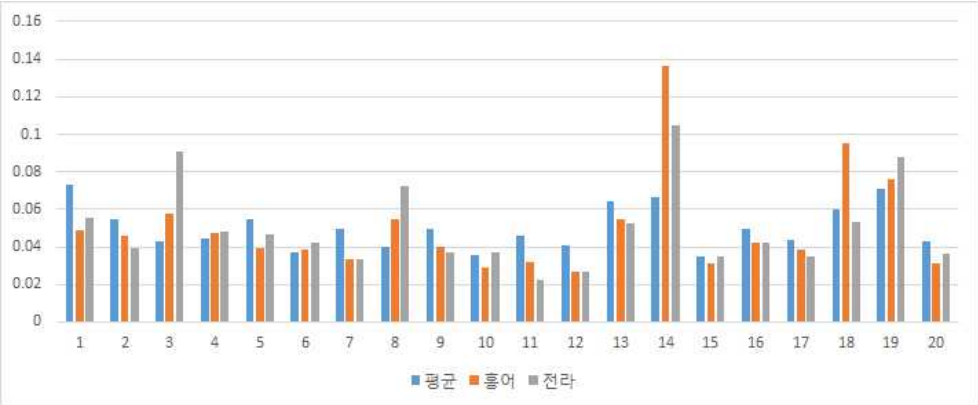
<부록 그림 1> PMI지수를 이용한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네트워크 분석

무기고	3.937975	봉기	3.626739	특수부대	3.387791	부마	3.23389	특별법	3.105403
계엄군	3.8688	발포	3.617657	성역화	3.382232	총격	3.228081	좌익세력	3.1036
총기	3.833511	수류탄	3.58792	해방구	3.374789	화염병	3.225343	남대	3.103472
광주교도소	3.817292	반란	3.575952	탄약	3.355281	포위	3.223242	시위자	3.084981
무장폭동	3.814279	정승	3.569265	파출소	3.35228	도청	3.2198	격렬	3.081127
계엄	3.777572	습격	3.554141	트럭	3.339221	대대	3.184805	상자	3.074482
최규하	3.731827	수사기록	3.552871	실탄	3.336706	부상자	3.17894	적개심	3.067123
광주폭동	3.730124	유네스코	3.548259	기관총	3.329168	황석영	3.175438	전남도	3.059736
비상계엄	3.720665	사상자	3.542513	관공서	3.32197	국가전복	3.144323	주동자	3.057747
군중	3.703505	무장봉기	3.542375	교도소	3.315444	연고	3.140903	전경	3.047262
신군부	3.699017	광주사태	3.541599	돌진	3.312639	약탈	3.135935	유공자	3.046936
군용	3.693327	사망자	3.482502	살상	3.302883	지만원	3.134	연행	3.039772
민주화운동	3.686175	방화	3.477807	바로세우기	3.298965	순경	3.133025	광란	3.036791
광주시민	3.678187	계엄령	3.472588	지휘부	3.289621	직선제	3.131072	역사왜곡	3.036461
탈취	3.678017	항쟁	3.470237	소총	3.288956	광주	3.130482	김재규	3.021287
군경	3.655215	폭력시위	3.458005	시위대	3.274574	양민	3.125427		
공수부대	3.651233	장갑	3.440451	유언비어	3.271341	전두환에	3.122721		
광주민주화운동	3.647873	재조명	3.411994	성역	3.268981	칭호	3.122721		
폭도	3.645254	진압	3.399932	무장	3.262449	주동	3.112941		
광주에서	3.631093	내란	3.392545	내란죄	3.25548	광주시	3.11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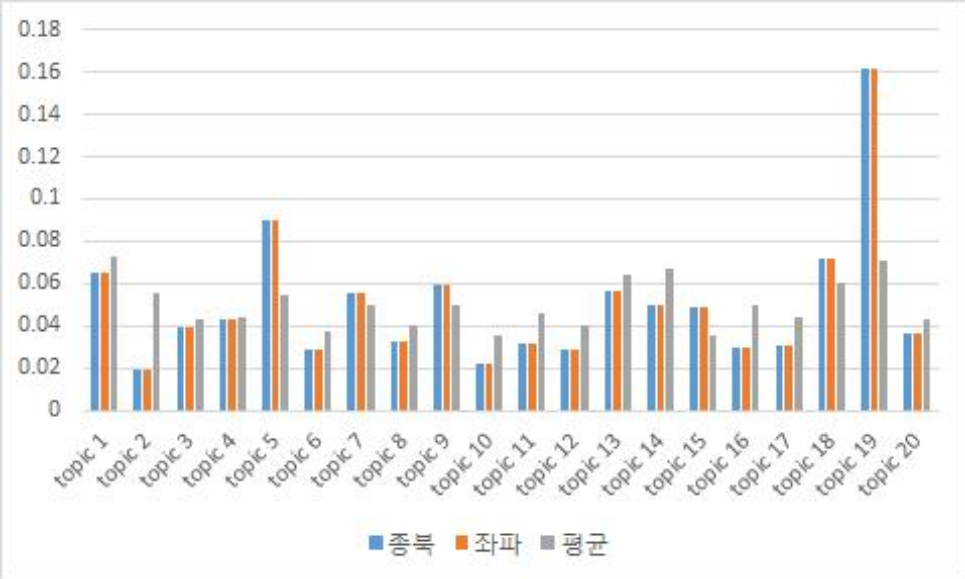
<부록 표 2>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폭동’와 함께 나타나는 PMI스코어 3 이상의 단어



<부록 그림 2>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518'과 '폭동' 단어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 분포



<부록 그림 3>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홍어'와 '전라'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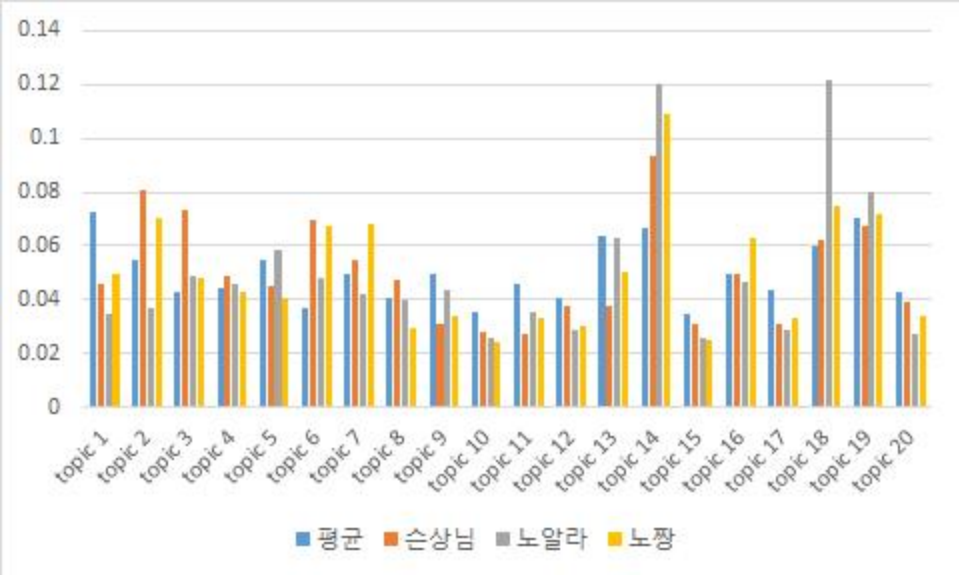


<부록 그림 4>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종북' 및 '전라'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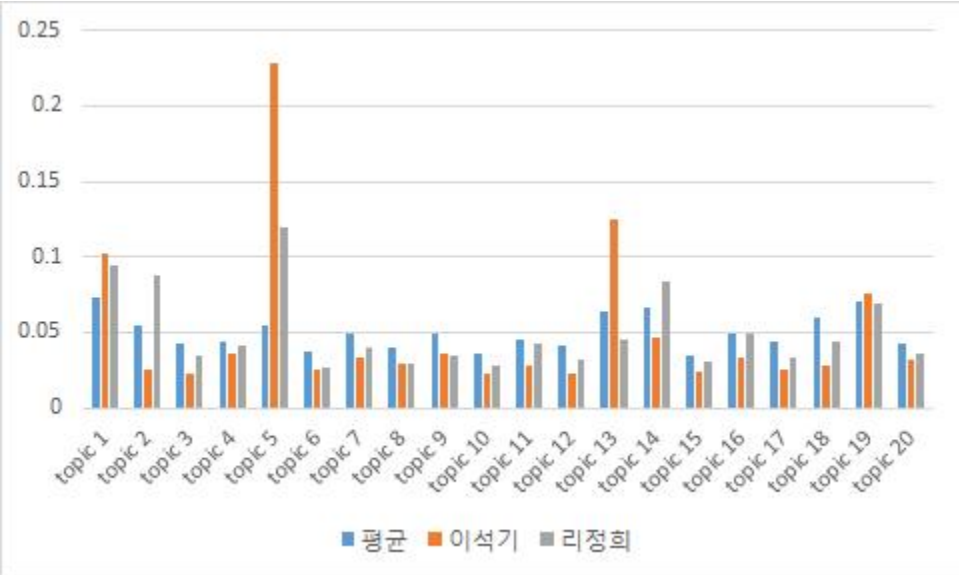
단어	pmi score	단어	pmi score	단어	pmi score
올인코리아	4.176839	대공	3.453614	조종	3.14717
북한정권	4.079622	후원금	3.453614	민중	3.141917
하다	4.041401	점령하	3.443564	적화	3.140788
일심	4.00218	연방제	3.434356	철폐	3.137822
사범	3.965764	선거개입	3.433967	우연	3.133142
왕재산	3.905599	남북한	3.427391	자유민주주	3.131128
혁명가	3.897694	애국시민	3.426215	지칭	3.12511
바로세우기	3.895447	미국산	3.424138	이적단체	3.123007
각성	3.881552	언론계	3.418523	공산	3.119412
진재	3.878498	미행	3.394774	마녀	3.111865
극좌	3.86505	추종	3.394117	노선	3.111293
좌파정권	3.859079	포섭	3.375282	공동체	3.109237
자진사퇴	3.82629	범민련	3.365061	주체사상	3.10727
문책	3.818257	좌편향	3.357386	국가보안법	3.101683
민혁당	3.818257	출간	3.35281	전복	3.101394
공산화	3.773746	정체성	3.345693	기	3.099721
맥아더	3.753719	원세훈	3.320855	후원	3.099358
반역자	3.726908	앞잡이	3.312536	악랄	3.098793
좌파세력	3.709139	주한미군	3.302871	전락	3.096063
북침	3.672977	정치세력	3.292164	남침	3.093243
속셈	3.660477	확립	3.274566	정직	3.09232
좌익세력	3.658409	작금	3.271293	적화통일	3.09232
적	3.657213	은	3.264372	색깔	3.088641
조영환	3.647109	야합	3.262732	남파	3.078921
주사파	3.638021	공작원	3.259023	화해	3.078227
획책	3.635936	동상	3.252944	주류	3.066841
한미동맹	3.62424	민노당	3.24882	당선자	3.063075
걸림돌	3.617917	정화	3.248408	법치	3.061709
이라크	3.616133	지상파	3.243894	두둔	3.058302
전과	3.612405	공세	3.240297	야기	3.057452
법	3.608537	근간	3.228453	주인	3.048149
인민재판	3.603146	반문	3.227301	엄격	3.044788
좌경	3.601132	애국가	3.223956	란	3.041995
실상	3.594693	반	3.22196	도둑	3.037099
복권	3.58859	정치개입	3.22196	노무현	3.03527
통합진보당	3.581059	도구	3.220154	청산	3.035008
강변	3.577667	파병	3.195533	자처	3.032401
위험성	3.566943	대담	3.192805	성명서	3.0312
젊은층	3.566203	헌법	3.192805	찬양	3.0298
전대협	3.546705	김일성	3.19003	공동선언	3.0298
한총련	3.544964	파면	3.188922	반정부	3.026597
보안법	3.537875	비호	3.18876	화시	3.024619
이적행위	3.516135	반국가단체	3.185053	추방	3.022554
출판	3.500134	지배	3.18433	심상	3.022554
쇠고기	3.47822	전단	3.179918	악용	3.01895
어선	3.476087	조갑제닷컴	3.179918	대항	3.016256
정치공작	3.474023	간주	3.177361	선전	3.011782

강령	3.474023	조갑제	3.167123	종북세력	3.007418
법무장관	3.473655	추악	3.165932	규탄	3.005847
이적	3.468342	빨치산	3.154882	실태	3.005309
반공	3.467601	국정원	3.151454	좌익	3.004048
척결	3.46354	언론인	3.150894	친북	3.00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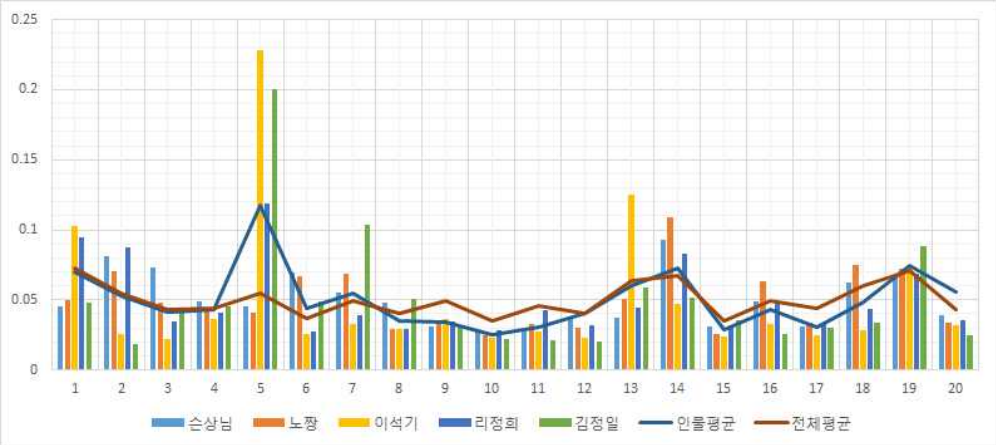
<부록 표 3>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종북좌파'와 함께 나타나는 PMI스코어 3 이상의 단어



<부록 그림 5>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슨상님', '노알라', '노짱'을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부록 그림 6>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이석기', '리정희'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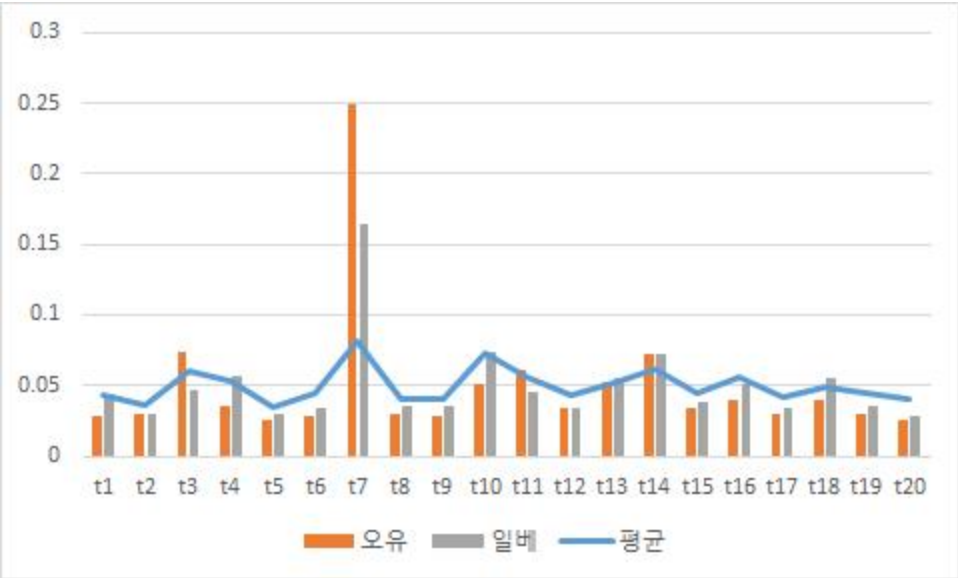
<부록 그림 7> 전체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종북으로 언급되는 인물을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토픽 번호	1	2	**3**	4	5	6	**7**	8	9	**10**
LDA score	0.04378	0.03591	**0.06018**	0.0533	0.03535	0.04486	**0.08159**	0.03992	0.04016	**0.07313**
순위	13	19	**4**	7	20	11	**1**	18	17	**2**
주제	음식·요리	역사·전쟁	**감정표현**	여행·레저	건강	방송연예	**일베·저격**	공부·학업	과학·생태	**여성가족**
1	게이	자신	**ㅋㅋㅋ**	사진	병원	노래	**일베**	학교	동물	**여자**
2	음식	조선	**ㅋㅋㅋㅋㅋㅋ**	시간	의사	음악	**새끼**	공부	지구	**생각**
3	운동	전쟁	**ㅋㅋ**	게이	수술	방송	**저격**	대학	우리	**남자**
4	요리	사람	**ㅋㅋㅋㅋㅋ**	여기	환자	앨범	**병신**	학생	때문	**친구**
5	가격	시작	**시발**	근데	담배	가수	**일베간글**	졸업	우주	**우리**
6	정도	당시	**씨발**	사람	치료	집	**댓글**	회사	발견	**근데**
7	재료	역사	**진짜**	버스	게이	연예	**사이트**	대학교	사진	**사람**
8	소스	고려	**성님**	진짜	피부	영상	**게이**	시험	정도	**진짜**
9	오늘	황제	**아따**	여행	머리	인기	**인증**	영어	정보	**자기**
10	김치	제국	**ㄷㄷ**	생각	증상	공연	**씨발**	교수	인간	**새끼**
11	맥주	우리	**클라스**	건물	근데	사랑	**오유**	고등학교	사람	**엄마**
12	커피	공격	**보소**	도착	효과	유명	**좌표**	수능	마리	**결혼**
13	ㅍㅌㅊ	때문	**ㅠㅠ**	자전거	장애	아이	**민주화**	학년	바다	**아버지**
14	생선	이후	**명불허전**	ㅍㅌㅊ	검사	활동	**진짜**	서울대	에너지	**씨발**
15	생각	이름	**ㅠㅠ**	ㅋㅋ	얼굴	출연	**시발**	시간	이름	**그때**
16	계란	군대	**이거**	아저씨	냄새	연주	**주작**	수업	경우	**얼굴**
17	일게이들	아들	**홍어**	아침	건강	낸시랭	**일게이들**	합격	새끼	**아이**
18	근데	생각	**ㄷㄷ**	시발	정보	기타	**검색**	인증	설명	**시작**
19	치즈	나라	**오오미**	정도	간호사	가사	**오늘**	학원	생각	**이야기**
20	준비	여기	**그와중**	하나	상태	드라마	**근데**	취업	시간	**마음**

<부록 표 4> 일반 일간베스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05628	0.04349	0.05244	0.06198	0.04455	0.05649	0.04174	0.04911	0.04539	0.04033
6	14	8	3	12	5	15	9	10	16
정치	사건.사고	-	지칭	영화.만화.게임	노무현-김대중비하	군사.전쟁	기계정보공유	국제	스포츠
대통령	경찰	년	사람	영화	ㅍㅌㅊ	부대	게이	한국	경기
북한	사건	월	생각	게임	정보	전쟁	사용	미국	시즌
대한	조선족	정보	때문	작품	브금저장소	당시	정보	중국	선수
민국	발견	일	문제	주인공	노짱	우리	가격	세계	리그
우리	피해자	라	여성	만화	오늘	미군	생각	우리나라	우승
국민	서울	스압	경우	시작	저장소	공격	사진	정보	축구
박정희	현장	하	자신	자신	ㅠㅠ	시작	경우	국가	감독
민주	부산	고	이유	스토리	고양이	작전	가능	나라	올림픽
박근혜	대구	다	우리	시리즈	무현	미국	설명	정부	기록
김대중	살해	그	사회	장면	인증	훈련	때문	한국인	최고
노무	조사	줄요약	사실	캐릭터	기분	전차	부분	영국	대회
국정	자살	재업	내용	등장	일게이들	전투	모델	기업	당시
정치	수사	오	남성	정보	게이	무기	제품	러시아	월드컵
정부	사망	내	이상	사람	우리집	정보	근데	달러	스타
선동	상황	나	정도	배우	재업	군대	회사	외국	야구
빨갱이	범죄	이	그것	이름	ㅎㅎ	항공	하나	프랑스	상대
이명	당시	만	가지	스압	이거	상황	정도	경제	김연아
보수	혐의	화	필요	감독	마리	북한	컴퓨터	삼성	이후
시위	전화	분	주장	마지막	호옹이	개발	디자인	사업	시작
후보	성폭행	개	관련	모습	ㅜㅜ	북괴	가지	당시	활약

게시물의 LDA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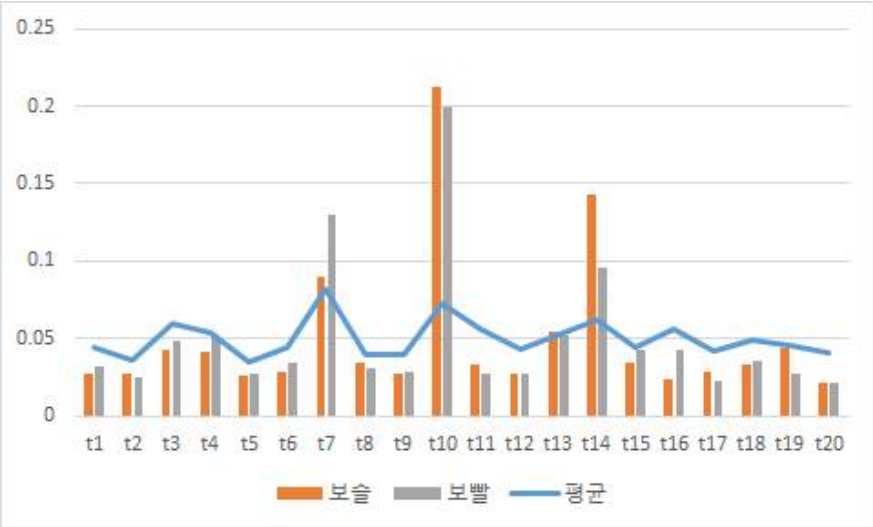


<부록 그림 8 >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오유'와 '일베'를 포함한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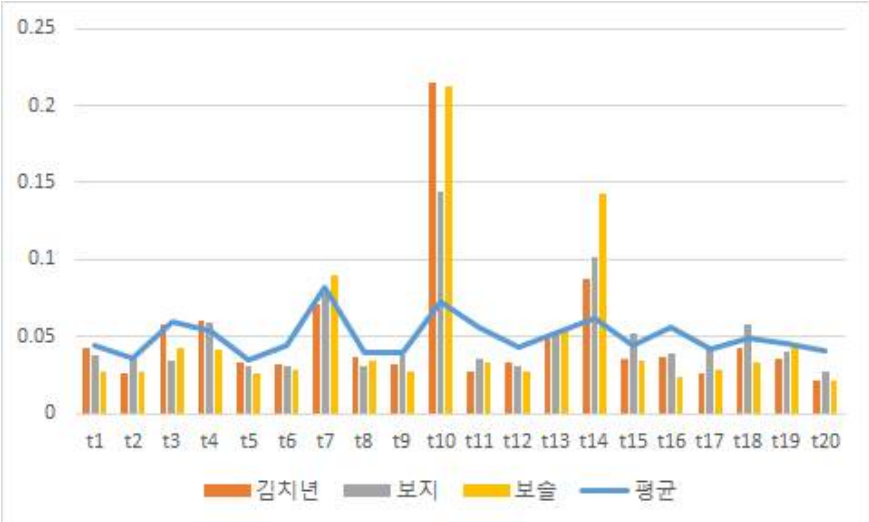
번호	단어	횟수	번호	단어	횟수	번호	단어	횟수
1	정보	33106	35	문제	11288	69	출처	7946
2	생각	27113	36	마지막	10858	70	사용	7928
3	사람	25091	37	다음	10705	71	저장소	7787
4	일베	23027	38	ㅋㅋㅋㅋ	10559	72	아이	7691
5	게이	22167	39	자신	10465	73	가능	7581
6	우리	20960	40	한국	10220	74	거기	7573
7	근데	20636	41	이름	10101	75	세계	7559
8	ㅋㅋㅋㅋㅋ	19673	42	누구	9926	76	마음	7507
9	진짜	19331	43	그것	9864	77	대한	7427
10	오늘	18960	44	가지	9860	78	어디	7238
11	새끼	17796	45	병신	9845	79	얼굴	7196
12	ㅋㅋ	17365	46	당시	9639	80	저격	7043
13	시간	16747	47	남자	9495	81	사건	7022
14	시작	16676	48	인증	9440	82	참고	6889
15	하나	16585	49	사실	9402	83	민국	6870
16	때문	16433	50	친구	9396	84	미안	6799
17	ㅍㅌㅊ	16123	51	경우	9186	85	상태	6786
18	여기	15338	52	필요	9156	86	아래	6751
19	정도	15173	53	이것	9102	87	부분	6744
20	사진	14920	54	내용	9099	88	하루	6715
21	ㅋㅋㅋ	14876	55	설명	9050	89	사이	6633
22	브금저장소	14817	56	모습	8867	90	기사	6605
23	이유	14521	57	노무	8734	91	중요	6574
24	해서	14393	58	우리나라	8539	92	댓글	6483
25	이상	14231	59	일베간	8524	93	수준	6456

26	여자	13165	60	사람들	8515	94	유명	6440
27	일게이들	12627	61	ㅠㅠ	8447	95	얼마	6424
28	이거	12523	62	이후	8436	96	민주화	6421
29	지금	12296	63	줄요약	8422	97	그때	6403
30	자기	12011	64	소리	8416	98	최고	6390
31	상황	11834	65	처음	8350	99	결과	6378
32	시발	11784	66	미국	8307	100	자체	6376
33	요약	11758	67	대부분	8234	-	-	-
34	씨발	11446	68	이야기	814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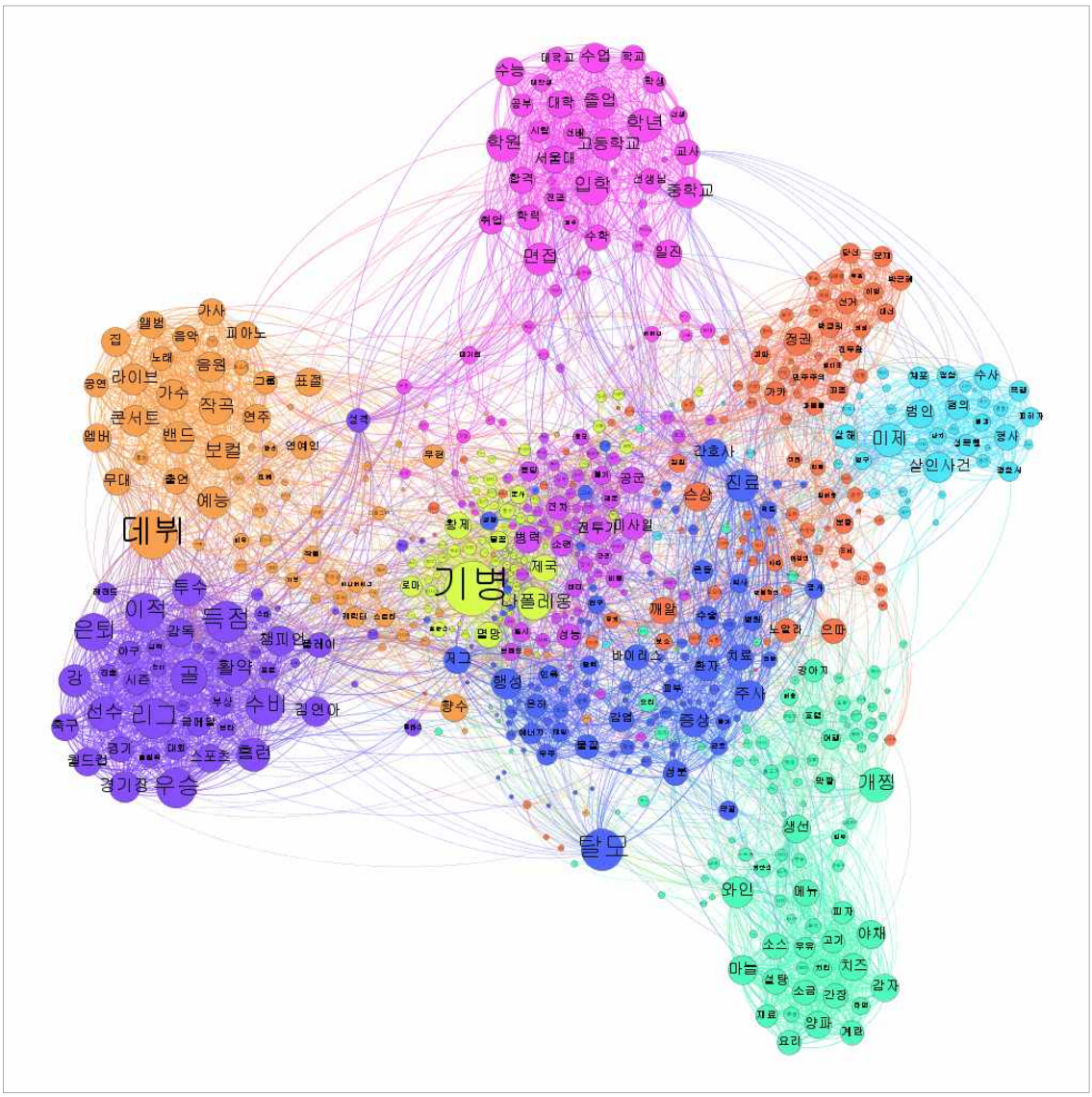
<부록 표 5>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100개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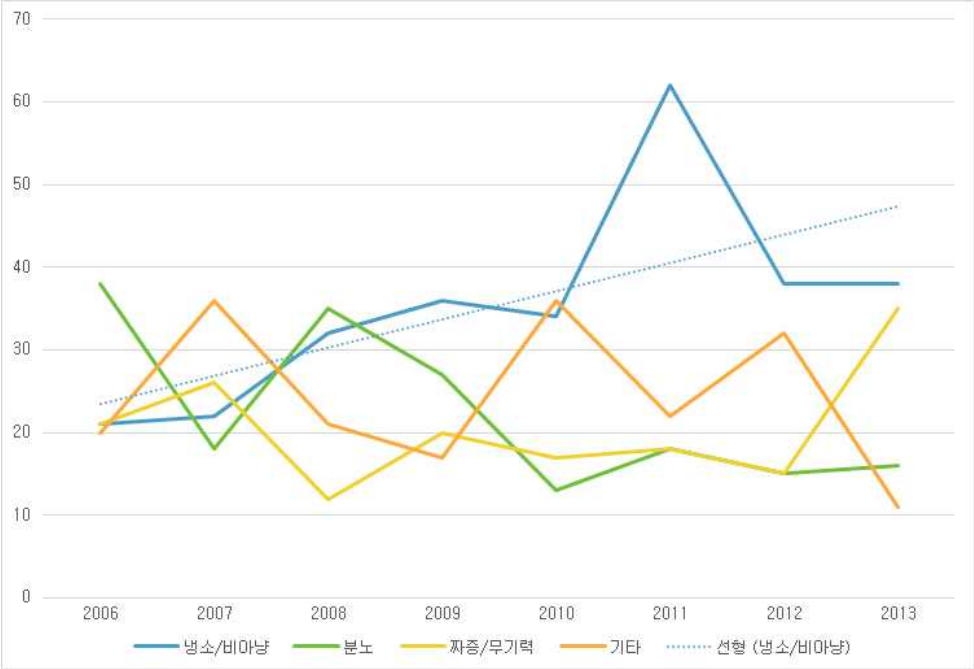
<부록 그림 9>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여성비하어와
남성비하어를 포함한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부록 그림 10>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에서 여성비하어를 포함하는
게시물의 평균 토픽분포



<부록 그림 11> PMI지수를 이용한 일반 일간베스트 게시물의 네트워크 분석



<부록 그림 12>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댓글의 감정분석 (단위는 퍼센트)

2.일베 용어사전

일베 이용자들이 오유를 비롯한 여타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요주의 사이트가 되고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일베의 감시와 신상털이에 위협을 느낀 이들은 주위에 암약하고 있는 일베‘충’을 걸러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왔다. 지금 소개하는 ‘일베 용어 사전’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사전은 일베 이용자라고 여겨지는 이를 그가 사용하는 어휘를 통해 판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사전’을 표방한 이상 이 웹사이트(http://ilbescreen.com/word)가 제공하는 어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즉 디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휘의 맥락을 무시하고 모두 일베로 몰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부록에서는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자주 사용되고 적실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만을 선별하여 수록했다. 이때 사전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단어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아 사실상의 내용은 연구자가 첨부했음을 밝힌다.

7시 지도상전라도의위치가7시방향이라는것을빗댄말.자주'멀티'와함께 쓰인다.

aut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에서 외친 'MB OUT'구호를 패러디한 말.

SUCKSEX success의 발음을 성적sexual인 단어로 음차한 말. 위의 aut과 비슷하게 영단어의 스펠링이나 발음으로 음차하는 식의 언어유희는 촛불집회 당시 어떤 여성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never'를 'naver'로 오기한 것을 비꼬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언어유희는 명백히 집회참여자나 여성 등 '타자'들의 지성을 폄하하는데 사용된다.

가카 1. 각하 2.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존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레이디 가카'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원조 가카'로 부른다.

감성팔이 합리적 판단 근거없이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 일체를 가리키는말.

감자 강원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 유사하게 '감자도', '감자국' 등이 있다.

甲 최고, 권위자 등을 의미하는 접두사. 일베 뿐 아니라 한국 사이버 문화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어원은 KIA타이거즈의 타자였던 이종범 선수를 응원하기 위한 피켓에 신(神)을 신(申)으로 오기한 것이 다시 갑(甲)으로 변용된 것이다. 甲은 항상 존경의 의미를 담는 것은 아니며, 냉소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개쌍도 경상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 '쌍도'로 축약되기도 한다.

게이 1.남성 동성애자 2.게시판 이용자 3.(남성을 지배하는 남성이라는 의미에서)권위자. 일베에서는 주로 2번의 의미로 사용되나 일베가 젠더화된 방식을 고려한다면 1~3의 의미가 고루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고무통 고 노무현 대통령의 줄임말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단어이다.

기분좋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식에서 '야~기분좋다'고 한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컬트적 인기를 얻으며 생긴 말. '기분됴타'로 사용되기도 한다.

김치 한국인 혹은 한국인을 일컫는 말. 자주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는 접두사이며, '김치녀'가 대표적이다.

까보전 까고 보니 전라도 사람의 줄임말. 일베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의 고향이 전라도로 밝혀질 경우, '까보전은 과학'이라는 댓글이 자주 나타난다. 유의어로 '알보칠'이 있다. 알고 보니 '7시'지역 출신이라는 뜻으로 까보전과 동일한 의미.

낙태충 낙태수술을 한 여성을 비하하는 말

네다홍 네, 다음 홍어의 줄임말. 이때 홍어는 전라도 사람의 멸칭이다. '네다'는 맥락에 맞지 않거나 커뮤니티 진영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의견을 표출하는 이용자를 무시할 때 접두사로 사용되어 대타자를 속되게 부르는 말을 붙여 사용한다. 'ㄴㄷㅎ'으로 사용되기도 함.

노릇노릇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에서 희생된 이들을 비하하는 말이지만 더 크게는 대구, 경북 출신자들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된다. 유의어로 '통구이' 혹은 '통궈'가 있다.

盧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로 알려져있으나, 본래적 의미보다는 경상도 사투리의 어미와 결합되어 사용된다.

노무노무 고노무현전대통령을비하하는'노'와합성되어'너무너무'와같은부사로사용된다.

노시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씨로부터 대가성으로 시계를 받은 것을 조롱하여 노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노시개로도 표현된다.

노알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 노알라의 어원은 두 가지 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일베가 나타나기 전부터 노 전 대통령을 신처럼 추앙한다는 조롱의 의미로 '알라'가 쓰였다는 설과 단순히 코알라를 노 전 대통령의 사진에 합성한 것을 노알라로 불렀다는 설이 그것이다.

노오란 그 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 노 전 대통령의 상징색이 노란색이었던 것에 비유한 표현이다.

노운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한 것을 일베 등에서는 과거 영화배우 최민수씨가 '운지천'이라는 드링크제를 광고한 것에 빗대 '운지'라 표현한다. 자주 '나는 자연인이다'와 함께 사용된다.

놈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축약한 것으로 생전부터 그를 반대하는 이들이 두루 사용해왔던 말이다.

~드립 애드리브를 축약한 말. 애초의 용법은 TV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무하고 얄팍한 '개같은 애드립'을 비난할 때 쓰이던 '개드립'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어미화되어 비하 혹은 유머의 대상과 함께 사용된다. 용례로 '고인드립' '호성드립' 등이 있다.

땅크 전차의러시아어발음이지만 일베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유의어로 땅끄, 전땅끄 등이 있다.

라도 전라도를 비하하는 말.

~라디언 전라도 출신자들을 비하하는 말로써 어미로 활용된다. 전라도 출신 서울 거주자를 뜻하는 '설라디언'이 대표적.

문죄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비하하는 말.

민주화 1. 하향평준화, 저급화 2.반대, 비추천 3.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함

~밍아웃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에서 '밍아웃'을 어미로 다양한 어휘로 변용됨.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은어와 결합한 '보밍아웃'이나 일베와 결합하여 '일밍아웃', 전라도를 비하하는 홍어와 결합되어

'홍밍아웃'등으로 사용된다. 이때 '아웃'은 자주 탈락된다.

병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비하하는 말.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주 스스로를 자주 '병신'으로 비하하는데, 말싸움 등이 일어났을 때 '병신'들 끼리 '경쟁'을 한다는 데 착안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이때 병림픽은 자주 '이겨도 병신, 져도 병신'이라는 자조를 이끌어내기도 하는데, 이는 다시 '이왕 병신이라면 이긴 병신이 되자'는 굴절된 승부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보빨 남성이 여성을 과하게 치켜세우거나, 여성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행위

~부심 자부심을 의미함. 일베의 경우 일베를 한다는 자부심을 '일부심'이라 부르며 그들간에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화 1.상향평준화, 선진화 2.일베 아닌 사람이 일베를 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3.게시판 등을 보수적 의견으로 도배하는 것 4.진보적 의견을 가진 이들을 논리로 설득하거나 논파하는 것

삼일한 (특히 한국)여성은 3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는 말.

성괴 성형괴물'의 약어로 성형수술을 한 여성을 비하하는 말.

수꼴 수구꼴통. 맹목적 보수주의자를 비하하는 말.

스시~ 일본을 의미하는 접두사. '스시국', '스시녀'가 대표적이다.

슨상님 호남 사람들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하하기 위해 서남방언을 차용하여 표현한 말.

씹선비 듣고 싶지 않은 훈계를 하는 사람 혹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막장'스러운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덕주의자인 척 하는 이들을 싸잡아 비하하는 말. 대체로 일베의 대타자인 오유 이용자들을 지칭할 때 자주 쓰인다.

아재 아저씨의 영남방언. 일베에서는 특히 정치게시판 이용자를 비하할 때 자주 사용된다.

어그로 영어 'aggravation'을 축약한 'aggro'에서 비롯된 말. 주로 온라인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던 말이었으나 최근엔 사이버공간의 담화상황에서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오유충 오늘의 유머 이용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

일베충 일베 이용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 일베 이용자들은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일게이'와 함께 '일베충'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일베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루저문화'를 대변한다. 자주 순화된 표현인 '베충' 혹은 '베츙'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재기甲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애정을 담아 지칭하는 말. 유의어로 '재기찡'이 있다.

좀비 아무 생각 없이 선동에 휩쓸리는 이들을 비하하는 말. 좌파를 수식할 때 자주 사용되나,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우파에게도 사용한다.

좆목질 남성의 성기와 친목질의 합성어. 남성들 사이의 친목활동을 말하며, 일베에서는 여타 친목활동과 마찬가지로 금기시된다.

좌 진보성향을 가진 이들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두사. '좌파좀비'를 뜻하는 '좌좀'이 가장 유명하나, 좌음(다음)이나 좌이버(네이버), 좌이트(네이트)로 사용되는 등 용법은 무궁무진하다.

주먹 주면 먹는다'의 줄임말. 이때 '먹는다'는 성관계를 뜻하는 속어이다. 여성의 사진이 게시된 글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유의어로 '주절먹'이 있다. '주면 절하고 먹는다'는 뜻.

중력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

중궈 좌파 논객 진중권 교수를 의미함. 중꿔, 진중궈 등으로 변용되기도 한다.

평타치 게임 용어에서 비롯된 말로 '평범한 타격'을 양화한 단어이다. 일베에서는 '중간 정도'를 의미하며, 평균 이상일 경우 '상타치' 혹은 '씹상타치', 이하일 경우엔 '하타치'로 사용된다. 이는 다시 각각 'ㅍㅌㅊ', 'ㅅㅌㅊ', 'ㅆㅅㅌㅊ', 'ㅎㅌㅊ'로 표시한다.

탈~ post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접두사. 일베에서는 '탈라도', '탈김치'와 같이 생득적으로 타자의 속성을 타고 났으면서도 후천적으로 '산업화'된 이들을 의미한다.

호성드립 고인드립및지역드립의일종.2008년해태타이거즈선수출신사업가이호성이내연녀와내연녀의세딸을살해한사건에착안하여호남출신자(혹은KIA타이거즈팬)들을비난할때사용되는드립.2008년당시KIA타이거즈를싫어하던야갤러들이조직적으로퍼뜨린것으로알려져있다.'오오미''지리것소'와같은서남방언의감탄사가'호성성님은힘이장사셨제'와함께사용된다.

홍어 전라도 출신자들을 비하하는 말.

홍팍 오유와 함께 일베와 대립각을 세우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MLBpark를 의미하는 멸칭.